

문화 + 예술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2

2009년 서울에서는 우리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서울시는 젊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울 시민들이 예술과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2009년 6개의 창작공간을 오픈한다. 아직까지는 낯설고 쑥스러울지 모르는 예술가와 시민의 만남. 6개의 창작공간을 통해, 이 둘의 만남이 점차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길 기대한다.



54

4월 28일 저녁 7시 30분,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에서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사전에 YES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40명의 독자들이 시간에 맞추어 이 자리에 모였다. 사람과 사랑을 말하는 드라마 작가 노희경,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된 팜 칼럼니스트 김태훈 그리고 독자들의 만남. 그 날의 대화와 분위기를 지상중계 해본다.



78

2007년 로잔 콩쿠르 그랑프리 수상만 놓고 본다면, 박세은은 소위 말하는 천재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발레리나로서 그녀의 성장과정을 들여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1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한 그녀는 독심과 열정, 자기 확신 등 강한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무장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왔다. 잠시 반짝이는 별이기 보다는, 성숙한 빛을 내는 별이 되기 위해, 그녀는 지금부터 또 다시 스스로를 무장한다.

2009 / 06 / Vol 28



COVER STORY

신극의 선구자 동량 유치진 선생이 문화예술을 위해 만든 공간 드라마센터가 서울예술대학 드라마센터를 거쳐 남산예술센터로 거듭난다. 예술의 메카에서 펼쳐질 다양한 공연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앞으로 우리 문화계에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바로잡습니다

5월호 '문화를 나누는 손 - 대원문화재단' 76페이지에 실린 사진은 대원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 02 IMAGE SEOUL 열린 창작공간 속에서 피어나는 문화서울
- 06 CULTURAL NEWS 6월의 공연전시 소식
- 10 COLUMN 문화공간이 제시하는 '창조적 해법'

6월의 문화+서울

- 12 2009 서울, 젊은 예술가의 초상 - 2009년, 서울문화재단이 오픈하는 6개의 창작공간
- 18 창작공간추진단장 김윤환 인터뷰·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입주작가 (앨리스온, 디렉팅 스튜디오) 인터뷰
- 28 해외 창작공간의 사례로 본 서울 창작공간의 방향 - 볼로냐, 상하이 등 외국 창작공간 사례

특집리뷰

- 32 분홍색꽃 물결과 함께한 따뜻한 봄날의 추억 -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다시 보는 서울

- 38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 씨, 인력거 타고 가다
- 46 6인 6색의 서울 리서치 도곡동 (미스테리우스, 타워팰리스)

지금 서울은

- 54 HOT SKETCH 글로 사람과 사랑을 만난 시간 -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
- 60 HOT SKETCH 땅 위와 땅 밑,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한 우연 - 서울거리아티스트 vs 지하철예술무대
- 66 EMERGING SPACE 명동의 예술시대를 다시 꿈꾼다 - 삼일로 창고극장

사람과 사람

- 72 FOCUS INTERVIEW 소박한 세상을 디자인한다 -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교수
- 78 YOUNG ARTIST 2009 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발레소녀 - 국립발레단에 최연소 특채로 입단한 발레리나 박세은
- 84 문화를 나누는 손 문화교육을 선도하는 기업문화경영의 전도사 - 홀플러스 전무 설도원 인터뷰

서울 안과 밖

- 88 OPEN REPORT_서울 너머로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 - 하노버 기계산업박람회 2009 동반국가 문화행사 <Made in Korea>
- 94 I AM SEOULITE Don't Forget to eat!
- 96 OPEN REPORT_서울 속으로 현책방에 가면 열애가 있다
- 98 재단사업 꿈꾸는 나이란 없다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워크숍 현장 및 2009 사업 일정
- 102 문화 캘린더
- 104 재단소식
- 109 독자엽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 발행일 2009년 5월 26일 |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발행인 안호상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홍보마케팅팀장 이현아 | 이승민, 변현정, 김민지, 신동석, 김보연, 나오미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 제작 AGI Society 김태혁, 김민재 02.3141.9902 | 사진 AGI Studio 손승현, 한금선, 정강, 천현정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열린 창작공간 속에서 피어나는 문화서울

예술이 특별한 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오픈하는 6개의 창작공간을 들여다보면

예술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함께 숨 쉬고 있다.

등분을 떼기 위해 들락거리던 낯익은 동사무소와

어머니가 저녁마다 콩나물과 두부를 사던 재래시장,

아버지가 매일 출근하던 인쇄공장 등이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바뀌고

그공간과 이웃한 동네 사람들은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예술이 일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곧 문화가 된다.

자, 이제 서교로, 문래로, 신당으로, 금천으로,

연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산으로 가보자.

열린 창작공간,

그곳에 문화서울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글 | 임후남(수필가)

열린 창작공간 속에서
피어나는 문화서울



1



2



3

- 1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하늘 공작소
- 2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 3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다목적 공간



1



2

1 남산예술센터 외관
2 남산예술센터 공연장

서울광장에서 누리는 문화의 봄밤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서울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서울광장 아트펜스 상설무대에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오페라, 뮤지컬,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이 행사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며, 관객들은 매일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6월에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비롯하여 전통, 현대무용, 패션 쇼,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과 사랑의 콘서트 등이, 7월에는 클래식, 8월에는 국악과 한국무용, 9월에는 재즈, 10월에는 뮤지컬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매달 서울광장에서 신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을 열어 입상자에게는 서울광장을 데뷔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공연정보와 참여 신청접수는 서울광장 홈페이지(www.ca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시 2009. 5. 16~10. 10
장소 서울광장
문의 서울특별시 문화국 예술정책팀
02-2171-2476

"나도 스타" 오디션 접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에서는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분야 아티스트들의 데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나도 스타"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다. 활동 분야는 크게 음악(노래, 연주), 전통예술, 무용, 극(퍼포먼스 포함) 등이며, 개인부터 프로 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단체, 순수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단체들이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다. 아래에 안내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커뮤니티를 클릭한 후, '주목! New Face 온라인 접수'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9월 25일(금)까지 상시 신청 받으며 행사기간 중 매일 1회 토요일 오후(확정 일시 추후공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광장 아트펜스 상설무대에 오를 오디션에 선발된 아티스트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에서 공연하게 된다.(공연일자는 추후 협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casp.or.kr/community/face.a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가 엄선한 좋은영화 무료상영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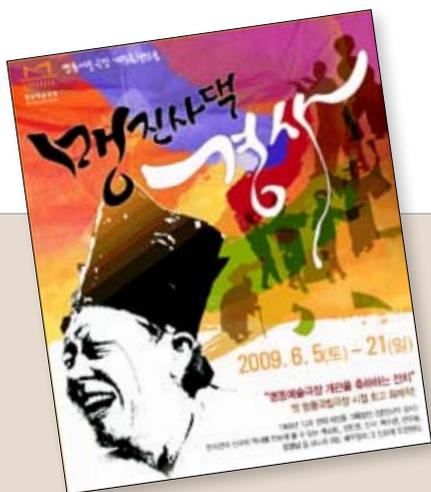
- 2009 좋은 영화감상회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시내 7개 상영관과 청계광장,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등지에서 280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2009 좋은 영화감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명화부터 상영 시기가 1년도 안된 흥행작, 국내에 소개된 적 없는 신작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화평론가, 교사 등으로 구성된 영화선정위원회에서 엄선한 280편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14회째를 맞은 본 영화제는 상영 장소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서울시내 권역별 상영관에서 총 360회 고정 상영한다. 지역별로 장소와 요일, 시간을 고정화하여 운영되는 거점상영관은 좌석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좋은영화감상회사이트(www.seoulgoodmovie.com)에서 좌석예약을 하면 선착순으로 좌석을 지정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02-2171-2433)로 문의 바란다.

장소	시간	위치
씨너스단성사(10관)	매주 (수) 오후 7시	종로 3가
씨너스강남(2관)	매주 (목) 오후 4시	강남
필름포럼	매주 (금) 오후 4시	신촌
크림시네마	매주 (금) 오후 7시	대치동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매주 (화),(토) 오후 2시	중랑
노원문화원	매주 (금) 오후 7시	공릉 1,3동 710
노원어린이도서관	매주 (수) 오후 3시	중계 4동 356
검재정선기념관	매주 (금) 오후 7시, (토) 오후 4시	강서

월별	주요테마	프로그램
5월	예술과의 만남, 다양한 장르 맛보기	클래식, 오페라, 퍼포먼스, 국악
6월	댄스 댄스&퍼포먼스	발레, 발리, 재즈, 살사댄스, 힙합, 전통무용 등 댄스페스티벌
7월	클래식의 모든 것, 모든 것의 클래식	고전 클래식, 클래식 발레, 클래식 오페라
8월	우리의 것, 전통예술	국악, 한국무용, 소리와 춤
9월	재즈&재즈	재즈페스티벌, 영화와 함께하는 재즈아시아 문화 한마당(10개국)
10월	배우의 해설이 있는 뮤지컬	뮤지컬 갈라 쇼, 2009 공연 콘서트



명동문화의 부흥을 다시 꿈꾸며 -명동예술극장 개관축하공연 <맹진사댁 경사>

일시 2009. 6. 5~6, 21
장소 명동예술극장
시간 화, 목, 금 8시 | 토 3시, 7시 | 수, 일 3시 | 월요일 공연 없음
원작 오영진 | **연출** 이병훈
문의 및 예매 1644-2003 | www.MDtheater.or.kr

1934년 명치좌(明治座)란 이름으로 문을 연 명동 국립극장은 1948년 서울시공관으로 명칭을 바꾼 뒤 1973년 장충동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 까지 공연예술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개발 붐을 타고 극장지리에 금융회사가 들어왔고, 명동거리도 패션과 금융의 거리로 탈바꿈했다.

명동 국립극장이 34년 만에 '명동예술극장'으로 재개관한다. 오는 6월 5일 선보일 개막작은 정동 연극 <맹진사댁 경사>. 장민호, 신구, 백수련, 전무송, 장영남 등 한국연극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배우들이 12회 전회 매진의 신화<맹진사댁 경사>는 1969년 12회 전회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에 다시 도전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리어왕'으로 '제 1회 대한민국연극대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연출가 이병훈과 무대 디자이너 박동우 등이 합류했다. '신분의 역전과 이를 과정으로 한 화해'라는 메시지를 재조명하며, 이전과는 대조적으로 단순화 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간	내용
6.5	명동예술극장 개관식
6.5~6.21	<맹진사댁 경사> 오영진 작, 이병훈 연출
7.10~7.26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최인훈 작, 한태숙 연출
9.18~10.11	<밤으로의 긴 여로> 유진 오닐 작, 임영웅 연출
10.13	연기경연 <Actor's Platform>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동주최
10.16~17	베세토연극제 <시라노 드 블쥬락> 스텝 타다시 연출(일본)
10.20~21	베세토연극제 <선비와 망나니>(중국)
10.30~11.8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헨릿> 세익스피어 작, 양정웅 연출
11.10~1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세르지의 효과(L'Effect de Serge)>(프랑스)
12.11~2010.1.3	<베니스의 상인> 세익스피어 작, 이윤택 각색 및 연출

한국 디자인 유산이 한 자리에 1 우리를 닮은 디자인, <Korea design heritage 2008> 展

일시 2009. 5. 15~6. 6 (전시기간 무휴)
장소 한국디자인문화재단 디자인갤러리 D+
시간 10:00~18:00
문의 02-735-9672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은 지난 50년간 한국인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코리아디자인 52개 품목을 뽑아, 오는 6월 6일까지 디자인갤러리 D+에서 '우리를 닮은 디자인 <Korea Design Heritage 2008> 展(이하 코리아디자인2008)을 개최한다.

코리아디자인2008에 선정된 품목은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거나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 대상으로, 한국인이자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52개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1963년에 처음 만들어진 모나미볼펜, 1983년에 태어난 아기공룡 둘리, 2002년에 생산된 아이리버 등을 비롯해 철가방, 이태리타올, 솔뚜껑 불판, 바나나우유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실물과 영상, 문헌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선정된 품목들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52개 품목들에 대한 공감여부를 물어 각 품목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개한다.

한편, <Korea design heritage 2008> 전시는 디자인갤러리 D+에서 처음 전시된 후 우리의 디자인 유산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순회전시로 이어질 계획이다. 입장료는 무료.

2 <모던 코리아 70>: 70년 동안의 한국현대문화혁신展

일시 2009. 5. 22~8. 31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휴관)
장소 한양대학교 박물관
시간 10:00~17:00
문의 02-2220-1394~6

한국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 가사 노동의 혁명을 가져온 최초의 냉장고와 세탁기, 1970~80년대 패션 아이콘이었던 미니스커트와 청바지...

지금은 골동품 취급을 받지만 한때 최첨단을 달렸던 유물들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양대박물관은 8월 31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모던코리아 70: 70년 동안의 한국현대문화혁신'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

한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1963년), 최초의 소주인 낙동강 소주(1952년), 최초의 생수인 '다이아몬드 생수'(1976년) 그리고 놀이 문화의 혁명을 이끌었던 최초의 노래방 기기(1991년) 등 모두 70종의 유물을 선보인다. 이만영 컴퓨터(1964년) 등 소장유물을 제외하고, 부족한 유물은 교통문화협회, 활판공방, (주)다이아몬드 샘물, 삼양라면, 진로그룹 등 20여개 기관에서 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uf.hanya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디음악, 대중 속으로

—제1회 인디 루트 페스타: <10년 밴드 10년 클럽>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디 밴드들이 인디 음악을 대중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인디밴드들의 연합체인 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는 오는 6월 20일까지 서울 홍대, 신촌 등 인근 클럽에서 제1회 인디 루트 페스타: <10년 밴드 10년 클럽>을 개최한다.

지난 10년 간의 인디 음악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인디 루트 페스타(Indie Root Festa)는 단발성 이벤트의 성격을 넘어서, 인디 음악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연과 포럼, 전시 프로그램이 일체화된 복합 공연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인디루트의 주제는 '10년 밴드 10년 클럽'으로, 오랫동안 스스로의 음악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며 활동 중인 인디 1세대 음악인들과 인디음악계의 기반이 되고 있는 홍대 인근의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인디 10년사를 되짚어 보는 포럼 <인디음악 10년, 그리고 미래>와 음반 및 사진 전시회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은 인디 음악에 관한 이해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인디 음악은 마니아의 음악'이라는 등식을 없애기 위해 윤도현 밴드, 이한철, 이장혁, 크라이넛, 올드피쉬, 보드카레인, 노브레인 등 인기를 바탕으로 주류음악을 선보이는 인디 밴드들을 무대에 세운다. 또 '클럽은 마니아를 위한 장소'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공연 일수는 매주 금, 토요일 12회로, 장소는 홍대, 신촌, 이대 인근의 9곳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인디음악은 하드록'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기화와 얼굴들처럼 재미있는 음악을 하거나 소프트한 록을 추구하는 그룹들을 대거 무대에 세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인디음악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한철, 오메가3, 윤도현밴드, 이장혁, 오! 브라더스, 타바코쥬스, 에브리싱글데이, 흐른, 아툼북, 보드카레인 등이 함께 한다.

일시 2009. 5. 15~6. 20

장소 신촌, 홍대 인근 클럽

문의 02-332-5150 | <http://www.livemusic.or.kr>



브런치와 국악의 만남

— 6월부터 매월 진행되는 <정오의 음악회>



그동안 서양 클래식 음악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브런치 콘서트 열풍에 우리음악에 중심을 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 <정오의 음악회>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 한 해 동안 총 6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국립극장의 <정오의 음악회>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통 관현악곡부터 영화와 드라마 OST, 대중가요, 퓨전 국악곡까지 재미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악 장르로는 유일하게 정오에 진행되는 상설 공연으로, 상반기 프로그램은 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을 주 타겟으로 삼고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위주로 구성하였다. 하반기에는 보다 깊은 국악 관현악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연철 국립극장장은 “국악이 어렵고 지루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정오의 음악회>의 지향점”이라면서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국악 전도사라는 생각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작품들로 공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오의 음악회> 두 번째 공연은 6월 5일 열린다. 6월 공연은 영화드라마 음악, 동요, 가요 등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시범공연으로 진행한다. 이후 7~8월에 정비 기간을 거쳐 9~12월에 한 차례씩 공연을 올린다. 내년에는 매주 마지막 월요일 11시에 고정적으로 공연할 계획이다.

공연명	황병기와 함께하는 '정오의 음악회'
	6월 5일(금) 11시
	9월 15일(화) 11시
공연일시	10월 20일(화) 11시
	11월 24일(화) 11시
	12월 30일(수) 11시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주 최	국립극장
주 관	국립국악관현악단
관람료	전석 10,000원
문의	국립극장 객석지원실 02-2280-4115~6 www.nlck.go.kr



시민이 만든 특별한 휴식

— 〈2009 서울시 벤치·의자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서울시는 “도시민에게 특별한 휴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공모 주제로 하여 서울시내 특정장소에 실현가능한 벤치 및 의자 디자인을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하였으며, 공모전 응모작 1,587점 중 수상작 93점을 선정하였다.

〈2009 서울시 벤치·의자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청계천 옹벽에 사용자 편의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벤치(조준희·서호성·우선하씨 공동 출품)로, 수동적인 벤치에 놀이와 D.I.Y 개념을 결합하여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아날로그적 기법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감성을 잘 표현한 새로운 개념의 벤치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한편, 수상작 중 선별된 작품은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잠실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에 실물로 제작·전시되며, 수상작에 대한 작품집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일시 2009. 6. 8~6. 10 (예정)

장소 서울광장

문의 02-6361-3459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



대상 수상작품 'D.I.Y(Do It Yourself)'형 벤치

서울시 창작공간의 문이 열린다

— 6월 8일, 남산예술센터 개관



2009년, 서울시가 차례로 오픈하는 창작공간 6곳 중 하나인 남산예술센터가 오는 6월 8일 개관한다.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남산예술센터는 이날 서울시 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외부에 첫 공개한다. 남산예술센터 내 공연장에서는 앞으로 창작 현대극의 활성화와 새로운 공연양식 발굴을 목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과 체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예술관에서는 시민과 예술가를 상대로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개관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연세대 김형수 교수가 첨단 테크놀로지와 연극적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밖에도 남산예술센터의 개관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남산예술센터는 중구 예장동 8-19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 공간이 제시하는 ‘창조적 해법’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창작 공간들에 흥분된 기대감을 감출 수 없다. 그들은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에 어떠한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문화는 ‘구경’이 아니라 ‘사는 것’ 그 자체임을 웅변해주는 창작 공간이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창의성은 기발한 발상이나 잠깐의 재미가 아니라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에 산뜻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고, 예술은 그 과정과 결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임을, 나아가 문화예술은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체로 살게 해주는 힘임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1990년 어느 날, 일단의 고등학생들이 미국 남부 휴스턴의 한 가난한 동네에 정착한 예술가 릭 로위의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릭 로위는 사회적 이슈를 표현해 다소 정치성이 강한 작품들을 제작 중이었다. 한 학생이 말했다.

“네... 분명 이 작품은 우리 이웃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나 같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설교하러 드는 대신,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러 애쓸 거예요.”

그날 이후 릭 로위는 현실참여파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갤러리 벽면이나 꾸미고 장식하다가 미술계의 잘 팔리는 아티스트가 되는 희망도 포기했다.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온 그는, 대신, 삶 자체가 예술 작업이라는 명제에 주목했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동료 예술가들과 1930년대에 지어진 셋방용 판잣집 스물두 채를 사들였다. 그의 진심이 국가 및 민간 재단의 후원, 기업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자원봉사자들은 판잣집 청소와 허드렛일에 땀과 정열을 쏟았다. 한 교회가 보수 중인 판잣집 하나를 ‘입양’하자, 지역 주민들이 연달아 한 채씩 집을 ‘입양’했다. 버려진 판잣집들을 돌봐줄 주인이 생긴 것이다.

빈민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 아홉 채와 국내외에서 찾아온 예술가들이 기거하며 작업할 수 있는 집 여덟 채가 들어섰다.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다섯달 동안 작업을 했다. 이웃의 허름한 집 여섯 채도 ‘예술적으로’ 고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대 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이곳의 커뮤니티 정신이

주는 역동성과 가족적 분위기 그리고 역사성에 주목한 벽화나 그림, 미디어 아트 등을 내놓았다. 이곳의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도 예술가들이 즐거워하는 창조 작업이었다. 미혼모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살 길이 막막한 미혼모들에게 숙식과 교육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주인’임을 일깨웠다. 미혼모들을 ‘예술가’로 대우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놓았다.

창작 공간이 공동체 운동의 진원지가 된 휴스턴의 이야기는 가슴을 뛰게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제시한 그 예술성은 지금도 나를 감동시킨다. 그래서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창작 공간들에 흥분된 기대감을 감출 수 없다. 그들은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에 어떠한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혹시 이 곳에서 가출 청소년들과 노숙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갖는 공간을 고민했던 변호사 강지원 선생님에게 ‘창조적 해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문화는 ‘구경’이 아니라 ‘사는 것’ 그 자체임을 웅변해주는 창작 공간이 사회 곳곳에 큰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

글 | 이정화

재단법인 예음 사무국장. 동아일보-영국 워릭대학-성남문화재단 등에서 일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과 영국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했다. 언론,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불평거리를 줄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 문화예술리뷰 파워블로거이기도 하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6 p. 28

6월의 문화+서울
2009년, 서울문화재단이
오픈하는 6개의 창작공간





2009 서울, 젊은 예술가의 초상

2009년, 서울문화재단이 오픈하는 6개의 창작공간

2009년 서울에서는 우리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서울시는 젊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울 시민들이 예술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2009년 6개의 창작공간을 오픈한다. 아직까지는 낯설고 쑥스러울지 모르는 예술가와 시민의 만남. 6개의 창작공간을 통해, 이 둘의 만남이 점차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길 기대한다.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외관

예술은 언제나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져 왔다. 그러나 예술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삶 그 자체가 예술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술가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일상의 멋이 깃든 예술이 세상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서울이 당신을 후원한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예술문화 프로젝트, 이제 그 매혹적인 자태가 드러날 시간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두 손이 그 베일을 벗겨주길 기다리면서...

서울시는 컬처노믹스 전략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의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도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2009년, 드디어 서울 곳곳에 6개의 창작공간이 개관한다. 6월엔 2개의 창

작공간이 첫 테이블을 꿰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카드 Joker :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홍대 앞 창작공간,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는 6월에 개관한다. 이곳은 기존의 동사무소 건물을 재활용해 탄생시킨 문화공간으로, 조커카드를 연상시킨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커들이 가득한 예술의 거리 홍대 앞에 그들만의 아지트가 오픈된다.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는 열린 문화공간이다. 공공미술, 연극, 예술매거진, 음악,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술가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거리의 예술가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지하공간은 준비형 거점으로 소형 공연 및 워크숍 발표,

연습실로 사용되고 1층은 매개형 거점으로 전시와 북카페형 회합 공간 및 문화정보의 공유지로 쓰일 예정이다. 2층은 상주형 거점으로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고, 옥상은 이벤트형 거점으로 프로젝트 준비 시민들의 공개강좌 및 휴식의 자리로 운영될 것이다.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는 개관식과 함께 다양한 개관기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개관식은 동사무소의 주인인 지역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예술가들에게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카드 ♠A : 금천예술공장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예술공장은 8월에 개관될 예정이다. 대규모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세워진 에이스층의 에이스다. 화려한 스페이스 에이 카드만큼이나 웅장한 이곳은 장기 레지던스형 스튜디오와 통합장르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국제적 문화예술의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이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탄생했다. 프로젝트 진행공간인 본관과 창조적 예술가들의 일상 아지트가 될 레지던스로 나뉘며, 예술가들에게 최대 3년의 입주기간을 보장한다. 입주한 예술가들이 장르를 초월해 통합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 공간은 말 그대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끊임 없이 생산해낼 대규모 예술생산공장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카드 ♥K : 신당창작아케이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7월 개관예정이다. 재래시장에 있던 빈 점포들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작가들에게 공방을 제공해줄 '왕의 카드'다. 이 창작공간은 재래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예술가들의 창작촌이 될 것이다. 동대문-신당-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지하상가 전체를 서울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누구나 접근 용이하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예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래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창작공예공방들은 제각기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이곳에 입주하여, 서로의 색깔을 존중하면서도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함께 어울려 서울시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카드 ♣Q : 연희문학창작촌

연희문학창작촌은 가을에 개관할 예정이며, 서대문구 연희동에 터를 잡았다.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시사편찬 위원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지는 연희문학창작촌은 복잡한 도심 속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전원형 문학 창작촌이다. 나무와 산책로가 어우러진 여유로운 공간에 문학가들의 창작활동을 최적으로 보장할 건물들이 세워진다. 1·2·3동은 작가들의 상주형 집필실의 공간이 될 예정이며, 4동은 국제교류와 쉼터의 공간으로 외국인 전용 레지던스 홀과 작가들의 놀이터로 꾸며질 것이다.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 분야로 한정된 창작공간이다. 독창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문학과 인문학의 작품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다. 글 쓰는 예술가들에게는 이보다 아늑한 안식처가 없을 것이다. 서울시 문학의 중심이 될 연희문학창작촌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공간이다.

다섯 번째 카드 ♦J : 문래예술공장

가장 늦은 12월에 개관예정인 문래예술공장은 영등포구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하늘 공작소 입구

6월의 문화+서울

2009년, 서울문화재단이
오픈하는 6개의 창작공간

문래동에 위치한다. 원래 철공소가 있던 이 자리에서는 자생적인 문래예술공단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다. 문래예술공장은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장르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 작가들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후원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장려할 이곳은 정열적인 다이아몬드의 잭 카드를 닮았다. 기사의 작위를 부여받아, 모든 시민들이 예술가가 될 때까지 젊고 여린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문래예술공장은 문래예술공단과 연계해 시각·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 프로그래머들의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영등포 지역 축제들과 연계한 월별 반상회 프로젝트를 기획해 영화제, 퍼포먼스, 다양한 워크숍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카드 Hidden : 남산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는 이번 프로젝트의 히든카드다. 6월 8일 개관하는 남산예술센터는 6개의 창작공간 중 가장 빨리 문을 여는 곳이다. 이곳이 어떠한 폭발력을 가지고 확장될 지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 공연장에서는 창작 현대극의 활성화와 새로운 공연양식 발굴을 목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과 체험적 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술관에서는 창의적인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시민과 예술가를 상대로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남산예술센터 공연장





남산예술센터 내부

창의문화예술교육은 3C 요소를 통한 창의문화예술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감성교육(Cultural Sensitivity),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지성교육(Creative Intelligence), 예술과 문화를 통한 사회공동체 이해, 사회공헌의 순환을 유도하는 인성교육(Contributive Humanity)이 모두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소외계층, 문화매개자 그리고 전문예술교육가를 대상으로 시민 각자의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울 시민들 모두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예술문화일반을 사회 깊숙한 곳부터 세세하게 퍼트릴 문화예술의 산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술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보고 즐기는 대상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술생산의 중심에서 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 머지않아 서울 시민 모두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9년 서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바로 당신의 초상이며,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창작공간 6곳은 마지막 히든카드를 당신의 두 손에 올려놓은 채,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낸 6개 창작공간의 문은 올해 안에 모두 당신을 향해 열린다. 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지 않겠는가? 아름다운 두 손을 가진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젊은 예술가다.

글 | 박수진(오픈리포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 시대 마지막 풍류도락가이자 빛나는 정신의 소유자이고 싶은, 야심 있고 예의바른, 유머와 해학을 즐길 줄 아는, 똑 부러진 달변가에 매력적인 그리고 따뜻한. 이 모든 걸 아우르겠다는 평범한 한 청년의 이름

사진 | 정강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나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6 vol 28

6월의 문화+서울
창작공간추진단장
김윤환 인터뷰



예술가-시민-도시를 위한 하나의 작품, 창작공간

창작공간추진단장 김윤환 인터뷰

2009년 서울시는 창작공간 6곳을 차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 창작공간의 방향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은 김윤희 창작공간추진단장이다. 도심 속 창작공간 조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김윤희 단장에게 이번 창작공간 조성 방향과 의의를 들어보았다.

서울 문래동은 90년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전통적 공업지역의 명성을 잃었다.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빈 공간이 늘었고 지역 공동체도 해체되어 갔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그 곳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창작실, 갤러리, 공연장이 들어서면서 그 곳은 문래 '예술' 공단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래창작촌 조성의 중심에는 바로 김윤희 창작공간추진단장이 있었다. '예술과 도시사회 연구소'에서 도심 속 창작공간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담론을 형성해 온 그의 이번 작품은 서울 아트팩토리 사업(이하 아트팩토리 사업)이다.

그는 이번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국내의 창작공간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을, 시민들에게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도시의 재생에도 기여할 아트팩토리 사업에 대한 기대는 높다. 김 단장은 "아트팩토리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은 감사하지만, 초기 1년간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인 만큼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Q. '예술과 도시사회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할 때도 문래창작촌의 발달에 기여했다. 창작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른 것 같은데, 이번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예술과 도시사회 연구소'에서 각종 토론회나 오픈스튜디오 등을 통해 도심 속 창작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창작공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담론을 형성했다. 나 또한

예술가로서 많은 창작공간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창작공간을 구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2007년부터는 문래창작촌을 발전시키는 역할에 주력했는데, 이번 아트팩토리 사업이 문래창작촌과 같은 콘셉트를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창작공간조성추진단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술가의 입장에서 공간조성과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했다. 올 3월, 창작공간추진단이 발족되어 이 조직의 단장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아트팩토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

Q. 올해 6개의 창작공간이 개관된다. 각기 다른 장소에 조성되고 그곳에 입주하는 예술가들의 장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각 공간의 주안점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예술가들의 활동분야도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양식도 다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예술가들의 전문분야에 맞게 공간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령 이번 6월에 개관하는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의 경우, 홍대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개인 혹은 소그룹 기획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홍대에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곳보다 더욱 지역과 밀착된 공간으로 시민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반면 옛 시사편찬위건물에 조성될 연희문학촌은 도

6월의 문화+서울
창작공간추진단장
김윤환 인터뷰

심의 녹지공간으로 볼릴 만큼 굉장히 한적한 공간이다. 집중이 요구되는 문학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시민개방형 성격보다는 집필활동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물론 시민들의 문학소양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는 계획되어 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청계천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해 실용예술의 벨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예작가를 위한 공방으로 꾸며진다. 이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금천예술공장과 문래예술공장은 국제적인 예술 사이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문래예술공장은 기존에 자생적으로 성장한 문래창작촌을 더욱 활성화시켜 국제적인 창작명소로 거듭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금천예술공장에서 호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국제적 창작공간들과 교류 협약을 체결해 작가교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Q. 국내에 이미 많은 창작공간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국가지원정책도 있다. 국내 창작공간의 한계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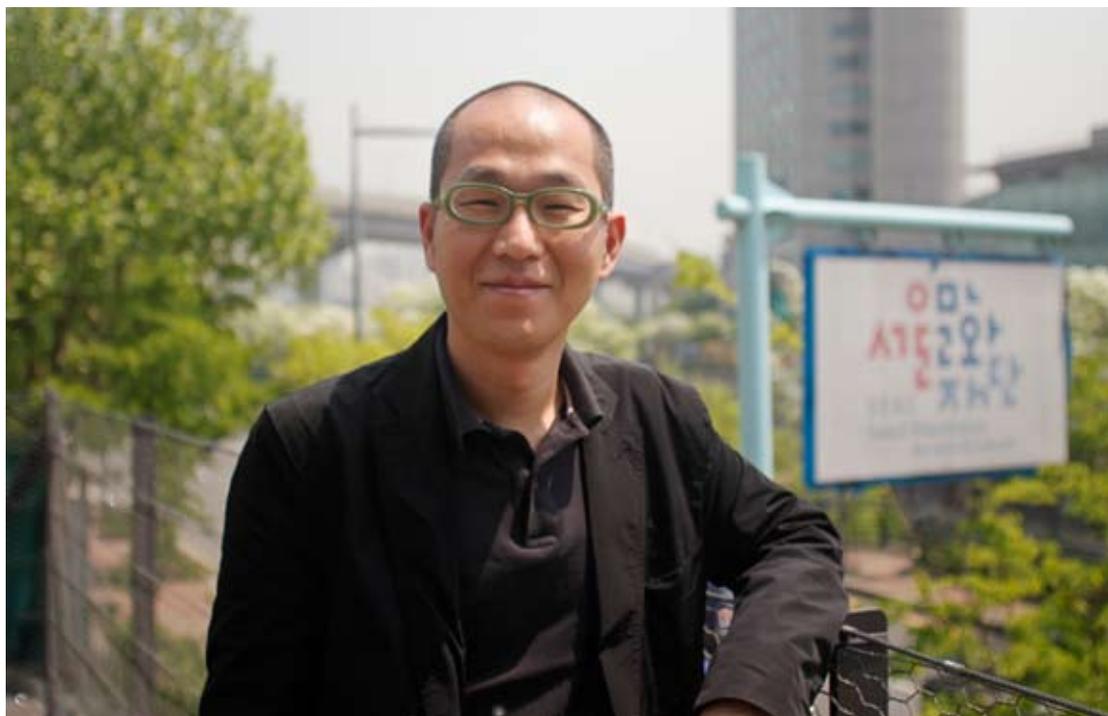
기존 창작공간과 그 지원정책의 보완점은 경제성, 접근성, 장기성 등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개인 창작공간이 있으면 예술가들이 작품에 집중하기에 좋지만, 개인의 힘으로 도시에 공간을 얻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집은 서울인데, 직장(창작공간)은 경

기도, 강원도 등 시외에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로 98년부터 정부가 농·어촌 폐교를 활용해 창작촌을 구성하였는데, 지역밀착형 문화시설로 발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접근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농·어촌에 창작공간이 있다 보니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많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이는 신진작가 발굴과 네트워크 형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1-2년이면 끝나는 단기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끝나면 예술가들은 다시 작업실을 구해야만 한다.

Q. 그렇다면 이번 아트팩토리 사업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 폐교를 활용한 정책의 장점이었던 지역밀착형 공간의 성격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도시에 공간을 조성해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자 많은 작업실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 프로젝트를 고려해 최대 3년까지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작업실을 구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공간이 여러 곳 생겨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우수한 작품 제작 계획에는 공간제공뿐 아니라 작품을 위한 일부비용도 보조된다. 따라서 이번 아트팩토리 사업은 지금까지의 창작공간과 그 지원책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역밀착형 성격을 강조해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간의 성격에 따라 운영방식을 달리할 것이다.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입주 작가들의 영역은 시민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예술이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성격을 강조했고, 연희창작촌은 대중



적인 서비스 공간이라기보다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Q. 지금까지 창작공간 조성이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기여하는 점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무엇인가.

문래창작촌의 경우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쇠퇴한 도시가 예술가들의 활동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고 미관도 개선되었다. 또한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즉,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아트팩토리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주요장소에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 재생의 거점공간으로 거듭나리라 본다. 도시 재생은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서울시의 목표인 컬러노믹스에도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창작공간추진단장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트팩토리 사업은 예술가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와 관

심도 많이 받고 있다. 감사하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꽃을 피워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 해주셨으면 한다. 이번 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초기 1년에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아트팩토리 사업이 예술가와 시민, 더 나아가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터뷰 및 글 | 이가은(오픈리포터)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다. 서강학보사 문화부 기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축제통신원 외에도 서울컬처노믹스 넷포터 등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도전하는 대학생이다. <문화+서울> 오픈리포터로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사진 | 정강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난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홍대 속 미디어아트를 담겠다 - <앨리스온>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입주작가 인터뷰 1



오는 6월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창작공간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이곳에는 공공미술, 음악,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술가들이 등지를 틀 예정이다. <엘리스온>도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입주자 중 하나. <엘리스온>은 미술과 사람, 미술과 기술의 '대화'와 '소통'을 도와줄 미디어아트 웹진이다. 기존의 온라인 웹진을 만드는 활동에서 방송, 워크숍,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엘리스온>을 만나보았다.

미디어아트는 미술과 사람을 기술로 연결하는, 움직이는 예술이다. 결국 대화와 소통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스온>은 이러한 '대화'와 '소통'을 도와주기 위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웹진이다. 그들이 홍대의 미디어아트를 담기 위해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에 등지를 틀었다. 유원준 편집장은 "이 곳의 다양한 공간들, 다양한 입주 작가들 모두 우리가 미디어아트의 범주로 탐구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 미술 웹진에 잘 등장하지 않는 홍대의 미디어아트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미디어아트는 다양한 것들이 접목된 경계 위에 존재한다

미디어아트는 현재진행형의 움직이는 미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틸 컷이나 부가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예술 안에 갇힌 장르가 아니라 문화현상, 기술 등 다양한 것들이 접목된 경계 위에 있는 만큼 이를 사람들과 소통하게 만들고 알리는 다리가 필요했다. 바로 <엘리스온>을 만드는 10명의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온라인웹진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를 소개하던 <엘리스온>은 최근 TV 영상과 Paper 작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Paper 작업의 경우, 미디어아트 계 주요소식을 담은 작은 달력에서 벗어나 올 하반기부터는 커버스토리 등을 실어



Let it Snow, Let It Media Art 전시의 오프닝 행사

잡지 형태로 출간한다. 기존에는 KT 와이브로의 협조를 받아 스튜디오를 사용했는데, TV영역을 확대시키려다보니 그들만의 작업공간이 필요했다. 유 편집장은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는 주로 엘리스 TV를 위한 스튜디오와 회의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홍대 클럽 문화 등 다양한 문화현상 속에 녹아든 미디어아트를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엘리스온>의 입주 결심을 굳히게 했다. 또한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에는 전시장, 야외공간, 강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고, 입주작가들 또한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성격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소통'과 '교류'를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아트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곳 만큼 안성맞춤의 공간이 있을까.

6월의 문화+서울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입주작가 <앨리스온>
인터뷰

아카이브 사업+미디어 아트 클래스

= 지역밀착형 미디어아트

<앨리스온>은 온라인웹진, TV 그리고 Paper 작업뿐 아니라 아카이브(Archive) 구축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 편집장은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아카이브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아트 관련 서적, 영상, 인터뷰 자료, 전시 등 <앨리스온>이 그동안 축적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적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 목록을 만들고 도서관 형태로 10월부터 주민들에게 서적을 대여해준다. 미디어아트를 널리 알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남다르다.

또한 <앨리스온>은 웹진을 만들면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아트 클래스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Factory 36.5'와 연계해 미디어아트 기술을 가르쳐주는 워크숍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앨리스온> 자체적으로 혹은 기술미학연구회와 연계해 홍대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아트 클래스를 구상하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미디어아트 클래스를 통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들은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가 홍대 지역에 융화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미 에너지는 가득하다. 쏟을 일만 남았다

<앨리스온>의 '욕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디어아트 웹진의 본분에 충실할 뿐 아니라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그들의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유 편집장은 “이 공간의 이름이 서교예술 '동사무소'인만큼 주민들이 이 공간을 친숙하게 느껴야 한다. 진정한 예술 '동사무소'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정부에서 순수한 목적을 가진 예술단체를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앨리스온>도 그러한 예술단체를 웹진과 영상으로 소개해줌으로써 그들의 열정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아트 관련 석학들과의 인터뷰

<앨리스온>은 단순히 미디어아트만을 고민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들이 거주하게 될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가진 예술인의 성장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미 그들의 에너지는 충만한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앨리스온 공간에 그 에너지를 쏟는 일이다.

인터뷰 및 글 | 이가은(오픈리포터)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다. 서강학보사 문화부 기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축제통신원 외에도 서울컬처노믹스 넷포터 등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도전하는 대학생이다. <문화+서울> 오픈리포터로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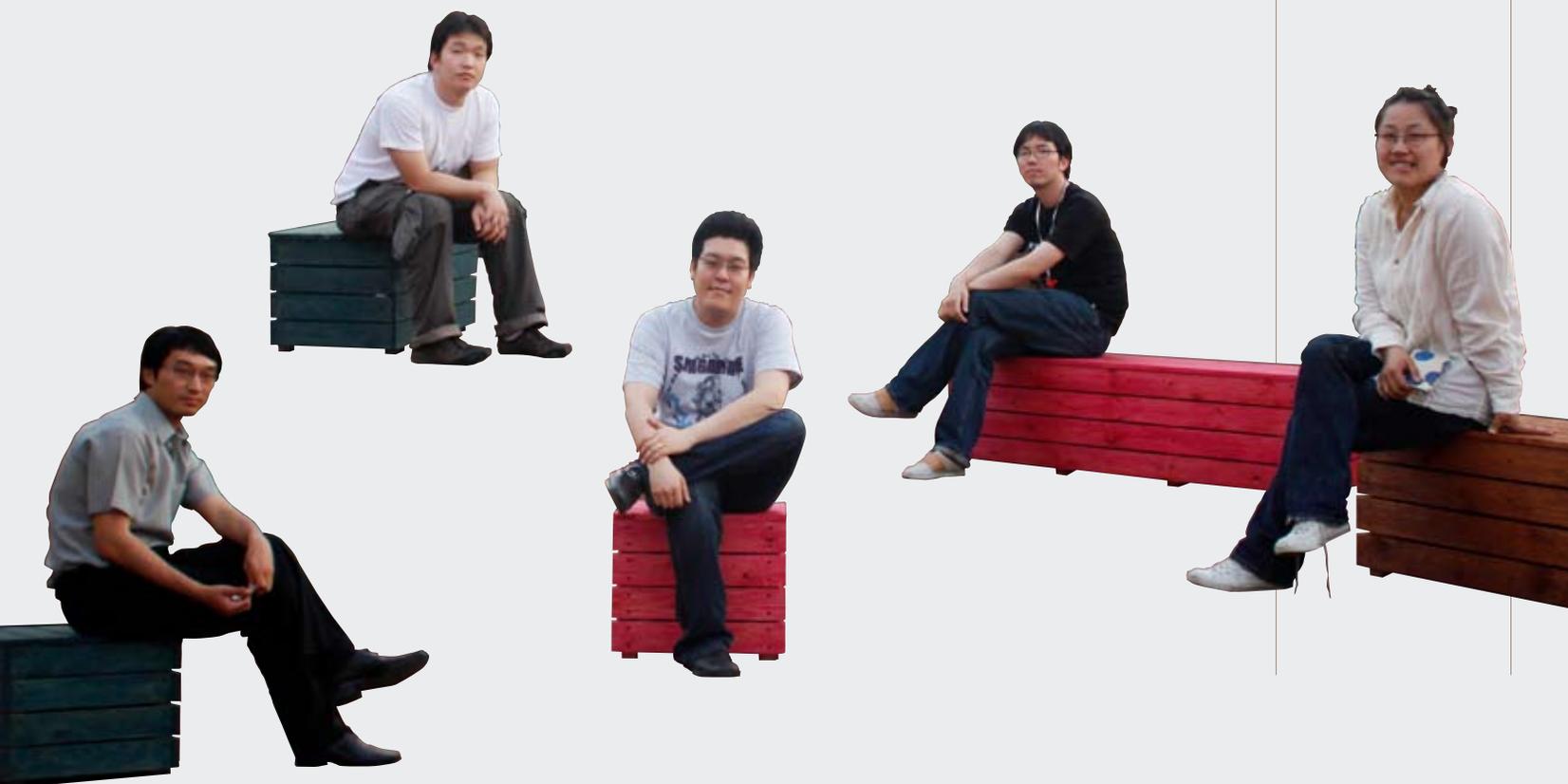
사진 | 정강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난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젊은 연출가, 젊은 공간 그리고 젊은 열정 - 〈디렉팅 스튜디오〉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입주작가 인터뷰 2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디렉팅 스튜디오〉
〈디렉팅 스튜디오〉는 연극·영화 연출인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다. 벽지를 살 돈이
없어 문학잡지로 벽을 도배하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 회의 장소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첫 보금자리의 의미는 남다르다. 젊음과 유쾌함,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꼭 실행해보겠다는 열정.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 곳,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에 쏟아부어볼 작정이다.



6월의 문화+서울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입주작가
<디렉팅 스튜디오>
인터뷰

그들의 젊은 나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첫 보금자리를 얻은 덕분이었을까. 연극·영화 연출 집단 <디렉팅 스튜디오>와의 인터뷰는 '젊음'과 '유쾌함' 그 자체였다. 노란 장판과 좌식 의자, 작은 책상 몇 개, 문학잡지로 도배된 벽 그리고 이불과 베개까지. 회의하고 글을 쓰고 밥을 먹고 잠까지 자는 공간. 창작공간 이라기보다는 자취방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중국집에서 간판을 먹으며 회의를 했고, 사실 문학잡지로 벽을 도배한 것은 벽지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유용석 대표. 모든 공간이 공연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첫 공간을 얻은 '즐거움'과 '젊은 열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연극과 영화의 젊은 연출인들이 만났다

유용석 대표를 비롯해 전기송, 홍상우, 윤혜진, 김석운, 홍효은 등 6명의 연극·영화 연출가들이 모인 <디렉팅 스튜디오>는 올 3월 구성된 신생 연출가집단이다. <혜화동 1번지>가 국내 유일의 연출가 동인인데, <디렉팅 스튜디오>는 형태면에서는 <혜화동 1번지>와 유사하지만 연극과 영화를 접목시켰다는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출인들의 집단을 만들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연출, 배우, 스탭

등으로 구성된 일반 극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장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바뀌었다. 유 대표는 "이미 주류가 된 충무로나 대학로는 젊은 연출가들이 진입하기엔 한계점이 있어 다른 공간을 찾기로 했다. 그런데 이왕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할 거면 집단의 콘셉트도 좀 더 새롭게 가보자는 생각에서 연극과 영화를 접목시켰다.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가깝지 않은 장르가 연극과 영화다."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우선 구성원 개인의 창작 역량을 극대화시켜 공연을 자체기획하고, 그들이 만든 작품으로 극단, 교육단체 등 다양한 곳과 연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구성원 중 유용석 대표와 전기송 연출가는 극단 <드림플레이>의 단원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공간은 <디렉팅 스튜디오>의 공간인 동시에 <드림플레이>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디렉팅 스튜디오>의 연출력과 <드림플레이>의 인물들이 모여 공동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마 시간문제일 것이다.

비(非)홍대인들, 홍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다

사실 6명의 구성원은 모두 홍대 사람이 아니다. 비(非)홍대인들이 바라보는 홍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뚜렷한 정체성은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는 그들에게 홍대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공간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디렉팅 스튜디오>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 중 하나는, 비(非)홍대인이 바라보는 홍대를 담은 '홍대 찌라시'(한 두 장짜리 얇은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꼭 '찌라시'라고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발행이다. 홍대지역의 예술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담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입주 작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 '찌라시'는 6월에 준비하여 7월부터 홍대 곳곳에 무차별 살포될 예정이다.

"김윤환 창작공간추진단장님께서 '이 곳을 적극적인 개척의 공간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 환경 탓도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두 해보고 싶다. 이곳의 모든 공간이 우리에게서 공연장이다." 이처



럼 <디렉팅 스튜디오>에게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는 그들의 창작부터 공연까지 모든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후회 없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구성된 지 세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생단체. 그러나 한쪽 벽에는 개관 프로그램, 홍대 찌라시 발행, 각 구성원들의 작품 상영, 디렉팅 스튜디오 페스티벌 등 올해 계획이 빼곡히 적혀있다. 유 대표는 “후회 없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너희들이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싶구나, 홍대와 많이 친해지고 싶구나’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6월 서교예술동사무소(가칭)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3명의 구성원들이 만든 독립영화와 연극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유 대표는 “20대 후반의 젊은 연출가들이 만든 영화이니만큼 3편의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주제에 맞게 연극 퍼포먼스를 준비해 연극과 영화를 자연스럽게 엮을 예정이다. 아마 공통된 주제는 ‘소통’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개관 프로그램부터 <디렉팅 스튜디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연계해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영화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성원들의 작품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8월에는 홍상우 연출가의 영화, 9월에는 윤혜진 연출가의 공연, 10월에는 홍효은 연출가의 다큐멘터리와 홍상우

연출가의 영화가 상영된다. 그리고 12월에는 입주 기간 동안 그들이 이룬 성과들을 보여주는 이른바 ‘디렉팅 스튜디오 페스티벌’이 마련될 계획이다.

외로운 연출가들이여, 언제든지 환영이다

“젊은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예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묻자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공간’이라고 답했다. 대학로나 충무로에서 느끼는 한계는 바로 상영공간이나 극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력이나 실적이 없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공간은 절박한 문제다.

유 대표는 “홍대에 연출가 집단 <디렉팅 스튜디오>가 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외로운 연출가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방문해 달라. 뜻있는 젊은 기획자들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인터뷰 및 글 | 이기은(오픈리포터)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다. 서강학보사 문화부 기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축제통신원 외에도 서울컬처노믹스 넷포터 등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도전하는 대학생이다. <문화+서울> 오픈리포터로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사진 | 정강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난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6월의 문화+서울
해외 창작공간의 사례로 본
서울 창작공간의 방향

해외 창작공간의 사례로 본 서울 창작공간의 방향

블로냐, 상하이 등 외국 창작공간 사례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옛 공장, 건축물들은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뀌었다. 오는 6월 서울에서 차례로 문을 여는 창작공간 6곳의 미래는 곧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세계 문화도시의 창작공간이 걸어온 길과 방향성을 살펴본다.

창조성은 분위기이고 문화다.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억누르는 분위기에서 창조성은 숨을 거둔다. 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창의적 공간과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도시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근대 유산, 산업 유산,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창작과 향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창조적 문화예술의 거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일까? 20세기는 석탄·석유시대, 즉 탄소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일상성과 관계성이 중요해지고 지속가능한 삶의 구조를 갖는 저탄소시대다. 위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바로 세계적인 도시들은 이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문화와 예술이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옛 도시인 볼로냐 시에서는 “볼로냐2000 창조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 200개, 박물관 43개, 시립영상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다. 볼로냐시는 이전의 주식거래소 자리를 900석의 첨단도서관이자 문화공간(Sala Borsa)으로 바꾸고 담배공장을 시립영상문화센터로 바꿔나갔다. 운영 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테스토니 어린이 극장의 경우에는 시 정부가 건립하고 무상으로 예술가협동조합에 임대를 맡긴 후, 운영비 60%는 지방비 보조로 하고, 40%는 예술가들이 콘텐츠 비용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인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경영함으로써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입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연기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합의 운영 및 이익 분배는 조합 방식으로 한다. 그렇기에 순이익은 시설과 조합원에 재투자한다. 이러한 볼로냐의 창조도시 프로젝트나 미국 포틀랜드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센터 창작공간 형성 전략은 분산형, 거점형, 지역기반형 창작공간 특성을 갖는 서울시 창작공간의 전략과 맥이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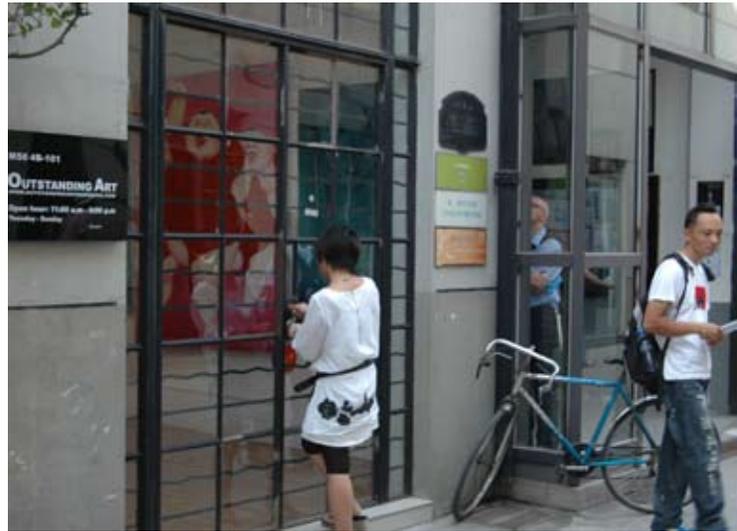
볼로냐의 창조도시 프로젝트 뒤에 기획자이자 설계자로 로베르토 그란디라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영국의 뉴캐슬&게이즈헤드에는 피터 스타크가 있다. 그는 현재 부족하지만 창조적 공간을 통해서 문화 프

6월의 문화+서울

해외 창작공간의 사례로 본
서울 창작공간의 방향

로젝트와 예술가들이 풍성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이 아니라 주민의 협조를 도모했고, 창조적인 사람을 유입하기 시작했다. 영국 게이츠헤드의 볼틱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의 슬로건은 'Art Factory', 즉 '예술 공장'으로 소장품 없는 생산 공간으로서의 전시공간이다. 레지던시에 온 작가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한다. 또한 센터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제작을 지원하고, 커다란 공간을 활용해 대규모 전시를 열수 있게 했다. 당연히 지역의 젊은 작가들은 풍부한 문화예술의 유입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도시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앤소니 고펠리의 <북방의 천사>가 지역에서 불러일으킨 논쟁과 예술적·경제적 파급효과의 뒤에는 이러한 풍요로운 창작공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중국에서 파산쓰 798보다 에너지가 서서히 넘쳐 오르는 곳은 상하이의 M50이다. M은 모직을 뜻하고, 5은 5개의 문패를 상징하고, 0은 전통예술을 상징한다. 중국 상하이의 모간산에서는 정부



중국 상하이 모간산 M50 오픈공간

지원 없이 상하이 시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는 민간 조합이 문화지구를 조성 중이다. 중국이 해외 열강들에게 압박을 받던 시절, 상하이에는 프랑스 조계지와 영국 점령지 등이 만들어졌다. 영국 점령지 시절 이 곳에는 100여개의 상가가 밀집해있었다. 1930년대에는 방직공장으로서 면을 생산했고, 1960년대에는 모직 생산 공장 역할을 했다. 1996년대 말부터 방직공장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비어있는 공장과 기숙사 건물에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영국 건물 100여개를 문화지구로 만들어 달라 요구했고, 상하이 시는 요구를 받아들여 1999년 단일한 공예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단일 재배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예술에 기반한 종합적인 문화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2008년 현재 창작발전에 기여하는 80여개의 아틀리에, 갤러리, 30여개의 서점, 카페, 클럽을 조성했고, 30여개의 공예, 디자인 관련 예술가들이 들어와 있다. 시는 단단한 제도적 틀을 만들고,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둠지를 틀고 영역을 넓히게 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탈리아 볼로냐와 중국 상하이, 영국의 뉴캐슬&게이츠헤드 사례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

영국 뉴캐슬&게이츠헤드
Baltic Center



는 모델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 분명한 건, 서울시 창작공간은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유희공간을 작가들의 작업실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명성이 있는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주는 등 틀에 박힌 운영방식을 고수하면 국제적인 스튜디오가 될 수 없다. 그 한계를 직시하고 탄생 배경을 분석하며, 우리가 창작공간을 왜 생각하는지 되짚어 보면서 미래를 재구상해야 한다.

서울시 창작공간은 더이상 오픈스튜디오나 전시와 같이 일방적인 산업적 방식을 재현한 플랜A 시대의 창작스튜디오가 아니다. 작업장은 토론장이 된다. 다른 분야의 작업에 대해 듣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구상해보기도 하고, 지역의 주민을 참여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된 근대적 이분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즉, 예술이 세계의 다른 것들과 관계하고, 융합하면서 예술가, 인문학자, 비평가, 기획자가 결합해 주제에 대해서 토론, 조사, 상상하면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제안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 작가의 작품은 사회 속에서 공기처럼 존재할 수 있는 작품(work)이자 생산물(product)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공공공간과 삶의 일상 속에서 작가의 작업과 작품이 놓이게 될 수 있다.

중국M50



이탈리아 볼로냐의 사례는 유럽문화도시의 전략이 10~20여 년 전부터 유행했던 창작스튜디오로 퇴행하지 않고, 창작과 향유를 분리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창작공간은 시민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젝트, 삶과 연관된 프로덕션,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작품이 구상되는 장소이자 출구가 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이 문화 개발의 장소가 되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창작공간(예술공장, Art Factory)의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 공간 구성, 행정, 프로그램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매개자(운영자, 큐레이터,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협업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킨다. 가드닝 페스티벌 등의 정책기획을 통해 지역 예술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뉴캐슬&게이츠헤드의 전략은 서울시 창작공간 운영 전략의 좋은 공부거리다. 창작공간의 성공 여부는 이상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가와 자유롭고 융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도시의 재생 및 발전의 장소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볼로냐와 뉴캐슬&게이츠헤드의 사례는 금천예술공장에 참고가 될 만하다. 또한 중국의 M50이나 프랑스의 문화도시프로젝트로 마르세유에 있는 담배제조창, 주변지역을 바꾼 '라 프리쉬 라벨 드메'는 문래예술공장 및 신당창작아케이드 등 여러 창작공간의 미래일 수 있다.

여러 성공적인 해외사례를 보고, 현재 조성되는 창작공간이 활성화 되는 5년 후, 더 나아가 10년 후의 흐름을 예측해보자. 서울시의 창작공간은 플랜B 시대 예술의 성장 공간이자 삶의 방식이 자라는 장소가 될 것이다. 창작공간과 다양한 문화 공간이 예술가·건축가·디자이너·공예가·생활창작가의 에너지로 넘칠 때, 작가의 작업과 작품이 삶 속에서 공기처럼 존재할 수 있는 작품(Work)이자 생산물(Product)이 될 때, 창조적 도시, 예술적 도시, 인간적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광준

서울시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공장장(총괄 매니저)으로 있고, 서울외우책축제 이사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의 시장과 문화 컨설턴트로 있다. 서울시 도시갤러리에서 2년 동안 덕수궁 아트벤치, 정동길, 돈의문, 예술과 기술, 예술과 시장, 대학 및 지역공동체, 크나무프로젝트의 책임큐레이터를 맡았다.

특집리뷰
분홍색꽃 물결과 함께한
따뜻한 봄날의 추억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분홍색꽃 물결과 함께한 따뜻한 봄날의 추억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싱그러운 5월. 따뜻했던 봄 햇살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잎들은 푸르게 빛났다.
어드렛 여름이 성큼 다가온 오늘, 당신과 함께한 5월의 봄을 기억하며 성황리에
끝난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의 추억을 풀어본다.

한 손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일정이 적혀있는 꽃분홍색 일정표를 들고, 한 손에는 사진기를 들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낮에 서울 광장에서 받은 돼지 얼굴 모양의 탈을 쓰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행사 부스에서 나눠준 물로 더위를 식히며 꽃분홍길을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 싶더니, 꽃분홍길이 시작됐다. 클론의 '랄랄라' 노래가 울려 퍼지며 흥을 더한다. 멀리서 비라보고만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도 행렬 안으로 들어가 함께 어깨춤을 추며 사진을 찍었다. 상모를 돌리는 농악대가 지나가니 외국인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의실스런 표정의 전통 탈을 쓰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외국인과 어울려 탈춤을 춘다. 이어 지나가는 코스프레 분장을 한 학생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니 이곳이 평소 자동차로 가득하던 태평로가 맞는가 싶다.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꽃분홍차가 모습을 드러내니 외국인, 아이 할 것 없이 꽃분홍색 풍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나눔, 희망을 찾다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분홍 물결로 수놓인 청계천엔 구성진 아코디언 연주에 따라 '고향의 봄' 노래가 울려 퍼졌다. 서울의 기억을 담고 흘러가는 청계천에 시민들은 '희망, 사랑 나눔'을 테마로 모여 들었다. 청계광장 '사랑의 동전밭'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둘 짝지어 만든 종이학과 시민들이 던져준 작은 동전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모였다. 모전교에서 광통교를 잇는 청계천을 따라 드리워진 꽃분홍 장막위엔 '장애를★이겨내게 해주세요. 20년 만에 서울 첫 나들이, 다음엔 여자 친구와 함께~'와 같이 재미있고 간절한 소망들이 배지 위에 담겨져 있다. 여울지는 소망만큼이나 점점 뜨거워진 한 낮의 기온 탓에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개천가에 앉아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근다. 이리저리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 한 켠에는 천천히 노란 종이배가 사람들의 희망을 안고 두둥실 떠간다.

서울대학교 경동대학교





이곳저곳에선 서울의 옛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들로 웃음이 넘쳐난다. 1946년 광복이후의 모습부터 2009년의 김연아 그림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에 모두들 즐거운 눈치다. '나의 옛 동네'를 주제로 전시된 미용실, 사진관, 작은 학교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볐다. 한 아이가 사랑의 매를 들고 "이건 사랑의 매니까 한 대~"하면서 동생에게 장난을 친다. 어른들도 어린 시절 먹어본 불량식품들을 보며 그 때의 추억을 그리워해본다. 6,70년대 미용실을 그대로 재현한 빨간 의자 옆에는 그 당시 미용도구들도 갖춰져 재미를 더했다. 걸어가는 길마다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깜짝 공연들이 연이어 펼쳐졌고 거리공연자들의 끼가 청계천에 흘러 넘쳤다. 축제 마지막 날엔 '천원으로 사랑을 나눠요'를 테마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벼룩시장이 열려 사랑 나눔에 동참하기도 했다. 조그만 꽃핀을 사고 좋아하는 아이, 가지고 싶었던 책을 헐값에 사고 덤으로 한 권 더 얻어가는 학생.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꽃분홍 나눔 장터'에서 그들은 미래의 희망까지 나눠가졌다.

궁궐, 살아숨쉬는 역사를 배우다

오월의 궁이 열렸다. 이제 더이상 궁에 사는 사람은 없지만, 축제기간동안 만큼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고층빌딩의 숲 사이에 간헐 관광객들의 발길만 오고가는 유적지 고궁은 사라지고, 백성들의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서울의 궁이 가슴을 열어 시민들을 왕으로 맞았다.

창경궁 환경전 앞마당에는 궁중무용이 한창이다. 드라마 대장금에 나왔던 옷을 차려입은 의녀에게 진맥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받아 들었다. 기다리는 동안 창경궁 안을 둘러보다 전화를 받았다. “순서가 되셨으니, 진맥 받으러 오세요.” 핸드폰이 아니었으면 지금이 조선시대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아주 정성스럽게 진맥을 봐주시며 평소 내 몸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자 자세히 답해주시는 어의 덕분에, 잠시나마 왕이 된 기분이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정말 왕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행사를 위해 왕실 식구들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인줄 알았는데, 구경 온 일반 시민의 체험행사란다. 궁중 의상을 입고 신하들의 보필을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다니, 정말 왕이 된 느낌이 들 것 같아 내심 부럽다. 뒤이어 왕의 용변(매화)을 담당해 변내관으로 불리는 내관의 맛갈 나는 중궁전 이야기를 듣고, 혜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집필하는 공연을 봤다. 재미를 가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중궁전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역사공부가 절로 된다. 화원이 옛 그림 도구로 그려준 나의 초상화 한 점을 가지고 투호놀이 하고 나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덕수궁에서도 대한제국시대로 타임머신이 가능한 느낌이다. 그 시절의 제복과 양장을 입은 사람들이 덕수궁 환복관을 걸어 다니고 주변에는 온통 근대 신문물이 전시돼 있다. <대한제국 모단음악회>에서 흘러나오는 재즈음악만이 이곳이 21세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살아있는 왕실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 할 수 있다니, 다시금 근대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짐차 뜨거워지는 햇살 탓에 주최측에서 나눠준 모자를 쓰고 만국기가 걸려있는 덕수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근대의 새로운 문물을 처음 만나보았던 조상만큼이나 신기한 얼굴로 그 당시의 서양문물을 눈여겨보고 있다.

흘러나오는 음악 선율을 따라 중화전으로 찾아가니 모단(Modern) 음악회가 한창이다. 올드 팝송과 영화음악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포졸 옷을 입고 재즈연주를 하는 연주자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 동서양 세대 간의 장





벽까지 뛰어넘은 듯하다. 음악의 경계선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모니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의 야외 카페와 같이 생긴 조선 최초의 커피숍 <정관헌>에는 커피타임이 한창이다. 당시 고종이 커피마시는 모습이 재연되어 시민들도 왕과 함께 국내 최고의 바리스타들이 만든 커피를 마실 기회를 가졌다.

가면, 축제의 주인공을 만든다

시청광장에는 점점 더워지는 봄 별 아래, 더위를 식혀주는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다. 그곳을 장난스럽게 뛰어가는 아이들과 분수를 배경으로 서로 껴안고 있는 연인들. 마치 외국의 공원을 보는 듯했다. 입술을 짝어 내적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는 분홍부스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종이에 입술모양을 찍어 벽 한가득 전시했다. 색다른 꽃분홍 향연을 즐기며 핑크빛 솜사탕과 분홍색 팽튀기를 손에 든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잔디밭에 앉아 다들 열심히 손으로 무언가를 주물럭거리고 있다. 무엇일까 궁금해 다가가니, 탈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도 얼른 줄을 서서, 클레이 (Clay) 라는 칼라믹스 찰흙 물을 받아 그 곳에 앉았다. 동행한 초등학생 사촌동생은 빨이 두 개나 더 난 도깨비 모양 탈을, 나는 심술 맞은 얼굴표정의 탈을 만들어 쓰고 축제에 참가했다. 가면을 쓴 채로 서울을 상징하는 캐릭터 '해치' 인형과 사진을 찍고 덤으로 전자파 차단 스티커 선물도 받았다. 뒤이어 시작된 팔색 무도회에서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랑패 친구들이 풍선을 나눠주며 흥을 돋웠다. 우리는 탈을 쓴 채로 신나게 봄바람 댄스를 배웠다. 단순하면서도 신나는 동작은 쉽게 배워 함께 따라 하기 좋았다.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일탈'의 짜릿함이 가면하나로 음악과 함께 우리를 축제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미음속, 사라지지 않을 봄밤의 추억

5월의 봄밤은 깊어져 갔다. 서울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조명과 선선한 밤 기운 덕에 서울광장의 사람들은 분위기와 노래에 취해간다. 봄바람 난 서울은 도심 한복판에서 댄스파티 중이다. 분홍의 물결이 일렁였던 축제는 어느덧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다. 5월 첫째 주 동안 나누었던 웃음으로 우리는 따뜻한 봄날의 기억을 나눠 가졌다.

취재 및 글 | 심다혜 · 김나현(오픈리포터)

심다혜

연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하면서 글쟁이가 되겠다 다짐했으나 어릴 적부터 봐오던 중국영화를 포기하지 못해 요즘은 중어중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역 이름 외우기가 취미인 서울에 사는 4학년 여대생. 현재 <문화+서울> 오픈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김나현

고려대 언론학과를 다니며 <문화+서울>오픈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가 들어가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 경험하며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대학생. 현재는 멋진 로미오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줄리엣 역을 자처하고 있다.

사진 | IR STUDIO

다시 보는 서울
이경만의 경성 신화



옛 경성의 거리 풍경에서 단연 빠질 수 없는 것이 인력거다. 인력거는 187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경성 대중교통의 선두주자였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흥망성쇠를 반복해왔다. 인력거의 역사를 쫓다보면, 경성의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인력거를 타고 경성 거리를 달려본다.

인력거의 흥망성쇠를 통해 바라본 경성

구보씨,

인력거 타고 가다

대경성의 산책자 인력거꾼

1912년 시행된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가로구조가 정비되고 근대 건축물과 대중교통이 늘어나면서 1930년대 경성의 도시경관은 급속히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해체와 식민지 도시공간으로의 재편을 의미했지만, 그곳에 몰려든 군중에겐 도시적 감수성을 체화하고 도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장이 되었다. 경성이 근대적 도시의 외양을 갖춰 나가자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도시 경험을 하는 군중들이 늘어났으며 따라서 산책은 자연스러운 도시인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1934년 발표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도 산책자의 하루 일상을 통해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박태원의 도시소설이 발표된 1934년은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반포되어 본격적인 도시계획이 실시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

지계획령은 단순한 가로의 확장과 신설, 블록의 정비에 불과했던 시구개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근대화된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이었다. 경정부에서는 이 계획령을 근거로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을 입안하였고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일본의 메트로폴리스 도교를 모델로 한 '대경성'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전반적인 도시 개조가 이루어지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층과 실업자가 증가하고 범죄율이 급증하는 등 도시문제도 동시에 늘어났다.

당시 한 신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잉태한 식민지 수도 경성의 이미지를 카메라로 포착하고 도시적 감수성으로 그려낸 연재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카메라 산보'라는 제목 아래 이 연재기사는 익명의 작가(기자)와 사진가가 마치 박태원의 구보 씨처럼 경성의 만

다시 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보객이 되어 도시에서 만나는 여러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회의 얼굴인 '콘크리트 건물'에서부터 인력거꾼과 버스 곁(여차장), 전차 및 전화, 외식문화, 플랫폼과 야시(夜市)에 이르기까지 총 8개의 주제에 대한 단상을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도회의 건물은 '박테리아의 소굴'로, 도회의 밤은 '죄의 씨를 뿌리고 죄의 꽃을 피우는 때'라고 진단한 기자의 시각에서 비평적 산책자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데, 그에게 경성은 병리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본 호에서는 '카메라 산보'에서 다룬 주제들 중 두 번째로 언급한 인력거꾼을 통해 당시 도시인의 일상적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의 의화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당나귀, 교자가 어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전차에 게렌스키 내각 같은 인력거는 기생, 술주정꾼, 병자, 돈 있는 불구자나 타게 되었고 인력거 병문(屏門)은 택시 본영(本營)이 되었다. 서대문에서 동대문, 청량리에서 한강까지 30전만 준대도 '처분대로 합쇼'가 인력거꾼의 목구멍을 밀치고 나오는 비명이다. 그러나 기생 아씨를 태운 때에는 어찌 그리 신이 나서 줄달음질을 치는지 모르겠다.(후략)

근대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력거는 한 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인력거는 '기생, 술주정꾼, 병자, 돈 있는 불구자'나 이용하는 근대 도시의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작가는 인력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의 덧없음을 게렌스키의 임시정부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 게렌스키 임시정부는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의 성공으로 구성됐으나 10월 혁명으로 그 짧은 역사를 마감했다. 당시 경성부에서 운영했던 부영버스의 운임이 1구간에 7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전의 인력거 값은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력거꾼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졌고, 실직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 인력거꾼들의 생활상은 당시 도시시설의 빈번한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인력거의 등장과 사회상

일본에서 발명된 인력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개항 직후인 1870년대 말의 일이었으며, 영업이 허가되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부터라고 한다. 손수레와 우마차 그리고 교자나 가마가 주된 운송 수단이었던 시절에 일본의 인력거는 '스피드'를 무기로 조선사회에 재빠르게 자리 잡았고, 돈만 내면 누구나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반상(班常)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 1904년 경무사 신태휴는 훈칙을 내려 부녀자의 인력거 승차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다만 기생은 특히 승차하되 우산을 소지하여 신분을 밝힌 후에 허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대신들의 딸과 며느리들이 있어 그 훈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인력거에 관련된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다. 1906년에는 인력거의 수요가 늘어나자 '인력거영업관리개칙(人力車營業管理概則)'이라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규칙을 마련하여 허가절차와 복장 및 운행 규칙 등을 정하였다. 1908년 8월 15일에는 경시청령 제 3호로 '인력거영업단속규칙'을 반포하였는데, 총 28조의 전문에는 인력거 영업에 대한 정의로부터 허가절차와 자격조건, 차체 검사와 통행 및 주차 규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8월 19일에는 인력거 값을 둘러싼 다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인력거정가규정'을 두어 시행케 했다. 또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여 인력거꾼들에게 일제히 단발토록 했다. 일부에선 영업을 폐할지



기생을 태운 인력거꾼, 1934

언정 부모에게서 받은 두발을 깎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단속이 심해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한 달도 안 돼 모두 단발할 수밖에 없었다. 1921년에는 인력거꾼의 복장도 통일하도록 했다. 일본인 인력거꾼이 입는 것과 동일하게 ‘합비’(짧은 두루마기 같은 윗도리)에 홀태마지를 입게 하고 모자는 학생모자와 같은 검정 모자를 쓰게 했으며 발에는 일본 짚신이나 고무 다비(일본식 버선)를 신게 했다.

인력거는 크게 자가용과 영업용 두 가지가 있으며, 인력거꾼(人力車軍)은 인력거부(人力車夫)나 인력거 차부(車夫)라고도 불렀다. 인력거 영업을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으며, 경성에는 경성조(京城組), 강본조(岡本組), 한일조(韓一組) 등과 같은 조합들이 있었다. 자가용 인력거를 끌거나 요릿집 및 권번에 전속되면 매월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인력거꾼들은 가입된 조합에 따라 인력거 승강장인 병문(屏門)에 대기하면서 순번대로 손님을 태웠으며 받은 요금은 인력거 업자와 나뉘야 했다. 택시회사 기사처럼 하루에 손님을 얼마나 많이 태우느냐에 따라 그날의 벌이가 달라졌다. 이러한 사전 분배를 놓고 인력거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22년 경찰당국의 인력거 샅인하방침에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다.

1922년 11월 20일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모든 물가를 4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제일 먼저 목욕료와 이발료와 함께 인력거 샅을 내리게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경성 시내의 인력거꾼들은 본정 낭화좌(浪花座)에 모여 샅전 인하를 성토했던 동시에 이를 기회로 영업주와 차부 사이의 분배 문제와 조선인 차부와 일본인 차부의 차별 문제까지 불평을 터트렸다. 일본인 영업주는 일본인 차부와 3:7로 분배하는 반면 조선인 차부와는 4:6으로 분배하여 조선인을 차별했으며, 조선인 영업주의 경우는 아예 5:5로 반씩 나누었던 것이다. 동월 22일 인력거꾼 대부분이 영업주와 차부 간의 분배율을 2:8로 올려 달라 요구하면서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경성시내 일대가 교통 두절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때 까지만 해도 인력거가 대중교통에서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에 참여한 차부 300여명은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인력거부조합(人力車夫組合)’을 설립하였으며, 영업자 측과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의 모든 이익관계와 일본의 인력거조합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분배문제를 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영업자의 횡포와 멸시가 더욱 심해지자 12월 7일 경운동에 있는 천도교회당에 모여 임시총회를 열고 동맹파업을 재차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자 종로경찰서에서 집회신청 없이 모였다하여 해산명령을 내렸고 부조합장 두 명을 본정서로 인치하는 등 인력거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제압하였다. 경찰 당국에서는 조선인 영업자의 조합과 일본인 영업자의 조합을 병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노동자측인 인력거부조합이 배제된 채 사용자측만 참가한 일방적인 대책이 불과했다. 당장의 생계 문제로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나 이때의 경험은 인력거꾼들 스스로 사회적 자각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향후 교육 문제에 눈을 뜨게 했다.

1925년 인력거꾼들은 못 배운 설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대동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우리의 자손은 우리가



1930년 경 태평통(태평로) 일대의 모습. 전차와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등을 볼 수 있다.

르치자'며 경성 시내 각 요리점 소속 인력거부조합원 70여명이 의무계(義務契)를 조직하고 매일 50전씩 걷은 회비로 수송동 한 모퉁이에 셋집을 얻어 5월 1일 동 학원을 열었다. 원장인 엄정환을 비롯하여 4명의 교사가 무보수로 예비반 두 학급과 1, 2학년 한 학급씩 모두 네 학급 60여명의 학생들에게 보통학교 과정의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50전의 적은 회비로는 더 이상의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인력거부조합들도 참여해 '유지회'를 조직하였고 대동학원을 계속 후원하였다. 이 유지회에 참여한 인력거꾼의 수가 3천명에 달할 정도로 그들의 교육열은 누구 못지않았다.

1927년 봄,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봉익동 일본인의 집을 빌려 교사를 옮겼으나 40여원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학교 문은 봉쇄되고 학생과 교사는 거리로 내쫓기게 되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인력거의 신세를 많이 진 경성 시내의 다섯 권번 소속 기생 700여명이 돕기를 자청해 5차례의 동정 연주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동년 9월부터 광희문 밖 신당동 일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교사로 신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를 매수하여 경성부의 기지를 불하받고자 한 계획이 잘못되어 대동학원은 1928년 봄 결국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때 강원도 횡성의 부호 고창한의 후원으로 대동학원은 재생하게 되었다. 지수성가한 고창한이 어린 시절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을 통탄해하던 차에 대동학원의 사정을 듣고 교육사업에 투신하게 된 것이다. 그

는 자신이 살던 가회동 집을 헐고 그 자리에 2층 목재 교사를 신축하여 1929년 10월부터 6년제 보통과와 2년제 상업보습과를 두어 불운에 처한 자제들에게 각기 알맞은 교육을 시켰다. 대동학원은 1931년 계동에 있던 보성보통학교를 인수하고 기존의 대동학교와 합병하여 가회동 자리로 옮겼고 보성자리에는 대동상업학교를 설립하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고창한의 학교 후원과 경영에 큰 힘을 얻은 유지회의 1,600여명 차부 일동도 매월 20원씩을 출연하여 학교기금으로 내놓았으며, 대동상업학교 운동장 개수 때에도 자기 일처럼 무료로 공사를 맡았다. 현재 계동에 위치한 대동세무고등학교가 바로 대동상업학교의 후신이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지식인과 자본가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학교들은 많았지만 최하층 노동자였던 인력거꾼들이 조합을 만들고 돈을 모아 무산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향학열과 교육열에 불타 "비록 인력거를 끌어도 배워야 하고 알아야겠다. 하물며 우리들의 자손에랴!"라고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에서 시대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스피드 시대의 경쟁자들

1923년 6월 시내 적선동에 위치한 합자회사 '경성객차공사'에서는 대련에서 승합마차를 들여와 운행에 들어갔다. 이 회사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2~300대의 승합마차를 시내 각 처에 배치하고 값싼 요금으로 손님을 태우자 밥벌이조차 안 됐던 조선인 인력거꾼의 수입은 더



대동학원 계동 교사, 1932

줄어들어 그들의 살림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거부조합에서는 마차 배척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해당 경찰서에 대표를 보내 마차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인력거와 동일하게 요금을 받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력거와 마찬가지로 마차도 일정한 장소에서만 승객을 태우게 하라고 청원했는데, 이 요구가 수용되어 승합마차영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도로사용원을 종로경찰서를 경유하여 경성부윤에게 제출하게 했다. 경성부에서는 실지조사를 거쳐 주차장으로 정한 열한 곳의 허가 장소에 너비 3척의 말뚝을 설치하고 ‘객마차주차장’이라고 쓴 표목을 세워 이곳에서만 승객을 탑승하도록 하였다.

승합마차에 이어 인력거의 또 다른 경쟁자는 승합택시였다. 1925년 6월 25일 경성자동차상회에서 출원한 택시영업이 인가되자, 인력거꾼들은 큰 타격을 보게 되었다. 택시요금이 인력거 값보다 낮아 가격과 속도 면에서 모두 밀리자 인력거부조합에서는 택시 문제와 샅진 문제를 의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총회를 열기도 했다. 중국인이 들어 온 마차와 일본인이 경영하기 시작한 택시와 경쟁하면서 인력거꾼들의 삶은 공황상태에 빠졌으며 잠재적 실업자가 되어갔다. 당시 한 신문에서는 ‘가상(街上)순례’라는 연재기사를 실으면서 그 여섯 번째로 인력거꾼의 삶을 조명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경성에만 1,297명의 인력거꾼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1년 365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리품을 팔아가며 목이 마르고 숨이 가쁘며 다리의 기운이 떨어져 기진맥진할 때라도 인력거 채를 땅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존재였다. 기자는 인력거꾼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한 달에 불과 30원 내외라며 불평등으로 먹칠된 세상이라 분개하였다.

이런 고단한 삶을 살던 인력거꾼들에게 1928년 3월 경성부영승합자동차 운영 계획이 전해지자 그들은 택시운전자와 함께 대공황 상태에 빠지고 만다. 경성부에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해결하고자 총 예산 35만원이란 거액을 들여 직영버스인 승합자동차(부영버스)를 관업으로 경영하게 되었고, 부영버스가 전차 요금보다 조금 비싼 7전(1구간)의 운임으로 경성 시내를 누비게 됨에 따라, 인력거영업이나 택시업과 같은 민업 종사자들은 전차와 버스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외진 곳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1928년 당시 인력거꾼 숫자는 3년 전에 비해서 100여명 늘어난 1,400여명에 달하였으나 한 달 수입은 30원에서 20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택시에 비해 타격이 훨씬 컸던 인력거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껴 동월 11일 명치정(현 명동) 불로각에 모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장기간의 협의 결과 경성부윤에게 부영버스를 경영하기는 하되 천여 명의 인력거 차부와 영업자들이 안정적인 다른 직업을 얻기까지 3년간 시행을 늦춰주거나 실직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영버스는 동년 4월 22일 운행에 들어갔으며, 다음해 6월부터는 전차요금과 같은 5전 균일제 요금을 시행하여 인력거영업자를 더욱 압박하였다.



부영버스 문제로 경성부청에 몰려 앉은 인력거꾼, 1928

1932년 경성부는 차량세 중 영업용 인력거에 적용해온 본세 1원과 부가세 1원 등 세금을 전면 폐지했다. 인력거세를 없앤 것은 자동차의 압도적 진출로 인력거가 영업상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성부의 이러한 감세 정책은 인력거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다. 인력거세와 함께 자전차세와

다시 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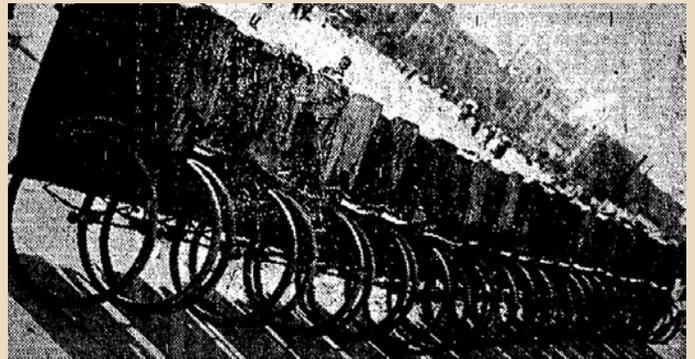
승용마차세도 경감하거나 폐지했다. 바야흐로 자동차의 시대가 된 것이다. 1930년 초반 언론들은 세상은 속력을 요구한다며 동시대를 '스피드 시대'라 칭하였다. 자동차는 스피드 시대의 상징이었으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인력거꾼들은 시대의 낙오자가 되었다.

1933년 동아일보에서는 경성부내의 5년간의 대중교통 수단별 증감현황을 발표했다. 1928년도와 1932년도 통계만 보면 자동차는 162대에서 460대로 급증한 반면, 인력거는 1,281대에서 132대로 급감하였다. 인력거꾼도 5년 전에는 1,200여명에 달했는데 1933년 당시에는 130명 정도가 전차, 버스, 자동차 등이 내놓은 손님들을 헐값으로 태우고 다닐 뿐이었다. 인력거의 고객은 기생이 제일 많았고 돈 가지고 다니는 은행원과 의사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제한적으로 회사나 부호가의 자가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지방에서는 택시 없는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인천에서도 100여 대 하던 것이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1935년 당시 4~5대 정도만 남아 영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1939년경에 이르러 상황은 역전되었다. 구시대의 유품으로 여겨졌던 인력거가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총아가 된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각종 물자가 통제되면서 가솔린을 원료로 쓰는 자동차나 버스의 운행이 제한되었으며, 극도의 가솔린 절약을 계기로 인력거를 비롯해 인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급부상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전만하더라도 400여대 미만이었는데, 1939년에는 640여 대에 이르러, 택시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 이를 수용치 못할 정도였다. 경성 시내의 각 경찰서 관내에는 인력거조합들이 있어 병문을 영업장소로 하여 고객들을 받게 되는데, 주문이 있으면 순서대로 손님들을 태웠으며 야간에는 인력거를 끌고 거리로 나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인력거를 이용하는 고객도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쓰는 개인이나 요릿집을 출입하는 기생들에 불과했으나 중

일전쟁 이후에는 대중성을 띠게 되어 신여성과 청년들도 인력거를 타고 부끄럽지 않게 종로 변화가를 달리게 되었다. 인력거의 총 본영은 역시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경성역이었다. 40여명의 인력거들이 이곳 병문에 대기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거나 시골서 갓 올라와 주소를 잘 알지 못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5~6원의 수입을 올렸다. 중일전쟁 전의 수입이 1~2원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호황이었다. 예전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자가용 인력거 차부나 권번 및 요릿집 소속 인력거꾼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나 오히려 이들이 자유영업을 위해 그곳을 나오려고 할 정도였다.



경성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인력거. 1939

인력거가 부상하면서 1933년 경성 시내에서 사라졌던 승합마차도 다시 등장했으며, 자전거 뒤에 좌석달린 손수레를 매단 인동차(人動車)까지 출현하였다. 그러나 인동차는 경찰의 불허가로 오래지 않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인력거가 자동차대용으로 길거리를 만보하였다. 인력거가 이렇게 다시 득세하자 영업이 번창했던 초창기 때처럼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폐해가 일어났으며, 이에 경무국에서는 인력거조합을 불러 모아 지도에 나서는 한편 불량업자나 차부들을 단속해 나갔다. 그만큼 인력거의 시대가 다시 도래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력거가 조선의 전통적 교통수단들을 대체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동력과 대중성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승합마차를 비롯하여 전차와 택시 그리고 부영버스 등 근대적 교통수단들이 등장하면서 그들과의 속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 인력거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갔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 체제에 들어서면서 생필품 및 각종 물자가 총독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되자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교통기관의 운행이 금지되거나 제약되었다. 인력거는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시대의 총아로 다시 부활하기도 했다. 물론 인동차의 등장으로 새로운 경쟁자와 맞서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까지 오랜 생명력을 유지했다. 1960년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1914년 제정된 '인력거취체규칙'을 폐지하기로 의결할 때까지 인력거는 187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었으며, 그것을 오랜 세월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인력거꾼의 땀과 희생 덕분이었다.



자전거에 좌석달린 손수레를 매단 인동차, 1939

글 | 이경민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5년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며 근대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진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왔다.

다시 보는 서울
6人 6色의 서울 리서치

도곡동 (미스)테리우스, 타워팰리스

홍은주 · 조규진

지금 사는 자취집이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곧 이사를 가야한다.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하는 소모적이고 지난할 과정을 예상하며 막막해하던 나는 <가짜잡지> 3호에 실렸던 장혜림의 <누구나 가슴 속에 타워팰리스 한 채 쫓은>을 떠올리며 실소했다. 장혜림은 <가짜잡지>에 타워팰리스 1, 2, 3차의 종이접기 모형 전개도를 만들어 실으며 지방 출신 서울 유학생이 타워팰리스를 바라보며 느끼는 뒤뜰린 심사를 드러냈다.





어릴때 부모님과 함께 모텔하우스를 방문하면 전단지들 가져와 두고두고 보면서 놀곤 했다. 평면도를 놓고 이 방은 이렇게 저 방은 저렇게 꾸며야지 따위를 생각하며 “마이 스위트 홈”을 그리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장혜림이 ‘그들만의 궁성’에 짜증을 내며 모형을 통해 이 아파트들을 회화화하며 혐오감을 희석하고 있다면, 나의 경우는 어떨까, 동경에 가까울까? 아니면 박탈감? 아니, 아마도 막연한 호기심에 가까울 것 같다. 실은 타워팰리스, 실물로 본적이 없다. 근처에 가본 적도 드물다. 이리저리 해봐도 사람들 사는 아파트일 뿐인데 남의 사는 동네에 내가 기웃거릴 이유가 뭐 있겠나. 그런데 장혜림으로부터 반강요로 얻어온 그 전개도 실물 모형들을 질리지 않고 한동안 바라보던 나는 갑자기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다. 예라 모르겠다. 직접 가서 한번 보자. 내 눈으로 그 위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진 것이다.

날씨 좋은 봄날, 버스를 타고 도곡동으로 향했다. 도곡동 자체는 생각보다 별 특징이 없었다. 그저 창밖으로

열심히 타워팰리스를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타워팰리스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서울 거리와 다를 바 없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이 교차하며 지나갈 뿐이었다. 한참을 더 가다 개포동 차고지에 도착한 후에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며 김이 빠졌다. 버스 노선은 분명 타워팰리스를 지나는 것이었는데, 문제의 타워팰리스는 왜 보이지 않았느냐 말이다. 실망스러웠지만 이왕 처음 와 본 동네, 구경이라도 더 할 겸 돌아가는 길은 다른 버스를 탔다. 버스는 (역시 말로만 들던) 양재천으로 짐작되는 하천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바로 사진들 속에서 익히 봐오던 “그” 타워팰리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간이라 배후에 은은하게 비치는 석양 사이로 빛나는 타워팰리스는 웬지 살아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지나온 버스 노선 가운데 타워팰리스는 분명 있었다. 다만 거대한 마천루의 스펙터클이 한눈에 들어오길 기대하던 내 눈에는 들어올

타워팰리스는 원래 102층 규모의 삼성 사옥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건축허가가 2년 넘게 지연되는 사이 IMF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소득사업인 주상복합 건설로 선회했고 지금의 주상복합단지가 되었다. 이건희 회장이 개발 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고 수준의 사생활 보안을 제공하고 공개 분양이 아닌 1:1 마케팅을 통해 선택된 자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국내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떠올랐다.



리가 없었다. 타워팰리스 단지들을 바로 옆으로 지나서 버스 안에서는 이 건물들의 밀동들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버스 안에서 내 눈은 계속해서 타워팰리스를 쫓았다. 양재천을 벗어나자 웅장했던 타워팰리스는 다른 아파트들 사이로 가려져 다시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타워팰리스 근처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는 부동산들은 타워팰리스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양재천으로 데리고 간다. 양재천을 걸어본 고객은 타워팰리스를 사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 봉준호 (건축사, 프리미엄 부동산 컨설턴트, 생활칼럼니스트)

다시 한번 타워팰리스를 방문했다. 이번엔 지도에서 위치를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었다. 삭막하고 초현대적인 공간일 것이라는 인상과는 달리 평

화롭고 잘 다듬어진, 여행잡지에서 보던 외국의 한 마을 같다. 애완견을 이끌고 산책을 하는 사람, 학원에 가는 듯한 여고생, 유모차를 밀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평범하고 또 행복해보여서 나는 오히려 당황했다. 고개를 힘껏 젖혀야 볼 수 있는 건물 꼭대기에서야 그 근엄한 위용을 상기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가 이방인 내지는 침입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외부인에게 단지 내부는 공각기동대나 애플시드 류의 SF애니메이션에서 종종 등장하는 두텁고 투명한 돔이 방어막이나 결계처럼 쳐져 있는 것 같았다. 사실 진짜 궁금한건 외양의 스펙터클보다 단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쪽이었지만 예상대로 경비원들이 철통처럼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는 커녕 커다란 카메라를 보자마자 쫓아오기 시작하는 통에 별 소득없이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 사이로 평화롭게 오가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쫓겨다니

도곡렉슬아파트
층수가 높다보니 단지 내부에서 거의 타워팰리스를 볼 수 없고, 동과 동 사이로 힐끗 힐끗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이와 별개로 타워팰리스 앞에 서서 렉슬 단지를 보는 것도 꽤 장관이다.

은마아파트앞 사거리
강남의 재건축 붐을 타고 부동산값 폭등의 진원지라고 불린 은마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타워팰리스는 어떤지 의미심장했다.

개포우성4차
같은 우성이라도 개포우성1차보다 개포우성4차는 4억원 가량 시세가 낮다고 한다. 1차는 학교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반면에 4차는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개포우성1차는 타워팰리스 왼쪽 4차는 오른쪽이다.

양천초등학교
주말에는 문을 걸어 들어갈 수 없는 학교들도 많았는데 이곳은 축구부 아이들의 연습 때문인지 개방되어 있었다.

달터근린공원
양재천에서 타워팰리스 방향으로 건다보면 이어지는 공원이다. 특이하게도 과수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초등학교들이 교육장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배나무 생육지라고 한다. 무허가로 보이는 판자촌도 생성되어 있었다.

개포주공1단지
개포동의 저층단지라고 하면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단지를 가리키는데 그중에서도 주공1단지는 5040세대로 가장 대단지이며, 유일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놓아서 요즘 시세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고 한다.

는 나. 타워팰리스를 기웃거린 모든 탐방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얘기다. 단지에 사는 친구가 있거나 서비스 업체 직원이 아닌 이상 여간해서는 1차 방어선조차 뚫지 못한다. 결국 나중엔 외부를 서성이는 것조차 불안하고 부담스러워진다. 차라리 제한적인 투어 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하면 호응이 나쁘지 않을 텐데. 터덜터덜 매봉역으로 걸어 가는데 판타지 세계에서 다시 현실세계로 빠져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쩐지 약이 올라서, 안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데 밖에서라도 제대로 구경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타워팰리스는 이 동네 어디에서나 다 보일까? 어디부터 잘 보이고 어디서부터 안보일까? 정말 어디서나 다 보이는 건 아닐까? 이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어디서든 타워팰리스가 손을 뻗으며 들고 "기준!"을 외치고 있을 것 같았다. 타워팰리스가 하늘의 달처럼, 동네의 산처럼 언제나 배경의 일부로 자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도곡2동 467번지를 중심으로 두 고 근처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원 등을 돌며 오로지 타워팰리스가 보이는가?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가?의 기준으로 동네를 내멋대로 재편해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포1,2,3,4동

여기서는 대개의 장소에서 타워팰리스가 건물에 걸친 채로, 건물 위로 솟아올라 보인다. 도곡동이나 대치동에 비해 타워팰리스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중공 저층 아파트 단지과 주택, 빌라촌이 주를 이루는 곳이라 스카이라인이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 같다.



대치 1,2동

은마, 우성, 선경과 같은 80년대 중반의 12~15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고, 도곡동과 맞닿는 곳에는 재건축이 완료된 동부센트레빌, 아이파크가 있다. 일직선으로 뻗은 길 덕에 타워팰리스로 연결되는 도로에서는 다른 건물에 겹쳐 보이거나 잘 보이지만 단지 안에서는 아파트 자체의 높이 때문에 거의 볼 수 없다.





도곡 1,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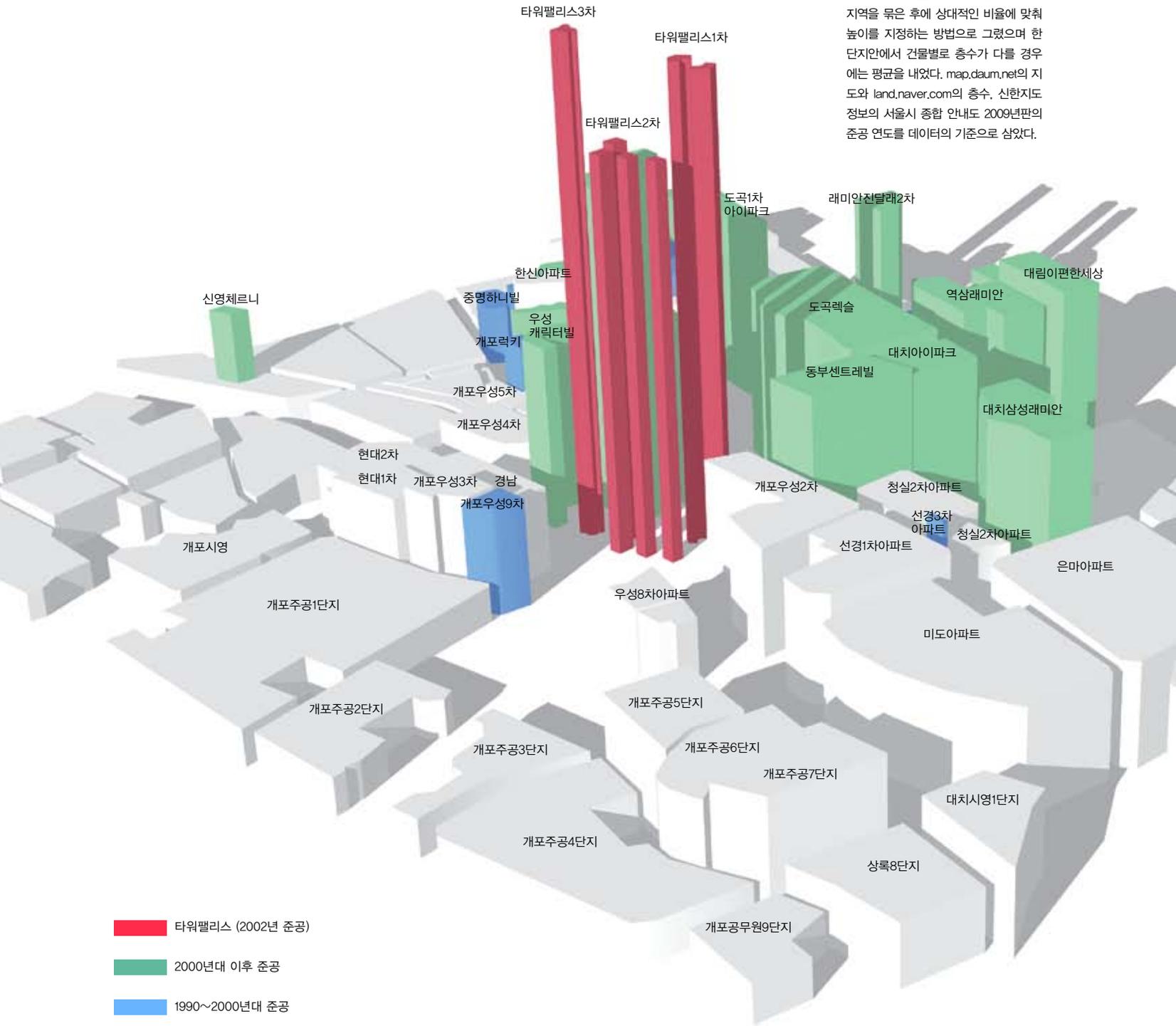
타워팰리스의 주소는 도곡 2동이다. 너무 가까워서 타워팰리스의 밑동만 보이는 곳.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타워팰리스가 시야를 가득 채워 멋지게 보이는 곳. 그리고 역시 고층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도 해서 가장 전망이 다양한 장소였다.



푸
푸
푸...!



이 지도는 타워팰리스를 중심으로 그 근처의 주거단지를 층수 별로 재구성한 맵이다.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으로 각각 지역을 묶은 후에 상대적인 비율에 맞춰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렸으며 한 단지 안에서 건물별로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을 내었다. map.daum.net의 지도와 land.naver.com의 층수, 신한지도 정보의 서울시 종합 안내도 2009년판의 준공 연도를 데이터의 기준으로 삼았다.



- 타워팰리스 (2002년 준공)
- 2000년대 이후 준공
- 1990~2000년대 준공
- 1970~1990년대 준공

너무 가까이 있어서 타워팰리스의 건물 밑동만 보이는 장소가 있고, 건물들 사이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변을 압도할 정도로 커다랗게 보이는 곳도 있다. 명확한 패턴이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타워팰리스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언뜻 타워팰리스를 둘러싸고 묘한 형태의 군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아무래도 거리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저층아파트가 많은 개포동에서는 어디서나 타워팰리스가 압도적으로 잘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달터공원이었다. 과수원과 어우러져서인지 극적인 대비를 이뤄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멋진 전망을 선사하는데, 이 근처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늘어서 있어서 구룡마을의 판자촌과 더불어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이곳을 단골로 찾는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도곡동과 대치동은 잘 보이는 곳과 부분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이 제각각 분포한다. 물론 층수만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개포동은 전부 평지이고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져있어 탁트인 배경 사이로 타워팰리스를 관람할 수 있는 반면, 도곡동과 대치동은 바로 옆동네이면서 지형상 굴곡이 있다는 사실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티역에서 도곡역으로 가는 길의 반쯤은 언덕이 가로막고 있는데 도곡렉슬아파트가 이미 높은 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뒷편에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타워팰리스가 아예 보이지 않았다. (대신 도곡렉슬과 현대아이파크가 아주 멋있게 보인다.) 렉슬아파트 단지는 타워팰리스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파트의 높이 때문인지 단지 내부에서도 타워팰리스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의 끝부분은 타워팰리스가 가장 멋지게 보이는 자리 중 하나다.

평균적으로 학교는 어디서나 타워팰리스가 훤히 보였다. 물론 널찍한 운동장에서는 눈 앞을 가리는 게 없기 때문이겠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멋진 타워팰리스의 사진들을 늘어놓은 후 “그래 나는 역시 변호사가 되어야 해”라는 결의에 찬 선언을 적어둔 학생을 본 후로 ‘학교에서

언제나 보이는 타워팰리스’라는 것은 꽤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타워팰리스의 자취 혹은 그림자를 좇아 도곡동을 헤매며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을 상상해버렸다면 심한 비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보이는 타워팰리스를 내내 의식하고 있자니, 사우론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던 호빗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강렬하게 매혹당하고 있는 것일게다.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용암 속으로 던져 넣어? 아니면 나도 도곡동의 테리우스, 반짝 반짝 빛나는 장신 꽃미남 타워팰리스의 매력에 푹 빠져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꿈을 꾸어야 하는 걸까.

타워팰리스 시리즈는 우리 시대 최고의 ‘건축문화’ 아이 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어진 어떤 건물도 이만큼 큰 사회적, 문화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요. 사회적 공간에서의 위치가 그대로 도시의 경관으로 드러난, 그야말로 ‘눈으로 보이는’ 구조인 걸요.

- southstep.egloos.com <타워팰리스III 건축문화대상 수상> 중

최근 타워팰리스를 중심으로 그 부근 아파트들의 고도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긴 하지만 타워팰리스는 아직도 가장 당당하게 빛나고 있다. 타워팰리스 바로 길 건너편에는 도곡주공과 대치주공이 탈바꿈한 도곡렉슬과 동부센트레빌, 그리고 연립주택단지가 변신한 아이파크가 둘러싸고 있다. 각양각색의 이 아파트들은 곧장 타워팰리스를 따라잡으려는 듯한 형상이다. 이 일대에 포진한 8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대부분 역시 재건축을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워팰리스가 언제까지나 고고하게 “기준”을 외치며 이 일대를 굽어보며 후배들을 출세울지, 누가 먼저 타워팰리스를 따라잡아 새로운 기준이 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나같은 외부인이 타워팰리스와 도곡동의 만상을 즐기는 가장 재미난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하고 슬쩍 제안해본다.

2005년 건축문화대상에서는 타워팰리스가 1등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이 2등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동부센트레빌은 대치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2005년 완공되었다. 당시 시공능력 19위의 동부건설이 삼성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타워팰리스는 최근 열린 전시인 <코리아디자인 2008 - 우리를 닮은 디자인>(2009.5.15 - 6.6)의 한국을 대표하는 52가지 디자인 중에도 선정되었다. 외부와 닫힌 계층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며, 면적과 직업을 기준으로 차별화가 이뤄지는 냉정한 공간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홍은주
그래픽 디자이너
2007년부터 김형재와 함께 <가짜잡지> 발행 중

조규진
그래픽 디자이너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재학생

HOT SKETCH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
그 첫날, 드라마작가 노희경과 함께

글로 사람과 사랑을 만난 시간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

4월 28일 저녁 7시 30분,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에서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사전에 YES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40명의 독자들이 시간에 맞추어 이 자리에 모였다. 사람과 사랑을 말하는 드라마 작가 노희경,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된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그리고 독자들의 만남. 그 날의 대화와 분위기를 지상중계 해본다.



서울문화재단과 중앙일보, YES24가 공동 주최하는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이 문을 열었다. 이 행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2004년 이후 꾸준히 벌여오고 있는 〈책 읽는 서울〉 캠페인의 일환이다. 그 첫 만남에는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의 진행으로 최근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을 낸 드라마 작가 노희경 씨가 초대되었다.

팝 칼럼니스트라는 공식 직함보다 라디오 패널, 드라마 출연, 연애 상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태훈 씨. 오늘의 초대 손님은 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장은 독자들의 환호를 받아냈다. 그러나 초대받은 독자들은 오늘의 주인공이 노희경 작가임을 잊지 않았다. 김태훈 씨 못지 않는 재치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노희경 작가의 등장에 뜨거운 박수와 열렬한 호응을 보내줬으니까. 여느 배우 부럽지 않은 등장이다.

HOT SKETCH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

‘꽃보다 아름다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가, 노희경 씨를 소개합니다!’

자그맣고 다부진 체구, 얼굴을 덮을 듯한 안경, 웃을 때 귀 밑까지 활짝 열리는 입매. 독자들은 노희경 작가의 어디에서 그녀가 쓴 폭발적인 드라마의 힘이 나오는지 조심스럽게 살핀다. 자, 이제 자리에 앉은 노희경 작가에게 진행자 김태훈 씨가 직격포 질문을 날린다. (이하 김태훈은 김, 노희경은 노로 줄임)

김 지금의 나, 지금의 노희경 작가를 만든 동력은 무엇 일까요?

노 예전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처와 경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라고 말했었는데 요즘은... 내가 잘 나서? (일동 웃음) 저한테 글을 쓰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고,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내 안의 능력, 가능성을 보고 싶었고요.

김 글을 쓰는 작가는 어떤 취향의 독서를 하나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노 10년 전부터는 철학서나 스님들 책을 읽어요. 소크라테스의 책들, 예전엔 철학서가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좋은 점은 소설은 뒷애기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는데, 이런 책들은 읽고 있으면 잠이 잘 와요.

김 전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드라마 작가도 다른

작가의 드라마를 보나요?

노 잘 안 봐요. 작업하느라 시간도 안 되고. 아, 미드(미국 드라마)는 좋아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드라마를 좀 보는 편이에요. 단막극은 신선함이 있어서 좋고, 김지우 작가의 〈부활〉, 〈마왕〉 이런 작품들은 재미있게 봤어요. 〈꽃보다 남자〉도 보고... (일동 환호한다)

김 취미가 직업이 되면 취미를 잃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로 드라마를 잘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닌지...

책 얘기로 들어갈까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에 대한 작가님의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노 누군가 그런 얘길 했어요. 글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독자들, 시청자들은 이미 보고 듣고 생각해서 알고 있다. 제 해석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외로우니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 그렇다면 노 작가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노 결혼 질문 많이 받아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만은 아니고요. 그런 건 20대 때 많이 했었죠. 지금은 일, 가족과의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김 제가 마흔을 넘긴 노총각이다 보니 어떤 답변을 하시나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독자들, 웃음 속에 숨겨진 놀라움 표출. 김태훈 씨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다)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의 진행자 김태훈

- 김** 늘 드라마를 쓰시다가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요. 드라마 쓰기과 책을 위한 글쓰기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 노** 시청자, 독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니 별 차이를 못 느껴요. 현대 작업은 드라마가 재미있죠.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재미요.
- 김** 작가들은 스태프와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 노** 작은 소통이 중요해요. 대본 넘길 때마다 스태프들에게 수고한다는 이메일을 쓰고, 배우들에게도 가끔 이메일로 연락하고. 사실 작업 시작하면 현장에 갈 시간도 없죠.
- 김** 노 작가님은 소재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 노** 늘 노트를 갖고 다녀요. 메모를 밥 먹듯이 하죠. 어느 자리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군가 특이한 행동을 하면 바로 캐릭터로….
- 김** 그럼 이 자리에서도 특이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바로, 노 작가님의 드라마에 포착되는 거군요. (독자들, 이즈음에서 웃어주는 센스!) 노 작가님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랑을 그려왔는데요,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 사랑은 나이와 함께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데는 나이가 소용없어요. 우리 어머니님 늘, “마음은 청춘이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릴 땐 그런 어머니 말에 웃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몸의 사랑은 변해도 마음은 안 늙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의 사랑은 아프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도 일흔 가까운 노모의 사랑이에요. 연령대에 따라 여자의 사랑을 쫓아가 보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 김** 노 작가님의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람, 사랑이잖아요.
- 노** 전, 사람이 좋아요. 등 토닥이며 미안함을 전해줄 때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보다 좋죠. 예전엔 거칠고 억센 엄마가 너무 싫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으며 생각해 보니 그때 엄마 마흔도 안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 김** 이 자리엔 드라마작가 지망생들도 참석했을 거라고 봐요.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HOT SKETCH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

노 조카 하나가 만화작가가 되고 싶어서 스토리를 구상할 때 조언을 청해요. 그때 묻더라고요. 고모, 유명해지기 어렵지? 전 그래요. 안 어려워. 쉬워. 왜냐면, 모두 다 열심히 하지는 않는단다. (정곡을 찌르는 이 말에 독자들, 탄성과 같은 웃음) 모두들 5분 쓰기, 10분 쓰기를 실천하지 않아요. 매일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해요. 한 달에 한 편도 안 쓰면서 무슨 작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민만 많이 하고... 작가는 쓰는 사람이예요.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예요. 하루에 10분씩만 꾸준히 써보세요.

김 책을 읽다보면, 밑줄도 긋고 싶고 이글을 내 인생에 화두처럼 담아 뒤야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님의 책 중에 특별히 애정이 가는 구절 한 대목만 읽어주세요.

노 이런 거 쑥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장을 펼치시는 노 작가님) '버려줘서 고맙다'라는 글의 마지막 단락이예요.

그때 나는 그런 아이였다. 그대여, 이제 부디 나에게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사랑에 배신은 없다. 사랑이 거래가 아닌 이상, 둘 중 한 사람이 변하면 자연 그 관계는 깨어져야 옳다. 미안해질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게 후회로 남으면 다음 사랑에선 조금 마음을 다잡아볼 일이 있을 뿐, 죄의식은 버려라. 이미 설투지도 아리지도 않은 애인을 어찌 옆에 두겠느냐. 마흔에도 힘든 일을 비리디 비린 스무 살에, 가당치 않은 일이다. 가당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었다. 어찌면 우리 모두 오십보 백보다. 더 사랑했다 한들 한 계절 두 계절이고, 일찍 변했다 한들 평생에 견주면 찰나일 뿐이다. 모두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다 괜찮다.

김 남자 입장에서 참 고마운 글입니다.

노희경 작가와의 대담이 끝나고 독자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되었다. 대담이 진행되기 전 독자들에게 받은 질문지 중에 몇 장을 골라 노희경 작가님의 명답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 삶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노희경 작가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어루만지듯 하나하나 풀어주었다.

앞으로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는 매월 마지막 주, 서울연극센터에서 김태훈 씨의 진행으로 만날 수 있다.

김태훈 미니인터뷰

저자와의 만남 진행 제안을 받았을 때 발 벗고 달려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번 기회가 공부의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의 모태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는데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오늘 노희경 작가님을 만나본 소감은요?

책은 좋아하지만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아일랜드' 재미있게 봤습니다, 했다가 둘 다 할 말을 잃었지요. 현대 워낙에 말씀을 잘 하셔서 기대하지 않은 답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에 거는 기대는요?

기획 단계에서 제 의견이 반영된다면, 화제성에 얽매이지 않는 책 선정을 하고 싶고, 대중에 노출 안 된 작가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노희경 미니인터뷰

책을 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이 빨라서 좋아요. 독자와 직접 만나는 이런 자리도 있고.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러다가 드라마 작가와 겸업을 하시는 건 아니신지...

책을 목적으로 쓰고 있는 글은 없어요. 이번 책도 그동안 드라마를 쓰면서 메모해 놓은 글을 모은 거니까. 나중에라도 뭔가 정리하고 싶을 때가 되면 혹시 모르겠지만요.

다음 드라마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내년 봄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및 글 | 김민정 기자

희곡, 뮤지컬, 방송원고를 쓰며 살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 <문화+서울> 인터뷰 기사도 종종 쓴다. 열심히 살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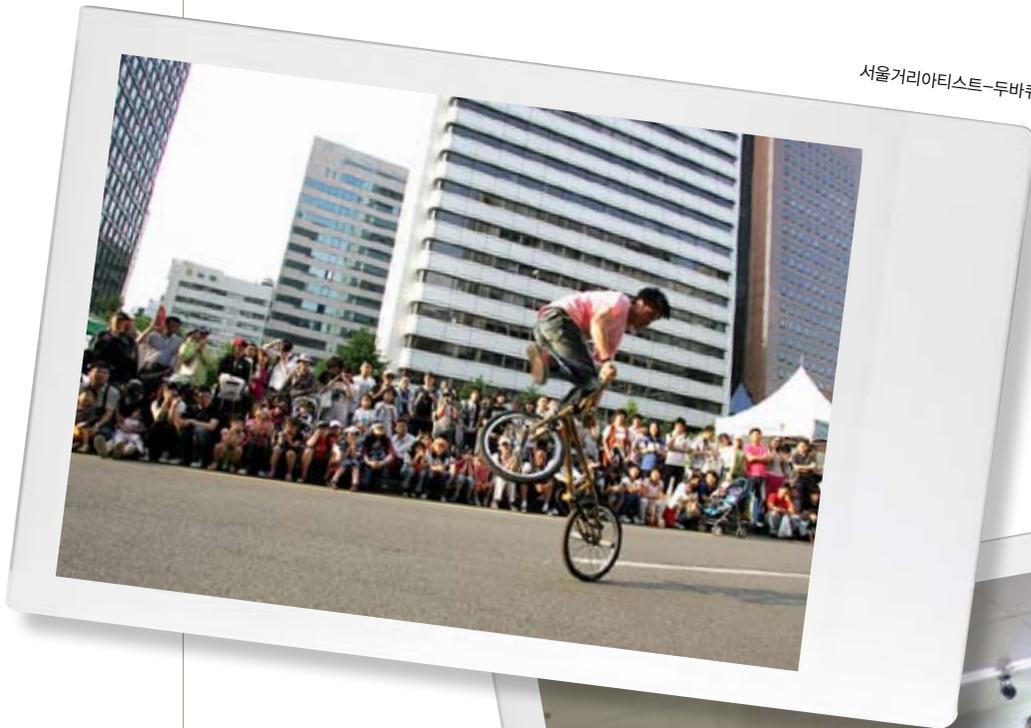
사진 | 손승현

한국인을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글, 비디오, 영상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 광주비엔날레, 뉴욕의 데니스 비브로 파인아트,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에세이로 기록한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가 있다.

HOT SKETCH
땅 위와 땅 밑,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한 우연

땅 위와 땅 밑,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한 우연

- 서울거리아티스트 vs 지하철예술무대



서울거리아티스트-두바퀴



지하철예술무대-러브뮤직밴드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게 무엇이었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 모퉁이 어디에서든 음악이 들린다.'라고 하거나,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서 있고, 빼에로처럼 같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의 연주 실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한참을 쳐다보고 왔다.'며 단연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는단다. 이렇게 땅 위와 땅 밑 어디에서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먼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후 1시. 점심을 먹고 허겁지겁 귀가하는 직장인들 틈에서 흥겨운 타악 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직장인들이 모여 지낸다는 광화문, 청계천 인근에서 웬 악기 소리일까. 소리를 따라 청계천을 건다가 발을 멈춘 곳은 바로 광통교. '서울거리아티스트'라는 막이 세워진 간이 무대 앞에서 두 명의 연주자가 공연 중이다. 연주자가 모양이 제각각인 빈 통들을 뒤집어 두드리자 빈 통은 바로 악기가 된다. 이들은 서울거리아티스트 중 하나인 P-BRO다. 그들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든다.

오후 7시, 동대문운동장역. 아코디언 소리가 지하철역의 공명을 타고 울려 퍼진다. 동대문운동장역은 환승역이어서 이동 인구가 많기로 유명하다. 사람들은 줄지어 한 곳을 향해 바쁘게 종종걸음하고 있는데 웬 악기 소리일까. 소리를 따라가 보니 빙 둘러선 사람들 사이로 아코디언과 트럼펫을 들고 공연에 한창인 3명의 연주자가 보인다. 러브뮤직밴드는 서울메트로의 지하철예술무대에 꾸준히 서는 아티스트다.

한 공연은 청계천 다리 위, 또 다른 공연은 땅 밑 지하철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닳은 구석이 있다. 우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무대인지 어디까지가 객석인지 구분하는 선은 관객 스스로 정한다. 가장 감상하기 편한 위치에서부터 관객들은 스스로 위치를 선택해 공연을 감상한다. 둘째, 둘 다 입장료가 없다.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셋째, 공연을 어떤 태도로 보든 누구도 상관 않는다. 언제 박수를 쳐야할지 몰라 두리번 거리거나, 화장실에 못가 꼭 참고, 기침을 억지로 삼킬 필요가 없다. 공연을 심하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여겼던 공연 관람 태도 따윈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넷째, 보든 말든 자유다. 공연이 좋으면 냇을 놓고 끝까지 감상한다. 바쁘면 한 두곡만 듣고, 한 두 개만 보고 자리를 떠도 무방하다. 정 시간이 없으면 지나가다 잠시 걸음을 늦추면서 공연을 감상해도 된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모두 일상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이 스며들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열린 무대가 있다면, 문화예술은 더 이상 비싼 돈, 긴 시간을 들여 누려야만 하는 게 아니다.

HOT SKETCH

땅 위와 땅 밑,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한 우연

땅 위 일상에 젖어든 문화 -서울거리아티스트

서울거리아티스트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공연예술 활동을 펼쳐, 일상 속에서 시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거리예술 지원 프로그램인 서울거리아티스트는 2005년 36개 단체의 활동을 시작으로 2006년 54개 단체, 2007년에는 총 80여개 단체가 활동했다. 올해로 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활동 단체의 수가 늘면서 그만큼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거리 예술이라고 아무나 설 수는 없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선사해야하므로, 어느 정도 검증된 아티스트들에게만 무대에 설 기회가 열린다. 여기서 '검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단체를 초빙하는 형태의 '검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증받을 기회만큼은 열려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거리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열린 검증의 기회인 오디션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아티스트들만이 거리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즉, 연주, 노래, 미술, 마임 등 거리아티스트 선발은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어떤 장르든 환영한다. 이처럼 '열린 오디션'은 시민들이 영양가 있는 예술을 골고루 접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인지 거리예술가들이 펼치는 장르는 무척 다양하고, 관객들의 반응도 신기하다. 5월 8일 금요일 낮 12시부터 광통교에서는 올해 거리아티스트로 선정된 P-BRO가 공연을 펼치고 있었는데, 발길을 멈춘 관객들의 구성도 다양하고, 표정도 각색이었다. P-BRO는 앞서 소개했듯 각종 빈 통을 스틱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가면을 쓰고, 자유로운 복장을 한 채 폐품으로 흥겨운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던 시민 이수경씨(65세)는 "(거리아티스트 공연을) 처음 보는데, 진짜 복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페인

트 통, 정수 통 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며 웃었다. 그는 '난타와 비슷하기도 하고, 소리가 경쾌해 아주 신난다. 꼭 복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씨처럼 서울거리아티스트의 매력에 빠져있는 관객이 점점 늘고 있다. 상시 무대를 갖곤 했던 서울거리아티스트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5.2~10)의 일환으로 특별히 자주 관객들을 찾아갔는데, 덕분에 관객들도 다양한 공연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거리아티스트 관계자는 "초파일에는 정말 관객이 많았어요. 평일에는 한산하다가도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관객들이 모이곤 해요."라고 말했다. 관객들의 반응도 적극적이란다. "지나가다 공연을 본 사람들이 '다음에는 뭐 해요?' 하면서 물어올 때도 많고, 아예 스케줄 표를 챙겨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아주머니는 가방에 짐을 챙겨서 의자까지 가져와 아예 자리를 잡고 보시기도 해요."라며 관객의 반응을 덧붙여 전했다.



서울거리아티스트- 월드데이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끝나더라도 서울거리아티스트는 꾸준히 거리의 관객들을 찾아간다. 앞으로 서울광장, 청계천 그리고 다양한 거리아트페스티벌에서 서울거리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공연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시계를 멈춰두고 이들의 공연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잠시나마 일상에서 탈출해, 짜릿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거리아티스트- 미디어올린



1



2



3

- 1 지하철예술무대-팝콘
- 2 지하철예술무대-메트로팝스 작은 음악회 中
- 3 지하철예술무대-울란도

땅 밑의 또 다른 무대-서울메트로 지하철예술무대

지하철은 현대의 상징물이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오가고, 운행 시간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는 이들은 주로 목적지가 뚜렷하다. 약속 시간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 길을 찾아 헤매거나, 교통 사정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을 일이 전혀 없는 교통수단. 그래서 지하철은 우연보다 예정된 목적을 따르는 수단이다.

그런 지하철의 성격을 거스르는 시간이 있다. 바로 지하철예술무대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우연히 마주할 때다. 을지로입구역이나 교대역에서는 제법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은 날은 관객이 몇 겹으로서 있어서 까치발을 해야 공연 장면을 볼 수 있을 때도 있다. 을지로입구역 만남의 광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어떤 날은 사람들이 아티스트 주위에 뺨 둘러서 공연이 끝나면 열렬히 박수로 화답해주기도 한다.”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곡 쬐음 감상하고 가거나, 뭐 하는지 슬쩍 눈길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예술무대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이용객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하루에 약 450만 명 정도.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역이 단순한 이동공간이라 생각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하철역을 재미있고 따뜻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하철예술무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등의 역사에 상설예술무대를 마련했고, 이 외 충무로역 등 약 10여개의 주요 역사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하다. 가요, 포크송, 현악 4중주를 비롯해, 최근에는 재즈, 색소폰, 아코디언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 역에서 번갈아가며 이뤄지고 있다. 2006년 1,725회, 2007년 1,850회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2008년에는 2,025회의 공연을 개최했다. 엄청난 공연 횟수 덕인지 이제는 지하철예술무대를 일상으

로 받아들이는 이용객들도 많다. 신주희 씨(26. 대학생)는 “유럽 배낭을 하던 중, 이렇게 지하철에서 공연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보았다.”며, “요즘은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전 이대입구역에서는 한참 동안 공연을 감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역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역에 도착할 때는 기다리는 동안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초창기 지하철예술무대는 자생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시설이 미비하고 공연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고, 2007년부터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공연 수준을 향상시켰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운동장역, 선릉역, 뚝섬역, 수서역, 서울대입구역 등 5개소에 상설공연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쇼박스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더불어 ‘서울메트로 예술인 인증제’를 도입해 노래, 춤, 연주, 마임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60팀의 전문 예술인을 공모하여 선정했으며, 이들은 현재 약 40여개의 역사에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공연 일정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오늘 우연히 지하철 역사에서 스쳐지나간 아티스트가 누군지 궁금하다거나, 그 아티스트의 공연을 또 보고 싶다면, 공연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취재 및 글 | 전지영 기자

전 월간 (피아노 음악) 객원 기자, 《뉴스컬처》 객원기자
현재 《문화+서울》 고정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 서울거리아티스트(신규식 작가)
서울메트로 지하철예술무대(서울메트로 제공)

명동의 예술시대를 다시 꿈꾼다

삼일로 창고극장

삼일로 창고극장 앞에서는 시간이 정지한다. 도로며, 건물이며 모든 게 새로워졌건만, 이 곳에서 느껴지는 정취는 자못 예스럽다.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70년대 소극장 운동의 산실이자, 실험정신의 맥을 이어온 삼일로 창고극장.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삼일로 창고극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MERGING SPACE
명동의 예술시대를
다시 꿈꾼다
'삼일로 창고극장'

오늘날 연극이 보고픈 사람들은 자연스레 혜화동으로 발걸음 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랬을까? 우리가 그 때를 '명동시대'라고 부르니, 당시 명동이야말로 명실 공히 예술문화의 산실이었다. 식민지시대부터 있었던 극장 건물인 시공관(1961-1973년 국립극장, 이후 1975년까지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당시 명동에는 음악감상실, 극장, 화랑, 예술인들이 모이던 다방, 선술집 등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일까? 삼일로 창고극장을 찾아가는 길은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아련한 향수 같은 것을 자아낸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 하차하여 세종호텔을 끼고 돌아 남산을 등진 채 삼일로 언덕배기를 기어 올라가면 바람개비들이 '차르르르' 소리를 내며 반긴다. 바람개비 따라 언덕 위로 흐르는 바람을 느끼자면 정겨운 골목이 나타는데, 여기가 바로 70년대 실험연극의 산실, 삼일로 창고극장 입구이다. 구석구석 화초가 놓여 있고 모양새가 다양한 벤치들이 자리를 잡은 골목, '극장 주인이 이 공간에 쏟는 애정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한다.

삼일로 창고극장은 참으로 아기자기한 매력이다. 삼일로 언덕을 올라가면 등 뒤로는 남산이 둘러쳐 있고 정면으로는 을지로와 종로의 쪽쪽 뺨은 마천루가 펼쳐져 있다. 그런 풍경 속에서 시간 여행을 위한 터널처럼 낯설기만 한 골목안으로 빨려 들어가, 이끼 낀 돌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보면, 탁 트인 시야를 보장해 주는 삼일로 창고극장 야외 로비의 벤치가 나타난다. 서울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푸른 하늘이 이상하게도 여기서 한가득 보인다. 폐품을 재활용하여 만든 귀여운 바람개비들을 벗 삼아 창고지기가 틀어주는 무반주 첼로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시간은 정지해버린다.



삼일로 창고극장 정대경 대표

소극장 운동의 유일한 산 증인

사실 이것은 그냥 느낌만이 아니다. 창고극장에는 아직도 1970년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한국소극장 운동을 기념할, 현존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도 이곳을 더욱 소중케 한다. 삼십 년 전의 현관,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골목, 돌계단, 예전에는 가정집이었음을 알게 하는 정감 있는 극장 구조, 무대에서 분장실로 들어가는 출입구 돌벽 등 옛 향기 가득한 그곳에 서면 한 세대 전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쳤던 연극계 선배들이 말을 걸어주는 듯하여 가슴이 뭉클해진다.

삼일로 창고극장은 70년대 소극장 운동의 열정과 정신이 녹아있는 곳이자 한국연극 처음으로 일극단일극장주의(一劇團一劇場主意)를 실현해 낸 장소이다. 삼일로 창고극장은 실험극장운동을 폈던 극단 예저또의 방태수 대표가 1975년 삼일로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을 인수해 극장으로 개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후 1년 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을 정신과 의사인 유석진의 후원과 연출가 이원경의 노력으로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하에 1976년 4월 재개관하게 되었다.

개관 기념으로 공연된 작품은 김정옥 선생이 연출한 극단 자유의 <대머리 여가수>였다. 이후 삼일로 창고극장을 통해 소개된 작품들과 이 곳에서 배출된 연극인은 수없이 많다. 오태석의 <약장사>, <춘풍의 처>, 정복근의 <여우>,



리 부르어 연출, 노 성 작, <이상, 열 셋까지 세다>의 무대

이강백의 <결혼>, 최인훈의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 등은 모두 창고극장의 무대를 통해 관객과 처음 만났다. 이원경, 김정옥, 유덕형, 강영걸, 추송웅, 유진규, 한태숙 등 창고극장을 거쳐 이제는 대가의 반열에 드는 우리 연극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삼십여 년 전 서울에서 장주네, 막스 프리쉬, 에드워드 올비를 만나려면, 또 <대머리 여가수>, <고도를 기다리며>, <동물원이야기>, <빨간 피터의 고백> 등이 보고 싶다면, 관객은 바로 삼일로로 발길을 향해야 했다. 해금된 김지하의 <금관의 예수>가 올려 퍼졌던 곳도 역시 삼일로 창고극장이었다.

물론 삼일로 창고극장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켰던 것은 아니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는 일로 인해 창고극장은 개관 다음해부터 내내 폐관의 위기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창고극장을 지켜낸 것은 소극장 구제를 위한 연극계의 노력과 각계의 여론이었다. 이후 소극장의 존속을 어렵게 하던 공연법은 고쳐졌지만 계속되는 운영난으로 인해 결국 1983년 창고극장은 폐관한다.

그것을 다시 인수한 사람은 연극배우 추송웅 선생이었다. 1977년 초연된 이후 1985년까지 약 500회 이상 공연되면서 1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그의 대표작이자 당대 최고의 화제작인 <빨간 피터의 고백>이 공연된 곳이 바로 삼일로 창고극장이다. 그러나 선생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극장은 다시 위기에 처하고, 이후 극단 로얄씨어터, 한국희곡작가협회, 극단 창작마을 등 여러 번 소유주를 바꾸며 폐관과 개관을 반복하다가, 2003년부터 연극음악을 하는 정대경 씨가 인수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실험공간을 꿈꾼다

그가 극장을 인수한 것이 큰 명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극장 대관이 어려워 절절매는 동료 연극인들을 보면서 소극장 하나를 갖고 싶었고, 이왕이면 한국연극사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 공간인 삼일로 창고극장을 되살리고 싶었다. 그는 “이 극장은 청년시절 내가 처음으로 돈을 내고 찾아온, 첫사랑과 같은 극장”이라며 극장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말한다. 그는 자신을 ‘창고지기’라고 부르길 즐긴다.



극장 안에 꾸며진 갤러리



공연 음악감독이기도 한 정대경 대표가 직접 작곡하고 연출한 뮤지컬 <결혼>이강백 원작의 포스터. 삼일로 창고극장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이다.

소유주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한국연극을 위해서 이곳을 건사하고 지켜내는 일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극장을 경영한다는 일이 처음 생각처럼 멋진 일도, 낭만적인 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창고극장의 정신만은 꼭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창고극장의 정신을 실험정신으로 생각한다. “최고의 시설을 가진 극장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되지도 못하겠지만, 이 극장만의 정서와 정신, 이 극장만의 역사를 살려 나가는 공간이 되고 싶다.”고 창고지기는 말한다.

영세한 민간 소극장으로서 감히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은 외국 아티스트를 초청, 제작을 시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초청한 아티스트가 미국 실험연극계의 대부 격인 리 부르어다. 리 부르어가 연출하고 한국계 미국작가 노성이 쓴 <이상, 열 셋까지 세다>(5.1-6.28 공연)의 리허설을 위해 정대경씨는 창고극장을 한 달 반 이상 비워두고 무대에서 직접 리허설을 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면 창고극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연극계에 적지 않은 화제를 가져오고 있는 리 부르어와의 공동작업의 시작은 그가 2008년 극단 마부 마인의 <인형의 집>으로 내한공연을 가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대경 씨는 공연을 보러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리 부르어를 만났다. 그때 자신이 한국실험연극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꼭 보여주고 싶으며 기회가 된다면 함께 작업을 해 보고 싶다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뽀뽀한 일정 중에도 리 부르어는 정말 창고극장에 들렀고 이 작은 공간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감탄했다고 한다. 이후 여러 차례 이메일이 오가면서 기획은 구체화 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공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개비가 전시된
창고극장의 야외 로비

리 부르어가 충분히 반할 만큼 창고극장은 오늘의 대학로 소극장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메인 무대의 바닥에는 3m×4m 넓이의 유압식 리프트가 있으며 무대 상수 뒤쪽 구석에는 1-2층을 연결하는 전동 리프트가 있다. 무대 위 천정의 높이도 여느 대학로의 소극장과 비교하면 높다. 2층에는 아담한 갤러리가 있는데, 전시는 물론이고 작은 음악회나 포럼, 네트워킹 파티 등을 할 수 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 실험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해주는 곳이 삼일로 창고극장이다.

역사와 미래가 함께 하는 공간

카페 페아트르(충무로), 예저또 코켓극장(충무로), 민예 소극장(신촌 대현동), 세대 연극실험실(삼각지), 중앙 소극장(저동 2가), 연극인 회관(오장동), 엘칸토 소극장(명동) 등 한국연극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많은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 겨우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엔 그 흔적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삼일로 창고극장의 존재는 더없이 소중하다.

오늘의 창고극장은 다양한 예술이 만나서 충돌하는 새로운 예술의 산실을 꿈꾼다. 연극 공연 뿐 아니라 전시회, 음악회, 영화제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크로스오버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움과 실험을 향한 창고극장의 비전이다.

창고지기는 공연이 없는 날도 극장에 나와 문을 활짝

열고 음악을 틀고 커피를 끓인다. 누구든지 명동을 배회하다가 쉬어갈 곳이 필요할 때 들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아직도 창고극장이 건재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창고지기는 그런 관심들이 모여 명동의 예술시대를 다시 부활시킬 힘이 되길 바란다.

별 좋은 날 문득 삼일로 창고극장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며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 속에 바람개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좋으리라.

〈삼일로 창고극장 현재 공연작〉

공연 명	〈이상, 열 셋까지 세다〉
연출	리 부루어(Lee Breuer)
공연 일정	5.1-6.28
관련 문의	Tel : 02)319-8020 Homepage : http://cafe.naver.com/samilro.cafe

글 | 이진아

연극평론가.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연극원에서 연극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가면의 진실 - 20세기 러시아 연극의 실험과 혁신』, 『동시대 연출가론』(공저), 『동시대 연극비평의 방법론과 실제』(공저) 등이 있으며, 그 외 한국연극과 러시아연극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사진 | 손승현

한국인을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글, 비디오, 영상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 광주비엔날레, 뉴욕의 데니스 비브로 파인아트,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에세이로 기록한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가 있다.

FOCUS INTERVIEW

소박한 세상을
디자인한다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교수



인사동에서 흰 면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주는 할아버지. 2000년부터는 아예 석유 문명과 단절을 고했다는 사람. 최신형 냉장고 대신, 숲과 소금을 내장한 대안 냉장고를 고안한 디자이너 강단에서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환경과 예술 작업을 연결시키도록 강의하는 교수 디자이너 윤호섭의 생활은 온몸으로 환경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5월 한 달간 열리는 <everyday Artday everyday eArthday! 展>을 찾아가, 윤호섭을 만나보았다.

everyday Artday e

소박한 세상을 디자인한다

그린 디자이너 연합선교수

everyday eArthday!



FOCUS INTERVIEW

소박한 세상을
디자인한다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교수

윤호섭 교수는 인사동 할아버지로 통했다. 인사동에서 흰 먼 티에 그림 그려주는 할아버지 하면, 모두들 ‘아, 그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필자의 지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자료 조사를 위해 둘러본 인터넷에서도 윤호섭 교수라는 이름보다 인사동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려졌다. 공식 직함은 국민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명예교수지만 친환경적인 디자인, 친환경적인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환경운동가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를 둘러보기 위해 ‘더 시우터 아트 무한 스페이스’를 찾아갔다.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윤호섭 교수

“새로운 작품은 중앙에 높이 설치한 목각 구조물 정도고, 나머지는 기존에 전시했던 작품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곳은 천정이 높아서 마음에 들어 흔쾌히 전시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정해두고 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형식일 뿐이고, 매일 매일의 삶이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니까요.”

갤러리를 둘러보니 골판지를 차곡 차곡 쌓아 묶어 놓은 것이라든가 별레 먹은 낙엽을 가지고 디자인한 작품, 물 위에 우표를 띄워놓은 것 등 재료비가 전혀 들지 않았을 범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베네통 전시회가 끝나고 버려진 폐기물로 만든 가방도 있었다. 베네통의 특이한 그래픽이 인쇄된

수지로 100여 개의 가방을 만들어 환경캠페인에 활용했다고 한다.

“디자인이 별 겁니까. 버려진 것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모아 놓은 게 제 작품입니다. 무슨 사물을 보든 환경과 연결시켜 생각하니까 저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요. 그냥 쉽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만큼 대단하진 않아요.”

별거 아니라는 그의 생활, 그의 디자인은 어떨까. 박경리의 토지 표지 디자인을 의뢰받고는 재생 용지에 콩기름을 써서 인쇄했다. 소포 우편물이나 포장 상자 등에서 떼어 낸 테이프를 붙여 만든 ‘볼’을 작품으로 내놓았다. 무엇보다 그를 주목받게 한 것은, 2002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인사동 거리에서 벌이는 퍼포먼스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부 받거나 남은 먼 티셔츠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 주었다. 친환경 페인트로 흰 티셔츠에 올리브 나뭇잎이며, 황새, 고래를 쓱쓱 그려 넣으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디자인이 나온다. 그리고 새겨 넣은 작은 사인, ‘everyday earthday - 매일 매일이 지구의 날’이라는 이 문구는 그의 행동의 의미를 짐작케 한다. 최근엔 해화동 성당 앞 필리핀인들이 모이는 벼룩

시장에서도 먼 티셔츠에 그림 그려주는 일을 시작했다.

“국민대학교 수업 중에 대학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대학로 환경을 인간적,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필리핀 벵룩시장에 갔죠.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증받은 먼 티에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왜 이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앞으로 일요일 이벤트를 다양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전시회장 한 구석에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증받은 천 여벌의 하얀 먼 티셔츠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전시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 나눠줄 옷들이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환경보존의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저는 아직 제가 그려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종종 아는 사람들이 먼 티 입을 사람을 보았다고 해요. 부디 자주 입고 다녀주세요.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바로 환경 운동가이며 홍보대사입니다.”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유난히 싫어하고 자신이 어떤 운동가이거나 유명인사로 불리는 것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윤 교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기를 원하는 것일 뿐, 한 가지 더 바란다면 후세들을 위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환경과 디자인과의 만남

윤호섭 교수가 처음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된 때는 언제일까. 그는 91년 세계 잼버리 대회의 엠블럼을 디자인하게 된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자신이 디자인한 것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궁금해서 포스터에 사인을 해주며 만나볼 요량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의 삶을 바꿔놓은 인연을 만난다.

“일본에서 온 미야시다 마사요시라는 대학생이었어요. 지구환경 아트라는 동아리 리더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제가 디자인한 작품에 모래를 쌓아놓은 새로운 작품이었죠. 흥미로웠어요. 예체능

을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후에 계속 이메일을 보내오는데 저도 뭔가 대답해 주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후로 윤호섭 교수는 책을 읽고 인간의 생활을 관찰했다. 95년에는 조형예술대 학장이 되면서 환경과 디자인을 접목시킨 교과과정을 만들었다. 일례로 수업시간에 디자인의 전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 등이다. 설계, 제조, 포장, 사용, 폐기되기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생산자들의 무관심에 지구환경은 병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요즘엔 그린 디자인이 산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어요. 간단한 소비재, 까다로워진 수출입 검수과정 때문에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아예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을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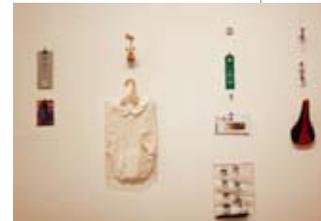
석유문명으로부터의 독립

“2000년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석유문명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웬만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여의치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옷 안 사 입고, 전자제품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옳다는 확신이 있으니 재밌던데요.”

한번 문명의 이기를 맛본 사람은 좀체 그 편리함을 버리기 어렵다. 김치 냉장고까지 두고 사는 요즈음, 냉장고 없이 한여름을 나는 게 말처럼 쉬웠겠는가 싶다. 그의 작품 중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숯과 소금을 내장해 식품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대안 냉장고도 있다.

“환경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한미 FTA 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무엇을 위해 외치는지는 알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 소에 나무를 그린 그

1



2



3



1, 2, 3
<everyday Artday everyday
eArthday! 展> 전시관 내부

FOCUS INTERVIEW

소박한 세상을
디자인한다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교수

림을 들고 집회 현장에 나갔지요. 전 미국의 거대한 축산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국가가 테이블에 앉아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협상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죠. 전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아예 육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뭐든 육신을 유지할 정도로만 먹었으면 해요."

윤호섭 교수는 어느 자리에서나 음식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쓰레기가 나오기 전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쓰레기가 나온다면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그의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이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돕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죠. 물론 비용과 시간, 분량과 능력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가닉(organic) 코튼으로 된 옷을 입고 재생 용지를 쓰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요. 실제로도 재생용지가 일반종이에 비해 3~5배 비싸요. 물류 창고에 갔더니 안 팔리는 재활용 종이들이 재고로 쌓여있더군요. 지난 5년간 그 재생 용지를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의 종이 두께가 날장마다 모두 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달력에 적힌 하루하루의 숫자도 모두 모양이 다르다. 윤 교수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숫자를 받아서 재고가 된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든 달력. 그 365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윤 교수가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어디 그뿐일까.

"전시회장 앞쪽에 흰 먼 티셔츠를 들고 있는 외국 아이 보셨죠? 2003년에 그 아이가 학회 참여차 한국에 온 아버지를 따라 인사동에 들렀어요. 아버지가 댄 펠만이 라는 생물학 보존학과 교수인데 <희생>이라는 제 작품을 보고서 내년 봄 워크숍을 진행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을 주워 그림을 그려 넣은 제 작품이, 벌레의 생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희생>이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숲을 걸을 때마다 벌레 먹지 않은 온전한 낙엽만 주우러 다녔다. 낙엽 더미에는 온전한 것보다는 벌레 먹은 잎들이 더 많았다. 어느 날 벌레 먹은 잎을 주워 드니 이것이 지금 지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레에게 온전히 제 몫을 나누어 주고 난 후의 모습, 그 상처는 곧 우리의 웃음이었다. 그의 작품이 전시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나뭇잎은 주목을 받았다.

"제 기운이 닿는 한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겁니다. 30년 이상 살았던 동네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 매일 매일이 새로워요. 가보지 못한 골목을 기웃거리고, 어느 가게 앞에선 멈춰 서게 되고, 시장 분들과 인사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났는데 불편하다고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의 홈페이지(<http://www.greencanvas.com>)에 가면 그가 권하는 권장 도서 목록이 있다. 학생들과 나는 강의 자료들이 있다. 그의 삶의 자취가 배어 있다. 누구든 그를 알고 싶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한번 방문해 보기 바란다. 물론 '인사동 할아버지' 윤호섭을 만나고 싶으면 인사동으로 가면 된다.





인터뷰 및 글 | 김민정 기자

희곡, 뮤지컬, 방송원고를 쓰며 살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 《문화+서울》 인터뷰 기사도 종종 쓴다. 열심히 살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산다.

사진 | 정강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난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YOUNG ARTIST
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발레소녀
발레리나 박세은

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발레소녀

국립발레단에 최연소 특채로 입단한 발레리나 박세은

Ballerina

2007년 로잔 콩쿠르 그랑프리 수상만 놓고 본다면, 박세은은 소위 말하는 천재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발레리나로서 그녀의 성장과정을 들여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1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한 그녀는 뜻심과 열정, 자기 확신 등 강한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무장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왔다. 잠시 반짝이는 별이기 보다는, 성숙한 빛을 내는 별이 되기 위해, 그녀는 지금부터 또 다시 스스로를 무장한다.



YOUNG ARTIST
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발레소녀
발레리나 박세은

여성이라기보다는 아직 소녀에 가까운 발레리나.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정상급 발레리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발레에 대한 깊은 열정, 인내심, 자기 확신 같은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빛낼 또 한 명의 스타 발레리나, 박세은을 미리 만나보았다.

99%의 노력과 1%의 재능

박세은은 10살 때 발레를 시작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발레티켓을 내밀었다. 아버지 친구분의 딸이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에 출연하게 됐다고 했다. 뭣도 모르고 간 공연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의 감흥을 받는다. 사실 10살은 발레를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 어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박세은은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이다. 국립발레단 문화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그녀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5학년으로 올라갔을 무렵에도 또래들과 함께 진급할 수 없었다. 한 학년 아래 클래스에 들어가야 했다. 발레학교 유급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 나이 소녀가 겪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일 텐데도

그녀는 꾀꿀했다.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다.' 라는 국립발레단 최태지 단장의 말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춤추는 것이 마냥 좋았다. 당장의 위치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이 못하는 동작을 하나하나 마스터해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현재의 박세은을 만든 원동력이다. 발레는 1, 2년에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라 적어도 십수 년에 걸쳐 꾸준하게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레리나들에게는 깊은 열정과 인내심 그리고 자기 확신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어린 박세은은 벌써부터 그런 것들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꾸준하면서도 무섭게 성장해갔다. 예원학교에 들어가서는 실기성적을 2, 3등으로 끌어 올리더니 결국 1등까지 하게 되었다. 서울예고 1학년 때는 동아콩쿠르에서 최연소 금상을 받으면서 무용계의 셋별로 떠올랐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거쳐 세계무대로 나아갔다. 그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노력에 혀를 내두른다. '악바리'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런 박세은에게 스스로 발레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니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99%의 노력과 1%의 재능, 그것이 정석인 것 같아요."



인터뷰가 있었던
5월 7일은 박세은이
국립발레단에 정식 출근한
첫날이었다. 예술의전당에
위치한 국립발레단
연습실에서 그녀는 토슈즈
끈을 신중하면서도
야무지게 둘러맸다.



2년 전 로잔콩쿠르에서
날아올랐던 박세은은
더 넓은 프로 무대로
날아오를 준비를 거의
마쳤다. 국립발레단에서의
첫 춤은 그녀 스스로 처음
도전해보는 '흑조'다.

기회의 장, 로잔콩쿠르 그랑프리 수상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스위스 로잔국제발레콩쿠르는 유독 우리와 인연이 많다. 1985년 강수진이 입상한 이래로 2002년부터는 우리 무용수들이 계속해서 시상대에 올랐다. 우리나라 발레무용수들이 로잔콩쿠르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우리 무용수들의 기량은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그에 비해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통로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로잔콩쿠르는 입상한 무용수에게 원하는 무용단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기회에 목마른 우리 무용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박세은은 2007년에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다. 그녀는 그 수상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녀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고, 콩쿠르를 앞두고는 걷기 힘들 정도로 골반이 아팠다. 우여곡절 끝에 로잔에는 도착했지만 심한 감기까지 겹치는 바람에 연습은 엄두도 못 냈다. 로잔콩쿠르는 아픈 무용수의 출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박세은 역시 주최 측에 의해 만류되었다. 그녀는 간신히 의사의 허락을 받아 맨 마지막으로 무대에 설 수 있었다.

그때 대회장에서는 '이것으로 출전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정정 멘트가 울려나왔다. 이에 맞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이 일어섰다가 다시 의자에 앉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박세은은 그 모든 악재를 떨쳐버리며 날아올랐다.

ABT2에서 국립발레단으로

로잔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덕에 박세은은 자신이 원하는 발레단의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가 택한 곳은 세계 최정상급 발레단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세컨드컴퍼



아직 옛된 모습의 박세은. 그러나 그녀의 내공은 만만치 않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다. 발레 여왕의 지위를 획득할 서열 1위의 공주라 칭해도 되지 않을까.

니였다. 세컨드컴퍼니는 큰 무용단에 소속된 작은 무용단으로 젊은 무용수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녀가 들어간 ABT2 역시 16세에서 20세까지의 젊은 무용수들로 이루어졌다. 어린 무용수들이 있다고 실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박세은처럼 역량을 갖춘 미래의 스타들이 거쳐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박세은은 ABT2에서 탄탄하게 공연경험을 쌓으며 프로 무용수로 우뚝 설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올해 갓 스무 살의 박세은은 귀향을 결정했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입단허가와 국립발레단의 특채 중에서 그녀가 택한 것은 후자였다. 그녀는 국립발레단에서 보다 굵직한 출연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특히 자신을 환호하는 관객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실, 박세은과 국립발레단의 인연은 남다르다. 그녀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본 것을 계기로 발레에 입문했고 처음 발레를 배웠던 국립발레단의 문화학교에서 최태지 단장을 만날 수 있었다. 최태지 단장은 이번에 그녀를 특채로 불러들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국립발레단이 박세은을 특채로 뽑았다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박세은은 프로 무대에서 첫 발을 코르드발레(corps de ballet, 군무진)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녀 자신도 “반짝스타가 되기보다는 그 동안 했던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탄탄하게 밟아 올라가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특채로 들어온 단원들이 주역으로 올라갔던 전례를 볼 때 그녀의 앞날은 밝다.

프로다운 욕심쟁이

어떤 무용가를 좋아하느냐, 어떤 무용가처럼 되고 싶은가에 대한 물음에 박세은은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질리안 머피를 꼽았다. 질리안 머피는 ABT의 간판 무용수로 기교, 표현력, 무대장악력 그리고 자기 관리에 있어서 찬사를 받는 세계 최정상급 발레리나다. 서른 살의 질리안 머피는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질리안

머피는 백조뿐만 아니라 팜프파탈(요부)의 흑조 역을 잘 표현하기도 유명하다. 박세은이 주로 〈지젤〉, 〈라 바야데르〉, 〈잠자는 숲의 미녀〉를 통해 깨끗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연기의 폭을 넓혀가고 싶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박세은은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에서 선보일 흑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다. 아직은 앳된 흑조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그녀의 프로다운 욕심만큼이나 활짝 열려있다. 올해 국립발레단 프로그램인 〈지젤〉, 〈차이코프스키〉, 〈왕자 호동〉,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에서 박세은이 어떤 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 기대해보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프로가 된 지금부터가 박세은에게는 시작점이다. 지금까지의 훈련과 수상과 경험은 모두 프로 발레리나로서 우뚝 서기 위한 것이다. 박세은은 내심 서른 즈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그녀는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른다. 수줍어하면서도 “프로 세계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경쟁자일 수밖에 없어요. 남이 더 잘하는 부분은 본받고 내가 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낄래요.”라고 야무지게 말할 줄 아는 그녀에게서 준비된 스타 발레리나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및 글 | 심정민

무용평론가이자 비평사학자. 저서로는 「서양 무용비평의 역사」(2001), 「무용비평이란 무엇인가」(2004), 「20세기 전환기의 무용변동과 가치」(2007)가 있다.

사진 | 손승현

한국인을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글, 비디오, 영상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 광주비엔날레, 뉴욕의 데니스 비브로 파인아트,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에세이로 기록한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가 있다.

문화를 나누는 손
문화교육을 선도하는
기업문화경영의 전도사
홈플러스 전무 설도원
인터뷰

문화교육을 선도하는 기업문화경영의 전도사

홈플러스 전무 설도원 인터뷰



이제 문화예술교육을 받으려면 대형마트를 찾아가라. 한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의 대표주자 홈플러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문화 교육을 원한다면, 홈플러스 문화교육프로그램을 들춰보면 된다. 당신이 필요했던 것 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문화경영 본보기, 홈플러스의 설도원 전무를 만나 보았다.

홈플러스의 문화경영은 유통업계에서 할 수 있는 문화 경영의 본모습을 보여준다. 1999년 처음 설립할 당시부터 유통업체라는 특성을 살려, ‘문화교육경영’을 기치로 내세웠다. 당연히 홈플러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공헌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문화센터 운영이다.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어 어린 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프로그램 되었다. 이는 당시 매우 새로운 기업사회공헌의 형태였다. 특히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을 보유한 유통업체이기에 수도권과 지역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맞춰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전국에 91개(2009년 4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한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약 5천 명으로, 종합대학교 강사 수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문화센터 외에도 홈플러스 열린 갤러리를 운영해 올 상반기에만 130여개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작가, 신진 예술가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기회를 마련했다.

홈플러스의 문화교육 경영은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한국메세나협회의회로부터 2년 연속 문화예술지원기업 2위에 선정되었으며,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평생학습대상 외에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한국일보 주최)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 메세나대상 수상

Q. 여러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 특별히 문화교육경영 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반면, 아쉬움도 많은 부문이 문화교육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동질의 강사와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시설과 기회의 공급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91개 문화센터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및 6대광역시 점포가 70%이고 지방 중소도시점포가 30%이다.)

Q. 홈플러스 문화센터가 소비자에게 호응이 높다. 어떠한 강좌가 주로 이루어지는가.

홈플러스 문화센터 강좌는 영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음악·요리 프로그램, 전문인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의 성인강좌가 30%,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강좌가 70%를 차지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족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가족 강좌군과 지구 온난화 극복을 위한 환경강좌군을 강화해, 홈플러스만의 특화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Q. 홈플러스 문화센터 강좌 중 70%가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다. 어떤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영아(0~4세), 유아(5~7세 취학 전 아동), 초등,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에 따라 언어(논술, 발표력 교실, 영어 교실 외), 과학·논리(과학실험, 레고, 로봇 교실 외), 음악·미술(아마테우스, 바이올린, 퍼포먼스 미술, 회화교실, 도예교실 외), 신체·사회성(베이비 마사지, 통합놀이, 발레, 유행댄스 외)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를 위한 강좌의 비중을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운영되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 1 어린이 난타교실
- 2 영유아 트윙클 영어발레
- 3 오감발달 놀이교실
- 4 아빠와 함께 케이크만들기 교실



있기 때문에 주 고객층의 비율 역시 일반 성인 보다는 가족단위의 고객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홈플러스의 수준 높은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고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홈플러스 문화센터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유통업체, 특히 동일한 업태인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센터는 입지여건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홈플러스의 경우 사회공헌이라는 운영 목적에 따라 대도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가 중소도시에도 문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강사와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홈플러스 문화센터가 다른 문화센터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강사와 차별화된 강좌프로그램, 강사교육, 친환경 시설과 프로그램,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문화센터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준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문화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무엇인가.

자녀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아 대상(0~36개월) 강좌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오감발달 놀이, 신체발달 놀이, 음악 놀이, 퍼포먼스 미술 등 영아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감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은 매학기 마감되는 강좌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강좌(케이크 만들기, 미술 체험전 외) 역시 홈플러스 문화센터의 인기강좌입니다.

Q. 문화센터에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들만 5천여 명이다. 이들은 어떻게 선정되며,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는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라는 강사채용 프로세스에 의해 철저히 검증된 분야별 전문가들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평생교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연구소, 협회, 교수 등 순수 학문 연구 종사자들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홈플러스 문화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민간기관(기업)이 담당하는 국내 최고의 문화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남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홈플러스 문화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센터를 통한 문화경영이 기업 사회공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홈플러스 회원들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의의가 있는가.

문화축제는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학기별로 진행됩니다. 즉 음악, 댄스, 무용 등 장르에 관계없이 회원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문화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문화축제는 회원들이 수강한 강좌에 대해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자, 강사와 회원, 회원과 회원, 홈플러스와 회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커뮤니티의 장이기도 합니다.



문화경영사례 전파

Q. 몇몇 점포에 ‘홈플러스 열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해외 미술 명품전〉,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한국 민화전〉, 〈문화센터 회원전〉 등과 같이 매월 새롭게

기획되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우 예술가, 학생, 지역 예술인들에게 갤러리를 무상 대여하고, 전시 작품을 판매하면서 지역 예술 활동을 후원 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의 전시 중 호응이 좋았던 전시가 있다면.

2006년 12월~2007년 4월까지 북수원, 구미, 마산 등 5개 점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해외 미술 명품전〉(피카소의 삶과 예술 / 배병우 사진전 / 개항기관화전 / 해외 명품전)을 들 수 있습니다. 위 5개점에서 총 1만 1천여 명 이상의 고객이 전시를 관람 했습니다.

매년 6월에 진행되는 〈e파란 환경 그림 수상작 전시〉도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9개점 갤러리에서 기획되는 연평균 160여 회의 전시회 모두 고객들의 따뜻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Q. 다양한 문화교육경영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소비자(수강생)들이 지금의 문화경영을 ‘사회공헌’의 일환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영업활동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홈플러스의 문화경영이 정부의 정책상 지원과 관리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는 것입니다.

※ 본 기사는 서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터뷰 및 글 | 전지영 기자

전 월간 〈피아노 음악〉 객원 기자, 〈뉴스컬처〉 객원기자
현재 〈문화+서울〉 고정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 홈플러스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

하노버 기계산업박람회

2009 동반국가 문화행사

〈Made in Korea〉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

하노버 기계산업박람회 2009 동반국가 문화행사 〈Made in Korea〉



외국인은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또한 한국인이 느끼는 한국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국땅 독일에서 대형 한국미술 전시가 열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40팀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독일 하노버의 폐점된 백화점 건물에서 진행됐다.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형 한국 미술 전시가 열렸다. 하노버는 세빗(CeBit) 등 세계적인 박람회의 도시로 유명한데, 이번 전시는 하노버 기계산업 박람회(4월 19일-24일)에 한국이 2009년 올해의 동반국가(partner country)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히 마련된 행사다. 올해 62주년을 맞은 하노버 기계산업박람회는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이 참가해 연평균 50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 최대의 기계·산업 설비 박람회이다.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동반 국가로서 이번 메세에 참여해 우리나라 산업이 약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문화행사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산업과 문화가 서로를 견인하는 효과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하노버 기계산업박람회 2009 동반국 문화행사의 총감독으로 김정화 교수(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가 선임되었고, 미술전시·도서전시·영화제·한국교육 키트 등 4개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이중 한국현대미술 전반을 알리는 <Made in Korea>(4월 16일~5월31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현대미술, 사진, 디자인을 모두 아우르는 <Made in Korea>는 하노버 시내 중심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월 폐점된 진 레퍼즈 백화점(Sinn Leffers, 1층 지상 4층 건물)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했다. 하노버 현대미술센터(Kestnergesellschaft)와 협력해 진 레퍼즈(Sinn Leffers) 백화점 4개 층을 한국현대미술관으로 전환한 <Made in Korea>의 전시공간은 8114㎡(약 2450평)이다. 한국미술

의 오늘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전시제목은 과거 수출국가 한국을 상징하던 말, 'Made in Korea'로 붙였다. 전시 제목처럼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40팀의 작품 260여점이 '한국의 예술적 정체성'을 담아냈다. 전시공간이나 출품작으로 볼 때, 단연 비엔날레 수준의 대규모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전시는 각각의 주제 하에 3개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먼저 <여가? 위장된 오락>(큐레이터 박만우)이란 주제로 지하에는 미디어아트작품이, 1층에는 설치와 평면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 전에는 고승욱, 릴릴, 박찬경, 배영환, 사사, 성민화, 임민욱, 조습, 플라잉시티, 함경아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3층에는 <쇼핑의 기술>(큐레이터 김상규)이란 주제로 낫씽디자인, 이상진, 박진우, MMMG 등 9팀의 디자이너들이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쇼핑에 대한 습관과 편견 등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사진전은 <Magic Moment: Korea Express>(큐레이터 박수진)라는 주제로 15명의 작가와 2개의 팀이 한국 사진작품을 2층에 전시했다.



하노버 기계산업박람회 2009 동반국가의 문화행사로 마련된 <Made in Korea>는 한국현대 미술 전반을 알리는 대규모 미술 행사로 미술, 사진, 디자인 작가 40팀의 작품 260여점이 전시되었다. 하노버 현대미술센터(Kestnergesellschaft)와 협력해 진 레퍼즈(Sinn Leffers) 백화점 4개 층을 한국현대미술관으로 전환한 전시장 모습

전시장 2층의 사진 전시 <Magic Moment: Korea Express>의 전시장 인트로 모습.
전시 소개 글 옆에는 노수택의 <알웃한 꿈>이 전시되었다.



필자가 기획한 사진전시인 <Magic Moment: Korea Express>는 한국의 현대사진작품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 현대 사진의 단면'을 씨 실과 날실로 엮어 독일에 소개하고자 했다. '한국', '정체성'과 같은 단어는 매우 모호하고 보편적이다. 어쩌면 외국인들이 쉽게 한국이란 실제와 접하게 하는 것은 한국산(韓國產) 사물, 사건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어떤 특수한 사물, 사건과 마주치면서 '한국' 혹은 '한국성'이라고 할 만한 보편성을 나름대로 만들어 간다. 아마 독일이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을 텐데, 독일 관객들이 한국의 현대 사진을 통해 가공하지 않은 날 것으로 한국을 대면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적인 상황, 사람들의 일상 등을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 또한 전시 공간이 무척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작품을 전시장에 맞춰 다시 제작했으며, 관람객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유리를 제거해, 관객과 작품의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했다.

전시의 부제이기도 한 'Korea Express'는 '표현'과 '급행'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보편성과 그 구성적 예외 간의 역설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상징적 현실의 모순과 비정합성이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그 분열을 은폐하는 지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구한말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 후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적 표현(Korea Express)'이라 하면 대체로 전통적인 한국적 관념과 정서라고 여겨지는 절제, 고요, 관조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문호개방 이후 우리는 일제식민시대, 한국전쟁, 한강



의 기적, 민주화운동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격동의 시대를 지나왔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기는 여전히 “모닝칼름(morning calm)”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동방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선전했다. 2002년 온 나라를 붉게 물들인 월드컵은 사고와 존재의 불일치를 분명하게 드러낸 판타지의 향연이었다. 월드컵은 한국을 갑작스럽게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성향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며, 그런 점에서 전환의 순간이다. 다시 말해 모두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했던 진실을 갑작스럽게 인정한다는 것은,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의 전환이며 전도이다. 이 같은 관점의 전도에서 무의식의 역사성이 부각된다.

전시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와 아름다움의 표현 뿐 아니라, 다른 한편 급행이라는 의미에서 ‘역동적인

한국적 정서’, ‘때론 서투르게 또는 과잉되게 서두르는 현대 한국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극단의 지점을 서로 대면시키고 그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고자 했다. 일반적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전혀 다른 의미. 어쩌면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은 굉장히 강렬한 만남의 순간이며 이런 만남의 순간을 magic moment라고 보고 단락 short circuit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했다. 이 순간이야말로 보편성이 구체화되는 순간이다.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

하노버 기계산업박물관회

2009 동반국가 문화행사

〈Made in Korea〉

전시는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상황(노순택, 손승현+김영철, 백승우, 박경주, 아! 태극기), 한국 사람들(구본창, 임홍순, 윤정미, 이은중, 이병호), 한국의 풍경(배병우, 강홍구, 이상현, 김종구), 경계에서의 여러 만남과 환상(정재철, 정연두, 홍범)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작품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 한국적 표현이라는 구체적인 보편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시점의 풍경이나 개인의 일상과 같은 구체적인 것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전환적 장면이 포착되는 미술적 순간을 보여준다. 이렇듯 magic moment는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불가능한 순간들이며 동시에 이 불가능성이 의미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의 이데올로기, 정체성과 대면하는 magic moment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흰 벽면을 대신해서 신문을 도배하여 낯선 전경의 전시장을 연출했다. 한국 신문이 현재 한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국의 현대를 보여주는 사진작품과 신문이 겹쳐지면서 여러 의미들을 생성해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신문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꾸로 붙여졌다. 첫 번째 이유는 신문이 가지고 있는 문자와 사진이 한국어를 몰라도 쉽게 이미지로 읽혀져 작품관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우리사회의 기표로서의 신문을 뒤집어 붙여서, 우리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어 보자는 의도였다.

덕분에 전시장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얼마 전 김정화 전시감독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전이 특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중략)... 하노버 인근 미술대학 교수들이 와서 보고는 '하노버에서 지난 30여 년간 본 전시 중에 최고'라고 칭찬했어요."라고 평하기도 했다. 개관 첫날에만 전시장을 찾은 관객이 1,300명이었고 그 주말에는 1,500명이 더 다녀갔다. 전시가 이미 중반을 넘어섰는데 지금도 많은 관객이 전시

를 관람하고 있다. 인구가 4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찾아간 셈이다. 독일 관객들은 매우 진지하고 꼼꼼히 전시를 보고 반응했는데, 어떤 독일 관객이 거꾸로 붙여진 신문 가운데 실수로 바로 붙여진 몇 장을 발견해낸 후, '이 부분은 보수적인 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문화행사인 출판전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월인천강지곡의 영인본 등 고서 64점과 어린이용 도서 150점 등으로 꾸며졌으며 영화제는 '밀양' '워낭소리' '똥과리' 등 화제의 한국영화 9편이 상영되었다. 또한 하노버 시장은 〈Made in Korea〉전의 공식 오프닝 행사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다음날 시청에서 리셉션을 마련하여 한국에서 온 문화행사 관련자들을 초대하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축하했다.





1

- 1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아 태극기>가 영상 설치됐다.
- 2 배병우의 <소나무>가 전시된 모습
- 3 <Made in Korea>의 공식 개막행사. 하노버 시장이 참석하여 전시를 축하했으며 개막 첫날 1300여명이 다녀갔다.



2



3

글 | 박수진

박수진은 <Made in Korea>의 사진전인 <Magic Moment : Korea Express>의 큐레이터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아트스페이스 · 학교재에서 선임큐레이터, 세종대학교 언론홍보대학 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불광천 프로젝트>(서울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자연과 함께, 전통과 더불어>(서울시 초등학교 공공미술프로젝트), <2007 창원 아시아 아트 페스티벌> 등을 기획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추진단에서 통합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 | 구분창, 손승현

구분창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졸업하고 함부르크 국립 조형미술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였다. 일본-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보도사진가 100인 초대전(1985, 86) 미국 로체스터 대학 초청 2인전(1990) 11월전-한국사진의 수평전(1991, 장흥 토탈미술관) 미술과 사진전(1992, 예술의 전당) 등 다수의 그룹전에 출품하였다. 2008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전시감독을 역임했고 현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다.

손승현

한국인을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글, 비디오, 영상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 광주비엔날레, 뉴욕의 데니스 비브로 파인아트,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에세이로 기록한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가 있다.

Don't Forget to eat!

서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외국인에게 보이는 서울의 매력은 많다. 샘 해밍턴은 그중 음식 문화를 꼽는다. 불판에 지글지글 구워먹는 갈비, 육수를 들이키면 이가 알싸하게 시려오는 냉면, 제 자리에서 직접 떠 먹는 회, 꼭 두어 번 씹고 넘기길 부탁하는 짜꾸미까지. 우리가 그저 일상 먹거리라 생각했던 이 음식들이 호주인 샘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천만 명이상이 거주하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군중 속에서 길을 잃기가 쉽다. 나 또한 이런 곤란함을 종종 겪곤 하는데 7년 이상을 이곳에서 거주한 지금은 서울 안에서 나만의 장소들을 몇 군데 발견하게 됐다. 호주 멜버른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서울과 같이 밤낮이 따로 없는 도시에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제일 흥분되는 일이었다. 새벽 3시에 동대문 야시장에 가서 새 운동화를 사고, 홍대에서 날이 새도록 춤을 추거나,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신당동의 매운 떡볶이 한 접시 혹은 포장마차들이 즐비한 곳에서 밤늦게 소주를 들이키는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로웠다.

긴 시간 이러한 재미를 즐기고 난 후, 나의 일상은 매우 단조로워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다. 북창동의 한옥마을을 거닐며 느긋함을 즐긴 뒤 삼청동으로 가는 길에 신선한 레몬 꿀차를 맛보는 것보다 휴식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음식문화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한 단면이다. 한국의 요리들은 늘상 갈비와 함께 언급되는데, 테이블 위에 당신만의 불판을 두고 원하는 만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거기에 삼겹살을 올려놓고 소주한잔과 같이 먹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매일 저녁 계절에 상관없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 자리를 즐기는데, 본인은 특히 눈 오는 겨울밤에 묘미가 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또한 완벽한 여름음식이 있으며, 이는 나의 개인적 선호식품 중 하나다. 서양 사람들 대부분은 얼음장 같이 찬 국수를 즐길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매우 습한 여름에 신선한 냉면 한 그릇은 나를 지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소고기 육수와 간 얼음, 식초, 겨자 및 고추장을 곁한 면은 미식가들에게는 필수품이다.

그러나 진정한 서울 음식문화의 경험은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24시간 영업하는 수산물 시장에서 당신은 도시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경우 시장 안 음식점에서 직접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수조에서 원하는 물고기를 결정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그 어느 곳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신이 고른 물고기가 눈앞에서 정교하게 회 떠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즉석에서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에 군침이 돈다. 거기다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신선한 짜꾸미(작은 문어)를 산채로 통째 입에 넣는다면... 한국을 방문한 미식가라면 필수로 먹어봐야 하는 음식인데, 계속 씹고 또 씹은 후 마지막으로 몇 번 더 씹어야 함을 명심하라!

Don't Forget to eat!

In a city like Seoul, with a population of over 10 million residents, it's easy to get lost in the crowd. This is an issue that I find myself dealing with on a regular basis, but after having spent more than seven years living here I've found my own little pieces of Seoul that keep me sane.

Having come from Melbourne, Australia at first living in a city that never sleeps was the most exciting thing I had ever done. Being able to choose to go and buy a new pair of sneakers at 3am at the Dongdaemun night markets, shaking your money maker till the sun rises in Hongdae, a huge plate of spicy ddeokbokki from Sindangdong 24/7 or a late bottle of soju at any of the soju tents around town were all very foreign concepts to me.

After having partaken in activities like tha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ings started to get monotonous, until I discovered some of the real beauty of Seoul.

There is nothing more relaxing than taking a stroll through the Hanok Village in Bukcheondong, followed by a cup of fresh lemon honey tea on the way to Samcheongdong.

But one part of the local culture that doesn't get given enough recognition is the food culture. Korean cuisine wouldn't be what it was without the Korean BBQ, where else do you get your own hotplate at the table to be able to cook the meat as you want? Pork belly is the real way to get it done, while washing it down with a glass of soju. An all year round evening to be had with a group of friends, but I find it all the better on a cold snowy winter night.

Of course to counter that is the perfect summer dish, and I'll admit it's my personal favorite. Most people from the west may struggle with the concept of eating cold noodles, and I mean icy cold. In the wildly humid summers it's the refreshing Neangmyun that keeps me from expiring. A beef broth, with ice shavings, vinegar, mustard, chilli sauce and noodles it's a must for any foodie.

But possibly the greatest food experience in Seoul is the Noryangjin Seafood Market. Open 24 hours not only can you get the freshest seafood in the capital whenever you want, you can eat it in the markets at one of the restaurants. Imagine going to a fish tank and deciding on the fish that you want to eat for your meal. Pick it out and then watching it being delicately sliced in front of you, then being able to eat it almost immediately for a much smaller price than you would pay elsewhere. The thought of that while writing this is making my saliva glands work overtime. Coupled with possibly the freshest food in the world, a small live octopus that is eaten whole. A must for food lover that visits Korea, just remember to chew and chew then chew some more, and finally just a few more chews!



글 | 샘 해밍턴

서울의 코미디언이자 예술인으로 현재 TBS eFM 101.3(<http://www.tbsefm.seoul.kr>)의 '드라이브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조 진행하고 있다.

Swinburne 대학교에서 마케팅과 한국학을 복수전공한 후 2002년 서울로 이주했다.

Sam Hammington

Sam Hammington is a comedian/entertainer in Seoul, and is currently co-host of 'Drivetime' at TBS eFM 101.3(<http://www.tbsefm.seoul.kr>).

He moved here to Seoul in 2002 after completing a double major in Marketing/Korean Studies at Swinburn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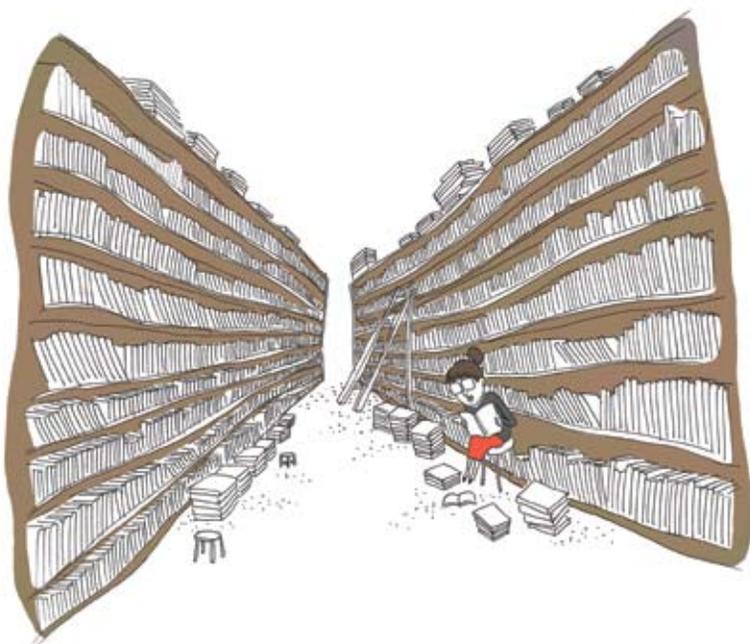
헌책방에 가면 열애가 있다

무기력하고 심드렁하기만 한 5월의 어느 날. 문득 새로운 내가 되어 헌책방에 발을 딛는다. 그곳에는 봄기운 탓에 잊고 지냈던 삶을 향한 열정이 빼곡히 그리고 촘촘히 쌓여있다.

오월의 공기가 서울을 감싼다. 이맘때쯤이면 언제나 일상과 상관없는 과도한 무언가를 바라게 된다. 애절하거나 뜨겁거나 순간적이거나 알싸한 그 무엇.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그것도 아니면 방구석에서 어서 날이 더워지기를 고대한다. 항상 결론은 셋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헌책방에 가는 것. 사실 새로운 취미랄 것도 없다. 한때 헌책방을 찾아가는 모임에 가입한 적도 있다. 마음에 드는 헌책방도 있다. 취미 생활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실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하철을 탄 후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첫째 날은 용산의 '뿌리 서점'에 들렀다. 집에서 용산까지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검정색 셔츠를 입고 무릎길이의 치마를 입고 검정 스타킹을 신는다. 7cm의 하이힐에 검정 테 선글라스. 긴장을 숨기고, 무심한 표정으로 유리에 비친 실루엣을 살핀다.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이해한다는 투의 몸짓으로 지하철에 오른다. 힐이 지하철 바닥에 닿는 순간, 뿌리 서점에서 찾을 사람은 마르그리트 뒤라스라고 떠올린다. 번역된 작품들의 대부분은 예전에 읽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필요한 이유는, 언제나 같다. 축축함, 열기, 그리움, 견뎌내는 자세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뿌리 서점의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어떻게든 한 권은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예전에 번역된, 영화 사진이 함께 있는 '연인'을 아주 쉽게 찾는다. 뒤라스가 소개된 이후로 각양각색의 출판사에서 '연인'을 번역했다. 그래서 헌책방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아마도, 이 책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어느 밤에 누군가를 불러낼 것이다. 그리곤 다시는 안볼 사람에게 책 선물을 하는 것처럼 건네는 것이다.

둘째 날은 신촌의 '숨어있는 책'이다. 신촌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나에게 다정한 장소도 사람도 없었다는 기억만 있다. 이곳에서 시작된 술자리는 항상 과음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한 밤중 잡히지 않는 택시, 술 취한 사람들, 바닥을 뒹구는 쓰레기들을 떠올리면 다시 곱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 곳이 내게 신촌이다. 그



래서인지, 몇 번을 망설인다. 그러나 신촌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로 한다. 사실 '숨어있는 책'은 헌책방 중 가장 많이 간 곳이기도 하다. 책이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고 필요한 책들도 많이 구한 곳이다. 게다가 항상 같은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시던 주인 아주머니(라고 하기엔 젊으시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번에는 남색 레깅스를 고른다. 위에 흰색 루즈 티셔츠를 걸치고, 빅 백을 들고, 가보시 힐을 신는다. 요즘 대부분의 이십 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난 그냥 알 수 없는 우연을 기대하는 평범한 여자다. 조금 외롭고 약간 공허하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본다. 윤대성 희곡집, 1990년 청하 발행. 그 안에 '사의 찬미'가 있다. 현해탄에 몸을 던진 우리나라 최초의 표현주의 희곡 작가 김우진과 가수 윤심덕의 이야기다. 김우진의 부인을 향한 윤심덕의 증오, 가질 수 없는 남자에 대한 갈증, 시대를 앞선 예술가의 좌절이 향한 곳이 현해탄이다. 현해탄의 검은 물을 바라보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작가의 픽션일 뿐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왜, 지금, 이렇게? (윤대성 희곡집 초판의 '사의 찬미'는 헌책방에 가야 있다)

셋째 날은 이문동의 '신고 서점'이었다. 학교 근처다. 꼭 가야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나가버린다. 아마 새벽 세시가 문제일거다. 방 안에서 혼자 맞는 오월의 공기에는 확실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한다. 대신 무작정 첫차를 타게 만든다. 갈 곳은 학교뿐이다.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고, 아홉 시가 되길 기다린다. 학교에서 슬렁슬렁 시간을 보내고, 신고 서점으로 향한다. 새벽에 뛰쳐나왔기 때문에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포인트로 머물러가 있다. 왜 이렇게 옷이 중요할까를 생각한다. 여전히 희미한 상태인 나와, 금새 우울해지는 나, 불안과 걱정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 옷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오월의 날씨에, 서울이라는 곳에서, 맨 몸으로, 맨 정신으로 되찾아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생각에 잠겨 서점 바닥을 훑어 내리던 중,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았던 안노 모요코의 만화 '해피 마니아'가 구석에 쌓여 있는 것을 본다. 비록 권은 아니었지만, 이게 무슨 황제인가 싶다. 그녀의 만화는 한국에서 거의 품절 상태다. 주인공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으로, 계속되는 연애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집요하게 추구해 나간다. 심지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연애'하고 싶다는 열망을 불태우며 끝을 맺는다. 삶에 대한 그녀의 추진력이 내게 그대로 전달된다. 주인공은 행복과 사랑, 그것 말고 삶에 무엇이 더 있느냐고 묻는다. 온 몸의 세포를 분해하고, 불태우고, 폭풍 속에 몸을 맡기고, 다시 따사롭고, 냉정을 겪는, 삶 그 자체인 것들. 여름이 지나고, 가을 그리고 겨울, 겨울, 오월이 와도 겨울. 그러나 오월의 공기는 내가 잊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무언가를 집요하게 추구해 나갔고, 그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렇구나, 오래전부터, 오월에, 나는, 무기력해 있었던 거구나. 헌책방으로 떠나길 잘했다.

글 | 정주영(오픈리포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전문사 과정에 있다. 유티, 비트, 히트, 뮤트를 윤리 삼아 기억에 남는 글을 쓰고 싶어하는 레이디

일러스트 | 문보경

카투니스트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단행본, 잡지, 문구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

재단사업

꿈꾸는 나이란 없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워크숍 현장 및 2009 사업 일정

문화예술이 노인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줄곧 노인을 문제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골치거리로 치부되었던 노령 인구의 삶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문화재단은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년의 삶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격려와 희망, 현실적 대안을 전하는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갈 단체대표와 강사들의 진지한 고민이 녹아난 워크숍 현장을 찾아가봤다.

서울문화재단은 2008년부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라는 이름의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 특별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2009년도에는 서울 곳곳의 문예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20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4월 29일에는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20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단체대표와 강사들이 함께 노인생애 체험 및 특강을 가졌다. 이 특강을 통해 어르신을 이해하고 향후 진행될 노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노인문화이해 및 어르신과의 의사소통 특강 <유경 강사>

먼저 유경 강사(사회복지사, 가천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는 ‘노인문화 이해 및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노년에 이르면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문화예술활동은 사회적 역할 상실, 심리·정서적 문제(고독과 소외) 해결에 큰 도움이 되므로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프로그램이 많이 기대된다고 했다. 더불어 참여강사들이 어르신들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 등을 잘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춰 서로 소통하면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노하우를 열정적으로 전달했다. 유경 강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노화현상에 대해, 시각·청각·미각·후각 등의 감각이 전체적으로 둔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며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인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 어르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에 어르신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인생애체험센터에서 어르신의 신체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강사들은 팔, 다리, 손목, 발목, 허리, 눈 등에 각종 체험장비를 착용하고 80대 노인의 신체를 2시간 동안 직접 체험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1



2



3

1, 2, 3 휠체어, 냉장고, 식탁에서 진행된 체험현장

이어진 2008년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시연 시간에는 ‘국악누리’가 ‘진도아리랑’을 이용해 어르신 대상 국악뮤지컬 교육을 시행한 수업내용을 선보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여러 강사들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만의 특성에 대해 서로 질문도 하고 노하우도 공유하며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의 성공적 운영을 다짐했다.

청춘예술대학은 기존에 주로 시행되어 온 장르별 기량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탈피해, 창의적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또한 예술 장르 간 통섭(연극+공공미술, 음악+무용 등)과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노인들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특히 교육 참여를 통해 동아리를 생성하거나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년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개인적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나눔 활동을 진행하면서,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지속교육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류,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발표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80대 <노인생애체험>에 참여한 참여강사



2008 우수사례 시연 -국악누리 <강사들의 공연으로 민요배우기>



2008 우수사례 시연 -국악누리 <강사들의 공연으로 장단놀이 배우기>

글 | 변노수(실버넷뉴스 기자) · 남미진(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필자 변노수는 실버넷뉴스 편집국 국장이며, 장애인 방문정보화강사 및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프로그램〉

사업구분	자치구	교육장소(주최기관명)	분야	단체명(주관단체명)	사업명
심화	강남구	강남구청(지역주민센터)	교육연극+ 창작뮤지컬	나눔연극연구소 소풍	꽃피는 신사동의 인생사 노래극 "열씨구 절씨구 좋씨구"
신규	강남구	논골노인	복지관	통합예술교육	한국라반 움직임연구소 움직임으로 세상을 바꾼다! 시니어 프로젝트 <봄날을 찾아서>
신규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미술 (공공미술)	고도아트	공공미술 우리 마을
신규	강서구	등촌1 종합 사회복지관	뮤지컬	극단 진동	어르신들이 만드는 창작뮤지컬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신규	노원구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미디어 영상교육	(사)미디어영상 교육진흥센터	"실버세대, 문화의 중심에 서다" -어르신 UCC
심화	양천구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음악 (악기연주)	(사)탈북문화 예술인 총연합회	아코디언 교육 및 통일문화놀이 프로그램 "신나는 청춘음악대학 Season II"
신규	용산구	용산노인 종합복지관	영화·영상	황보영화 교육연구소	어르신들의 추억과 꿈을 찍다 영상자서전 UCC 만들기!!!
심화	중구	약수노인 종합복지관	영화·영상	황보영화 교육연구소	어르신들의 추억과 꿈을 찍다, 레디~액션!!!
심화	마포구	마포문화재단마포아트센터	통합예술교육	교육극단 아름다운 뜨락	유쾌 상쾌 통쾌한 볼로장생 열린 연극교실
신규	성북구	정릉종합 사회복지관	통합예술교육	교육극단 아름다운 뜨락	기슴 뛰는 인생 2막 1장
신규	마포구	성미산 마을 극장 및 연습실	교육 연극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어르신들이 만드는 연극 -Senior Theatre "내 말 좀 들어봐"
심화	은평구	은평문화 예술회관	국악뮤지컬 창작	국악교육연구소 국악누리	국악뮤지컬 교실-그 두번째 이야기
신규	종로구	종로구민회관	국악뮤지컬 창작	국악교육연구소 국악누리	돌아온 청춘의 아름다운 도전 국악뮤지컬 만들기
신규	영등포구	구림영등포노인 종합복지관	국악 (국악놀이)	국악놀이연구소	세대를 잇는 <교방교방 국악놀이단>
심화	서대문구	서대문문화회관,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연극	극단 로얄씨어터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무대2 (가제:서울의 노래)
신규	서초구	까리따스방배 종합사회복지관	연극+무용+음악	극단 복새통	내 인생의 무대 속으로
심화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미디어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추라	라디오 실버스타
신규	중랑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층 강당	뮤지컬	예술공동체 스케네	소통하는 너티나무 중랑이
신규	은평구	갈현노인 복지센터	마임+예술	호모루덴스 컴퍼니	오늘 같은 날
심화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아트홀	오브제와 몸짓, 음악을 통한 통합예술교육	(사)한국문화 복지협의회	아름다움 안에서 함께 걷기

*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각 프로그램에 따라 40회 내외로 진행되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참여가 가능한 60세 이상 일반 노인)은 각 프로그램 주관단체에 문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2-3290-7133)

6 June

SUN	MON	TU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내 마음에 물주기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연극 만들기> (6/1~6/30) 정극 저도 번기 받았어요 <원작:번기> (6/1~6/21) 다원예술 2009 박미루전시/컨서트-지구의 노래 Part2 몽고고비사막의바람소리 (6/1~6/24) 연극 극단실험극장 제163회 정기공연 <죽기살기> (5/16~6/1) 연극 <해무> (5/23~6/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매듭 제8회 김은영 전승매듭 연구회 회원전 (5/27~6/2) 국악 2009년 대금연구회 제 9회 정기연주회 연극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극 워크숍 및 공연 (4/15~11/29) 한국무용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한국무용 (4/18~12/19) 공예 장애우 및 위탁시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우리의 전통염색 체험 (2/1~11/3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제10회 쿼어문화축제 (5/30~6/7) 창작극 <장석조네 사람들> (5/13~6/7) 정극 <들소의 달> (5/23~6/7) 연극 <코펜하겐> (5/15~6/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악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실내악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프랑스의 주요 작품들 실내악 정기발표회 및 앙르원 6회 봉사연주 활동 (2/1~12/31) 음악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통기타이야기 (2/1~12/31) 관현악 살뤼모클라리넷앙상블의 <찾아가는 클라리넷> (2/1~12/3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스티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4/9~8월) 시각예술 조선역사명상열전(3)-삼천궁녀 (6/9~6/28) 다원예술 2009Performing-Art건.곤.감.리 (6/9~6/2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일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영상교재개발과 순회강연 (3/1~12/31) 문화일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 교실 (3/16~12/19) 시각예술 Fishing on the flat (5/16~6/14) 정극 맥베드 (5/18~6/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악 H.Purcell 탄생 350주년, G.F.Handel 서거 250주년 기념연주 <영국의 바로크음악 100년> 무용 젊은이여, 춤으로 막힌 혈맥을 뚫어 창의마당에 상상의 날개를 퍼라!! (4/18~12/19) 연극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극 워크숍 및 공연 (4/15~11/2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예술공연 2009 100 페스티벌 (6/16~7/12) 시각예술 기계가 꾸는 꿈 <Machine Dreams> (6/16~7/2) 정보화 국영문 미디어아트 웹 EYEBALL 정보화사업 (1/1~12/3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일반 꿈꾸는 작은나무/ 생활속 문화예술 만들기 프로젝트(5/21~11/30) 시각 "09년 발달장애인의 웃음이 넘치는 풍경" (3/16~12/31) 시각예술 <Breathing in & out> (5/29~6/21) 음악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레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발레 <백조의호수> (6/22~6/23) 전통 2009년 하늘명문 열려라~' 자신발기교육 (3/10~12/20) 음악 2009 음악가들의 창작공간 (4/1~12/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무용 남무-여무 그리고 향3 <Old & New> 음악 전통가곡연구회 정가 및 창작발표회 (4/25~9/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일반 우리동네 전통 상설 놀이판/쉬웠다 가자! (3/28~10/24) 실내악 클랑트리오 정극 <짬뽕> (4/30~6/28) 다원예술 뻘뻘에 친구: 잃어버린 글씨 (5/12~6/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일반 지하철예술무대 <SUBWAYTHEATER> (3/1~12/31) 공연 Jazz Park 공연 (1/21~12/16) 전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4/9~8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일반 나를 그리는 시간 '10시와 13시 사이' (총 24회 교육 및 전시/2회워크숍) (3/2~6/30) 음악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 Symphonic Haydn Series <The Original>-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 생활속예술지원사업

■ 시민축제지원사업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서울오페라극장 창동 공연정보

WED	THU	FRI	SAT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6/3~6/6) ■ 영화 다이애고날 필름 아카이브 실험영화 Artist's film & videO 정기 상영회 (1/1~12/1) ■ 영화 문래3가, 독립영화 정기 상영회 (1/31~12/19) ■ 사진 <09년 발달장애인의 웃음이 넘치는 풍경> (3/16~12/31)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시의 부적절한 만남 / 미디어로서의 작가 (5/4~10/19) ■ 시각예술 Into Drawing 10-박혜수 展 (6/4~6/28) ■ 영화 실험영화 워크숍 <Hand-made filmmaking wOrksOp> (1월~6월) ■ 시각 아트메신저-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예술체험과 소통 (5월~12월) ■ 관악 서울교사관악합주단 제3회 사자동행연주회 (2/1~12/31)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드림 앤 비전 댄스페스티벌 2009 (6/5~7/11) ■ 관현악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악회 (4/5~12/20) ■ 국악 I. 피리양상불 디토와 함께하는 '우리들 세상' II.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5/5~12/24) ■ 국악 시조의 향연<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6/5~6/19) ■ 관현악 한빛 예술단의 '희망, 행복' 콘서트 (2/1~12/31) ■ 실내악 찾아가는 청소년 희망 콘서트 (2/1~12/31)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무용 MODAFE 2009(제28회 국제현대무용제) (5/26~6/6) ■ 관현악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제74회 정기 연주회 ■ 음악 시민과 함께하는 밝고 아름다운 음악회 (2/1~12/31) ■ 음악 윈드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 연주회 외 1건 (2/1~12/31) ■ 실내악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주 (2/1~12/31)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종이팔방수 展 (6/10~6/28) ■ 연극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옛보기> (2/1~12/31) ■ 문화일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영상교재개발과 순회강연 (5/1~12/31) ■ 문화일반 움직이는 문예회관 (5/1~9/30)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반 보따리 프로젝트 (4/16~6/11) ■ 전통무예 2009 택견배틀-천하제일 결연 택견패 결정전 (5/9~10/31) ■ 가악 구교임 거문고 매력 6 ■ 전통음악 이지영 가야금 연주회(이지영 음악극을 만나다)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가야금 <동상이몽> ■ 실내악 유테피 (Euterpe) 목관5중주 연주회 <오페라의 밤> 에피소드 I & II (4/14~7/25) ■ 실내악 서울 윤이상 앙상블 정기 연주회 제2회 및 제3회 (3/22~10/11) ■ 음악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멘델스존 시리즈> (3/10~6/12)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화 2009 제 3회 서울시민 한가죽(한그림)사생대회 (6/13~7/12) ■ 연극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만드는 신나는 연극프로젝트 <오랏차차> (4/13~12/14) ■ 국악 한국에서 우리음악 듣기 (가락 家樂) (6/13, 6/26) ■ 전통매듭 제12회 국제매듭전 (6/13~6/20) ■ 실내악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소망의 강> (6/13~6/20)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 김시형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 문화일반 대안공간 풀 저널/6페이지 발간사업 (1/15~12/15) ■ 연극 나눔, 희망한다지공연 <휘휘라락이야기보따리> (4/25~10/8)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2009 음악가들의 창작공간 ■ 음악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멘델스존이 땀> ■ 무용 김충한무용단 창작 무용극 <張禧嬪> (6/18~6/19)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반 노인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화, 동극과 전래놀이 보급 (4/24~6/19) ■ 시각예술 everything is fake (6/19~6/28) ■ 발레 퓨전발레축제 (4월 중~10월 중) ■ 국악 다문화 가정 문화공감 프로젝트- 국악뮤지컬 (6/19~6/20)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 클라리넷 김희준 독주회 1,2,3(3회) (6/20~12/22) ■ 실내악 아카데미아 금관5중주단과 함께하는 금관악기의 세계 ■ 음악 고지연 가야금 프로젝트 <이건용의 가야금> ■ 국악 노름마치Festival ■ 다원예술 Indie Root - Live 10/10 (5/15~6/20)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찾아가는 참소리 소리마당(5/11~12/31) ■ 실내악 콰르텟엑스의 베토벤 백신 <QUARTET X presents BEETHOVEN VACCINE> (3/27~12/18) ■ 국악 한국에서 우리음악 듣기-<가락家樂> (4월 중~10월 중) ■ 전통무예 2009 택견배틀-천하제일 결연택견패 결정전 (5/9~10/31)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현악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악회 ■ 무용 창작발레 <몽유도원도> (6/25~6/26) ■ 다원예술 가제 "j-th time" (6/25~6/26)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 화음 프로젝트 (3/1~12/31) ■ 음악 정가(正歌) 일상 속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프로젝트-가객(歌客)과 취객(醉客)이 만나다 (3/1~12/31)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성 사업 삼각산 비둘기 타고 흐르는 문화 (3/7~10/24) ■ 실내악 해피비손 제5회 정기 연주회 ■ 음악 국악재즈의 팝 모음곡집 발매공연 <The Beyonders> ■ 시각예술 4회 개인전 (6/27~8/22) ■ 시각예술 박지훈 개인전 <One Day, One Deal> (6/27~7/19)

SFAC News

‘책 읽는 서울 Leader & Reader’

5월의 작가 김용택 시인과 만남 가져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도 ‘책 읽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일보·Yes24와 함께 독서캠페인 ‘Yes Book 책을 읽자 희망을 읽자’를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매월 저자와의 만남 ‘책 읽는 서울 Leader & Reader’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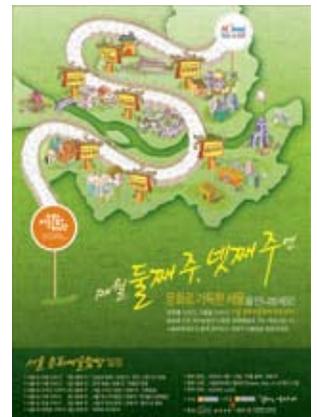
4월에는 약 80여 명의 독자들이 작가 노희경과 만남을 가졌다. 노희경 작가는 이 시간을 통해 글쓰기, 책, 드라마,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월에는 얼마 전 산문집 ‘오래된 마을’을 통해 자신이 육십 평생을 지내던 진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김용택 시인과 만났다. 그의 첫 산문집은 올해로 육십을 맞아 자연인으로서 인생의 2막을 열게 되었음을 알린다. 저자는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절망스럽고 아픈 농촌의 현실 속에서 자연과 공동체가 던져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행사는 5월 27일(수) 서울연극센터에서 열렸으며,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진행을 맡았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서울문화예술탐방’

다양한 주제로 마련된 6월 프로그램 신청접수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인들이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테마로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다양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6월 11일(목) ‘미술관 탐방’부터 시작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8일(일) 진행



되는 '대학로 연극투어'와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흥대 앞 재발견'을 마지막으로 매일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지고 서울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13일 진행되는 '디자인 탐방'에서는 예술길을 테마로 덕수궁돌담길, 서울역 사박물관 일대를 찾아가 익숙한 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 27일에 준비된 '우리동네문화탐방'에서는 서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간이역을 찾아가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역사 유적탐방, 연극 『이(爾)』와 함께하는 대학로 연극투어 등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문화재단 웹사이트(www.sta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02-555-6450)로 참가신청 및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일시	탐방 명	테마	탐방지
6/11 목	미술관 탐방	숨어있는 미술관 찾기	소마 미술관
6/12 금	문학 탐방	문인들의 자취를 찾아서	춘원 이광수 고택, 월탄 박종화 고택
6/13 토	역사유적탐방	정동의 역사를 찾아서	정동 러시아 공사관, 유관순 유물
6/13 토	디자인탐방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5-1번지	덕수궁돌담길, 정동돈의문, 서울역사박물관 앞
6/14 일	The Present of Seoul (외국인 투어)	예술의 길	Sinchon Bonwonsa
6/25 목	창작스튜디오 탐방	The head temple of Taegojong	고양 스튜디오
6/26 금	박물관 탐방	젊은 작가들의 창작공간	싯대 박물관
6/27 토	우리동네문화탐방	다양한 자물쇠들을 만나다	대흥동 일대
6/27 토	건축 탐방	도심 속 간이역	절두산순교박물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6/28 일	서울연극센터와 함께하는 대학로 연극투어	연극 『이(爾)』	대학로 일대
6/28 일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흥대 앞 재발견	흥대 앞 문화	흥대 앞 일대

서울열린극장 창동, 6월에도 가족 프로그램 준비 중

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동화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6월, 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와 동화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무대를 준비했다.

먼저 6월 3일(수)부터 6월 6일(토)까지 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가 무대에 오른다. '너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년 참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줄 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는 2007년 아시테니 겨울연극제에 초청되어 전회매진,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작품이다. 사람이 아닌 나무 사람들의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인형과 다양한 이미지의 시각화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극을 통해 아이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24개월 이상 입장가능하며 평일에는 4시, 주말에는 1시와 3시에 공연되며, 전석 2만원이다. 문의는 02-953-1245.

6월 22일(월), 6월 23일(화) 양일 간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발레 『백조의 호수』가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발레의 고전 레퍼토리 『백조

의 호수』에 대사를 넣어, 발레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다. 2007년과 2008년, 호암아트홀 공연에서 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들에게도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받았으며, 올해는 더욱 새로워진 춤과 음악으로 관객을 찾는다. 48개월 이상 입장 가능하며, 22일에는 오후 7시, 23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공연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기획 MCT(02-2263-4680) 또는 서울열린극장 창동(02-994-1469)으로 문의 바란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 6월 문화놀이 프로그램 환상의 놀이터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연극놀이 체험

‘문화가 있는 놀이터’의 문화놀이는 시민공모를 통해 개발된 놀이터를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연계, 무미건조한 놀이터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6월의 문화놀이 프로그램은 문화놀이터 4곳을 선정하여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에서 개발한 ‘코끼리 탐험대’, ‘거꾸로 놀이터’, ‘공주야 함께 놀자’ 등 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끼리 탐험대’는 코끼리의 몸을 탐험하는 탐험대원이 되어 코끼리의 귀를 청소해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거꾸로 집의 소방대’는 소방훈련을 거쳐 소방대원이 된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용감하게 불을 끄는 놀이로, ‘공주야, 함께 놀자!’는 공주(교사)가 신하(어린이)에게 문제를 제시하면, 어린이 참여자들이 산, 강, 가시덤불 등을 헤치며 성으로 가서 공주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극적놀이이다.

신청 및 접수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02-747-7317
관련 문의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2-3290-7143



운영 일시	운영 장소	위치
6.6 토 11:00	월계청백 아파트	서울 노원구 월계동 774
6.13 토 11:00	청량리한신 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9
6.20 토 11:00, 12:30	봉청두산 아파트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8-2
6.27 월 14:00	영등포구 문래소공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5-1번지

연극 '이(爾)'로 찾아온 6월의 대학로연극투어

6월 28일 진행, 14일까지 참여신청 접수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연극센터가 오는 6월 28일(일) 낮 12시 30분부터 대학로연극투어를 진행한다. 6월에는 연극 『이(爾)』를 중심으로 대학로와 관객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연극배우 오지혜의 진행으로 대학로 속 '일일 四色만남'을 통해 연극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네 가지 만남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서울연극센터 및 연극 『이(爾)』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만남은 아르코예술극장 백스테이지투어로 진행된다.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산책'이 세 번째 만남으로 꾸며지고 마지막 네 번째 만남에서는 연극 『이(爾)』를 관람하게 된다.

5월 25일(월)부터 6월 14일(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참여자가 선정되며, 선정자 발표는 6월 15일(월), 참가비는 1인 1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를 참조 바란다.



서울연극센터 및 대학로 연습실 대관 안내

6월 이후부터 정기와 수시 대관으로 나누어 운영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연극센터와 대학로연습실 세미나실 사용에 대한 재단 내부 및 외부 단체의 대관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하고 합리

적인 대관을 위해 6월 이후 정기와 수시대관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정기대관의 경우 매월 1일에서 7일까지, 수시대관은 사용예정일 최소 7일전까지다. 승인 여부는 정기대관은 매월 10일 발표되며, 수시대관은 신청 2일 후 통지한다.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http://www.e-stc.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뒤, 운영서비스 ▶ 공간대관에서 달력의 예약현황을 확인하여 대관을 신청하면 된다. 전화 및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한 단체 당 한 달 기준 2회 대관 가능하며, 연속대관은 2일 이하다. 정기대관의 경우 매월 10일 서울연극센터 기준에 의해 심사한 뒤 승인하며, 수시 대관은 신청 2일 후 심사한 뒤 승인한다. 승인 확인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조회 ▶ 대관신청내역에서 할 수 있다. 개별통보는 하지 않는다. 대관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력이 있는 경우,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일 경우(ex. 면접, 오디션 등), 영리 목적의 행사일 경우, 일상 업무 수행, 리딩(Reading) 등의 연습을 위한 대관일 경우, 무단 취소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한된다. 또한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대관신청 제한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승인 취소된다. 승인 취소된 단체는 3년간 대관 신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세미나실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세미나실 현황

좌석 수	대관시간	비고
12석 (보조 의자 24개)	화~토요일 10:00~20:00	기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날은 휴관입니다.
	일, 공휴일 10:00~19:00	
	월요일 휴관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가을 돌재주, 넷재주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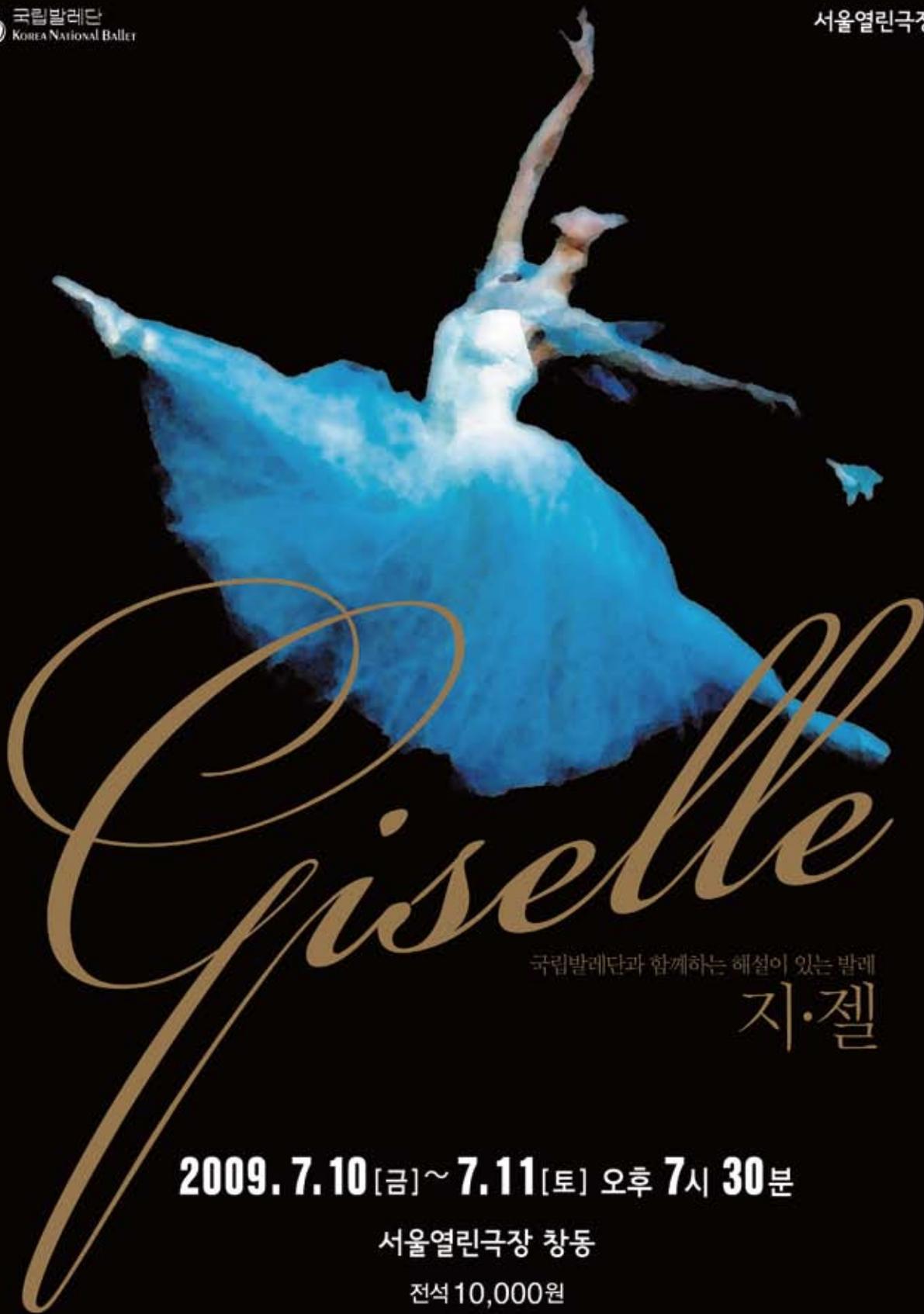
문화로 가득한 서울을 만나보세요!

문화를 누리다, 서울을 누비다! *서울 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화예술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숨어있는 서울의 보물들을 탐방하세요.

서울 문화예술탐방 일정

- 서울 속 미술 이야기 (목) 돌재주 : 미술관 탐방 / 넷재주 : 창작 스튜디오 탐방
- 서울 속 기록 이야기 (금) 돌재주 : 문학 탐방 / 넷재주 : 박물관 탐방
- 서울 속 디자인 이야기 (토) 돌재주 : 서울 디자인 탐방 / 넷재주 : 건축탐방
- 서울 속 가족 이야기 (토) 돌재주 : 서울 역사 유적탐방 / 넷재주 : 우리동네 문화탐방
- 서울 속 오늘 이야기 (일) 돌재주 : 서울의 현재 탐방 / 넷재주 : 흥대 앞 탐방
- 서울 속 대학로 이야기 (일) 넷재주 : 대학로 연극투어

- 탐방 일정 _ 2009년 4월~12월 / 매월 둘째, 넷째 주
- 탐방 신청 _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tac.or.kr)에서 신청
- 문의 전화 _ 02)555-6450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서울문화재단 서울대학교 서울연극센터
- 후원 Hi Seoul 금호고속 협력 서울대학교 서울문화재단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발레

지.젤

2009. 7. 10 [금] ~ 7. 11 [토] 오후 7시 30분

서울연극장 창동

전석 10,000원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02-994-1469

주최 | 서울연극장 창동 제작 | 국립발레단 후원 | 서울특별시 Seoul Metro 협찬 | 이대·웅·업

대학로 방문은 언제나 서울연극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연극센터가 만든 문화지도
대학로문화지도



연극, 공연예술과 관련된 도서 및 미디어자료 비치
정보자료관(2층)



대학로 공연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학로 티켓박스(1층)





“더빨리, 더많이, 더 좋게” 116 x 89 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08

“더빨리, 더많이, 더 좋게” 라고 적힌 홍보용 구조물은 어느 사거리 한복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는 한적한 카페 안에서 또는 어느 중국집에서 내려다보이는 창 밖 풍경만큼 현실과 격리된 ‘장면’으로 인식된다. 한국 도시의 풍경화 속에는 언제나 이러한 아이러니한 풍경이 어느 한곳에서 반드시 연출된다. 당당한 시 홍보용 문구 앞에 민망한 피부과 광고라든가 역사적 기념물 앞에서 마치 수호라도 하듯 지키고 서있는 전투경찰들, 자연의 풍경을 위장한 각종 군사 시설물의 조악한 그림들은 나와 그들 사이의 간극들을 갈등하게 한다. 나는 이들을 군사권력, 정치권력, 문화권력, 위생권력 등으로 구분지어 해석한다. 이는 또한 내가 세상을 보며 갈등(또는 분쟁)하는 시선들의 정체이며 또 나와 다를 바 없는 무수한 객체들이 부딪히고 공감하는 장면들이다.

김 건 희

1993

종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95

종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9-2001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술대학 Sant Jordi 박사과정 이수 la Propia Pintura como Idea, 담당교수 Alicia Vela

개인전

2006

Galeria H20 Barcelona, España 'The color of memory'

2003

Galeria H20 Barcelona, España 'El regreso continuo al vacío'

1999

New Art '99 con Galeria René Metras, Hotel Barceló Sants, Barcelona, España

1994

갤러리 사각, 서울

주요 그룹 · 초대전

2008

불가능한 歸郷_nostomania(책임기획_최금수) 스페이스 향리
송은 미술대상 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5

17 x 17 전, 토탈미술관, 서울 (조이한 평론)

2004

'부유하는 섬-섬으로 찾아가는 사진 영상 예술 전, 전라남도 신안군 5개 섬
F.L.O.W 안양 천 프로젝트, 안양시 6개 버스 정류장
Apatrida project 벽보 불이기 행위 (희생자 김선일 추모)MACBA area, Barcelona Spain

2003

비디오 페스티벌 OFF LOOP 2003, Galeria H20 Barcelona, España

2002

ARCO2002: El stand de Facultad de bellas artes de Barcelona 마드리드, 스페인

2000

제2회 공장 미술제, 도봉구 생표간청공정, 서울

1995

자전적 문화론-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강성원 기획
Theory of Autobiographical Reflection- Looking back with anger : 대중문화의 역사와 근대화의 어떤 추억들.
제 2부, 1 자전적 문화론, 갤러리 서호, 서울